

|논산시의회 최종보고서|

#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정책 연구

Policy Research on Active Seniors in Nonsan

논산시의회

# 목 차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정책연구(요약) .....	1
<b>I . 연구개요 .....</b>	<b>1</b>
<b>1. 연구배경 및 목적 .....</b>	<b>1</b>
1.1 연구배경 .....	1
1.1.1 인구구조 변화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1
1.1.2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와 액티브 시니어 정책의 필요성 .....	2
1.1.3 논산시의 지역적 특수성과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 .....	2
1.1.4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고령층 인력 활용의 중요성 .....	3
1.2 연구목적 .....	4
1.2.1 논산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차원적 특성 규명 .....	4
1.2.2 액티브 시니어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도출 .....	4
1.2.3 문화·여가 활동 기반 구축 방안 제시 .....	5
1.2.4 논산시 특화형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모델 개발 .....	5
<b>2. 연구범위와 방법 .....</b>	<b>6</b>
2.1 연구범위 .....	6
2.1.1 공간적 범위 .....	6
2.1.2 시간적 범위 .....	6
2.1.3 내용적 범위 .....	7
2.2 연구방법 .....	7
2.2.1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	7

2.2.2 통계분석(Statistical Analysis)	8
2.2.3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	8
2.2.4 사례연구(Case Study)	9
2.2.5 전문가 자문(Expert Consultation)	10
2.2.6 통합적 연구설계(Mixed Methods Research Design)	10

## II. 이론적 논의 ..... 11

### 1. 베이비붐 세대 현황 및 특징 .....11

#### 1.1 베이비붐 세대의 개념과 인구학적 규모 .....11

##### 1.1.1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와 세대 구분 .....11

##### 1.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일정과 인구구조 변화 .....12

##### 1.1.3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거시경제적 영향 .....12

#### 1.2 1차와 2차 베이비부머의 비교: 경제적 특성 .....13

##### 1.2.1 강한 계속근로 의향과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13

##### 1.2.2 높은 교육수준과 인적자본 .....14

##### 1.2.3 전문일자리 종사자 비중 증가와 직업구조 .....15

##### 1.2.4 양호한 소득 및 자산 여건 .....15

#### 1.3 1차와 2차 베이비부머의 비교: 사회문화적 특성 .....16

##### 1.3.1 적극적인 사회·문화 활동과 여가 수요 .....16

##### 1.3.2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 개선 .....17

##### 1.3.3 가치관과 노년의식의 변화 .....17

### 2. 액티브 시니어 개념 .....18

#### 2.1 액티브 시니어의 개념적 정의 .....18

2.1.1 용어의 기원과 발전 .....	18
2.1.2 액티브 시니어의 조작적 정의 .....	19
2.1.3 유사 개념과의 비교 .....	19
2.2 액티브 시니어와 기존 실버세대의 비교 .....	20
2.2.1 경제력 차원의 비교 .....	20
2.2.2 노년의식과 가치관의 비교 .....	21
2.2.3 취미활동과 대인관계의 비교 .....	21
2.2.4 레저관과 여가활동의 비교 .....	22
<b>3. 액티브 시니어 특징 .....</b>	<b>22</b>
3.1 경제활동 측면의 특징 .....	22
3.1.1 높은 계속근로 의지와 장기근로 희망 .....	22
3.1.2 전문성 활용 가능한 일자리 선호 .....	23
3.1.3 창업 의향과 장애요인 .....	24
3.2 소비활동 측면의 특징 .....	25
3.2.1 높은 구매력과 소비 여력 .....	25
3.2.2 건강·미용·여가 관련 지출 증가 .....	25
3.2.3 온라인 쇼핑 활용도 증가 .....	26
3.2.4 품질·가치 중시 소비 패턴 .....	27
3.3 문화·여가 측면의 특징 .....	27
3.3.1 평생교육 참여 의향 증가 .....	27
3.3.2 취미·동호회 활동 참여 확대 .....	28
3.3.3 건강관리 및 체육 활동 중시 .....	28
3.3.4 문화예술 향유 욕구 증대 .....	29
3.4 사회참여 측면의 특징 .....	30
3.4.1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 의향 .....	30

3.4.2 지역사회 문제 해결 참여 의향 .....	30
3.4.3 세대 간 교류 및 멘토링 활동 .....	31
3.4.4 재능기부 및 지식 나눔 활동 .....	31

### III. 논산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현황 및 요구분석 ..... 33

#### 1. 논산시 베이비 부머 현황 .....33

#### 2. 은퇴 시기 및 생활환경 변화 .....39

##### 2.1 경제활동 변화 .....39

2.1.1 법정 은퇴연령 도달과 소득공백의 발생 .....39

2.1.2 재취업 시 단순노무직·자영업 쏠림 현상 .....40

2.1.3 주된 일자리 대비 소득 감소 .....41

2.1.4 고용 미스매치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 .....42

##### 2.2 건강상태 변화 .....42

2.2.1 주관적 건강상태의 세대 간 비교 .....42

2.2.2 기대수명 증가와 건강수명의 중요성 .....43

2.2.3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증가 .....44

2.2.4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 접근성 .....45

##### 2.3 사회적 관계 변화 .....45

2.3.1 직장 중심 관계망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 .....45

2.3.2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 .....46

2.3.3 새로운 관계망 형성 욕구 .....47

2.3.4 가족 관계의 재구성 .....47

##### 2.4 생활환경 변화 .....48

2.4.1 시간 사용 패턴의 급격한 변화 .....	48
2.4.2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 .....	49
2.4.3 소비생활과 경제적 적응 .....	49
2.4.4 디지털 환경 적응과 정보격차 .....	50
<b>3. FGI(표적집단면접)를 활용한 시니어층의 욕구와 정책 수요 .....</b>	<b>51</b>
3.1 FGI 조사 설계 및 실시 .....	51
3.1.1 조사 대상 및 표본 구성 .....	51
3.1.2 FGI 질문 구성 및 진행 방식 .....	52
3.2 FGI 결과 분석: 주요 발견 .....	53
3.2.1 경제활동 관련 욕구 - “의미 있는 일을 더 오래 하고 싶다” .....	53
3.2.2 문화·여가 활동 욕구 - “다양한 배움과 경험의 기회” .....	54
3.2.3 평생교육·건강관리 욕구 -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	55
3.2.4 사회참여·사회공헌 욕구 -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	56
3.2.5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 “시혜적이고 수동적인 정책” .....	57
3.2.6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 - “모든 것이 한 곳에” .....	57
<b>4. 전국 유사 지자체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논산시 특화 필요성 도출 .....</b>	<b>59</b>
4.1 유사 지자체 선정 기준 및 사례 개요 .....	59
4.1.1 유사성 평가 지표 .....	59
4.1.2 비교 분석 프레임워크 .....	59
4.2 주요 사례 분석 .....	60
4.2.1 충남 공주시: 평생학습도시 기반 시니어 교육 활성화 .....	60
4.2.2 전북 익산시: 시니어 창업 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 .....	61
4.2.3 경남 밀양시: 고령친화 마을 조성 및 커뮤니티 케어 .....	62
4.3 비교 분석 종합 및 논산시 특화 방향 .....	64

4.3.1	유사 지자체 공통 성공 요인 .....	64
4.3.2	논산시 특화 필요성 도출 .....	65
4.3.3	논산시만의 차별화 전략: “역사·국방·건강이 어우러진 액티브 시니어 도시” .....	66
4.4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벤치마킹(안) .....	67
4.4.1	시니어도서관 중심 벤치마킹 장소 및 계획 .....	67
4.4.2	시니어 커뮤니티 및 통합 돌봄 중심 벤치마킹 장소 및 계획 .....	68
4.4.3	액티브 시니어 시설 및 프로그램 벤치마킹 계획 .....	68
4.4.4	벤치마킹 제안 추진 계획 .....	70
4.4.5	추가 프로그램 연계 벤치마킹 제안 (노인 일자리 연계) .....	70

#### **IV.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정책 방향 ..... 71**

##### **1. 비전 및 목표 .....71**

1.1	정책 비전 .....	71
1.2	정책 목표 .....	71
1.3	추진 전략 .....	72

##### **2. 중점 정책과제 .....73**

2.1	정책과제 1: 액티브 시니어 경제활동 활성화 .....	73
2.1.1	주된 일자리 계속근로 지원 .....	73
2.1.2	시니어 창업 생태계 조성 .....	74
2.1.3	전문성 기반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	75
2.2	정책과제 2: 문화·여가·평생학습 활성화 .....	76
2.2.1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76

2.2.2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79
2.2.3 여행·관광·레저 활성화 .....	82
2.3 정책과제 3: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 지원 .....	85
2.3.1 통합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85
2.3.2 고령친화 환경 조성 .....	90
2.4 정책과제 4: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조성 .....	93
2.4.1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	93
2.4.2 읍·면 단위 소규모 시니어 커뮤니티 거점 조성 .....	96

## **V. 추진 체계 및 자원 조달 ..... 99**

<b>1. 추진 체계 .....</b>	<b>99</b>
1.1 조직 체계 .....	99
1.1.1 논산시청 내 전담 조직 신설 .....	99
1.1.2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 .....	99
1.2 추진 단계 .....	101
1.2.1 제1단계: 기반 구축기 (2025-2029년) .....	101
1.2.2 제2단계: 확산·고도화기 (2030-2034년) .....	102
1.3 성과 관리 및 평가 .....	102
1.3.1 성과지표 체계 .....	102
1.3.2 평가 방법 .....	103
<b>2. 자원 조달 .....</b>	<b>104</b>
2.1 자원 규모 및 구성 .....	104
2.2 중앙정부 지원 확보 방안 .....	105

2.2.1	관련 국비 사업 적극 활용	105
2.2.2	국회 의원 협력	106
2.2.3	대통령 공약사업 연계	106
2.3	충청남도 지원 확보	106
2.3.1	도 단위 공모사업 참여	106
2.3.2	도-시 협력사업 제안	107
2.3.3	광역 단위 사업 공동 참여	107
2.4	논산시 자체 재원	107
2.4.1	일반회계 배정	107
2.4.2	기금 활용	107
2.4.3	예산 절감 및 재배분	108
2.4.4	조세 확충 노력	108
2.5	민간 재원 확보	108
2.5.1	기업 사회공헌(CSR) 연계	108
2.5.2	클라우드펀딩	109
2.5.3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익 환원	109
2.5.4	이용료 수입	110
2.5.5	유산 기부(레거시 기부)	110
2.6	재원 조달 로드맵	111
<b>3.</b>	<b>홍보 및 인식 개선</b>	<b>111</b>
3.1	홍보 전략	111
3.1.1	브랜딩 및 슬로건	111
3.1.2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112
3.1.3	스토리텔링 중심 홍보	112
3.2	인식 개선 캠페인	113

3.2.1 시니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113
3.2.2 시니어 자신의 인식 변화 .....	113
3.2.3 세대 통합 캠페인 .....	114
<b>VI. 결론 및 정책 제언 .....</b>	<b>115</b>
<b>1. 연구 결과 요약 .....</b>	<b>115</b>
<b>2. 정책적 시사점 .....</b>	<b>116</b>
2.1 패러다임 전환: 복지 수혜자에서 지역발전 주체로 .....	116
2.2 통합적·연속적 지원 체계 구축 .....	116
2.3 지역 자산 기반 차별화 전략 .....	117
2.4 일본 사례의 선택적 벤치마킹과 한국적 적용 .....	117
2.5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의 중요성 .....	118
2.6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	119
2.7 성과 측정 및 환류 체계 구축 .....	119
<b>3. 정책 제언 .....</b>	<b>120</b>
3.1 중앙정부에 대한 제언 .....	120
3.1.1 고령자 계속근로 제도 강화 .....	120
3.1.2 노인일자리 사업 질적 개선 .....	120
3.1.3 지역 기반 액티브 시니어 정책 지원 .....	121
3.2 충청남도에 대한 제언 .....	121
3.2.1 충남형 액티브 시니어 모델 개발 .....	121
3.2.2 광역 단위 인프라 공동 활용 .....	121
3.2.3 농촌 지역 특화 지원 .....	122

3.3	논산시에 대한 제언 .....	122
3.3.1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	122
3.3.2	단계적·현실적 추진 .....	122
3.3.3	시니어 당사자 참여 최우선 .....	123
3.3.4	지속적인 홍보 및 인식 개선 .....	123
3.3.5	성과의 객관적 측정과 투명한 공개 .....	123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23
	참 고 문 헌 .....	125

#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정책연구(요약)

## I.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연구배경

- 2024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954만명)가 법정 은퇴연령(60세)에 진입
- 논산시는 지방소멸위험지수 상승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상태
- 고령화율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저하 우려
- 기존 노인복지정책으로는 적극적·활동적 시니어층의 욕구 충족 한계

#### ○ 연구목적

- 논산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현황 및 특성 파악
- 액티브 시니어의 경제활동 및 문화·여가 활성화 방안 마련
- 논산시 특화형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모델 개발
- 지속가능한 고령친화 지역사회 구축 방안 제시

### 2. 연구범위와 방법

####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충남 논산시
- 시간적 범위 : 2024년 기준, 향후 10년 전망
- 대상 : 논산시 베이비부머 세대(55~74세) 및 예비 시니어층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사례 분석
- 통계분석 : 인구·고용·경제 관련 2차 자료 분석
- FGI(표적집단면접) : 시니어층 심층 욕구 파악
- 사례연구 : 유사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 전문가 자문 : 정책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검토

## II. 이론적 논의

### 1. 베이비붐 세대 현황 및 특징

#### ○ 베이비붐 세대 정의

- 1차 베이비붐: 1955~1963년생 (705만명, 13.7%)
- 2차 베이비붐: 1964~1974년생 (954만명, 18.6%)

#### ○ 2차 베이비부머의 주요 특징

##### (1) 강한 계속근로 의향

- 55~79세 계속근로 희망 비중: 68.5% (2023년), 평균 근로 희망연령: 73.0세,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지속 상승세

##### (2) 높은 인적자본

- 대졸 이상 비중: 39.8% (1차는 20.8%), IT 활용능력 우수 (스마트기기, PC 활용도 높음), 전문일자리 종사자 비중 증가

##### (3) 양호한 소득·자산 여건

- 1차 베이비부머 대비 실질소득 수준 상회, 저축 및 국민연금 납부 규모 증가, 금융·실물자산 규모 확대

##### (4) 적극적 사회·문화 활동

- 다양한 취미활동 참여 증가, 영화, 음악회 관람 빈도 증가, 국내외 여행 활동 활발,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 개선

### 2. 액티브 시니어 개념

-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사회·문화 활동에 적극적이며,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추구하는 50~60대 신중년층을 의미

#### ○ 기존 실버세대와의 차이

구분	실버세대(1차)	액티브 시니어(2차)
경제력	독립적 부유층 적음	독립적 부유층 두터움
노년의식	인생의 황혼기, 위기	새로운 인생 시작, 기회
가치관	본인을 노인층으로 인식	본인이 젊다고 생각
취미활동	취미 없고 같은 세대 교류	다양하고 전 연령층 교류
레저관	일 중심, 여가활동 없음	여가 자체의 가치 인정
대인관계	경로원·양로원 중심	동호회·모임 통한 넓은 관계

### 3. 액티브 시니어 특징

#### (1) 경제활동 측면

- 은퇴 후에도 높은 근로의지 유지, 생계유지보다 자아실현·사회참여 목적, 전문성 활용 가능한 일자리 선호, 창업 의향 높음 (준비 부족이 장애요인)

#### (2) 소비활동 측면

- 높은 구매력과 소비성향, 건강·미용·여가 관련 지출 증가, 온라인 쇼핑 활용도 증가, 품질·가치 중시 소비 패턴

#### (3) 문화·여가 측면

- 평생교육 참여 의향 높음, 취미·여가활동 다양화, 건강관리 관심 증대, 자원봉사·사회공헌 활동 참여

## III. 논산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현황 및 요구분석

### 1. 은퇴 시기 및 생활환경 변화

#### (1) 경제활동 변화

- 법정 은퇴연령(60세) 도달 후 소득공백 발생, 국민연금 수급개시(65세)까지 5년 공백기, 재취업 시 단순노무직·자영업 쏠림 현상, 주된 일자리 대비 소득 감소

#### (2)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10년 전 대비 개선, 기대수명 증가로 활동기간 연장, 예방적 건강관리 필요성 인식 증가

#### (3) 사회적 관계 변화

- 직장 중심 관계망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 새로운 관계망 형성 욕구

### 2. FGI(표적집단면접) 결과 - 시니어층 욕구와 정책 수요

#### ○ 경제활동 관련 욕구

-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유연한 근무시간과 형태, 적정 수준의 소득 보장, 창업 지원 (교육, 컨설팅, 자금)

#### ○ 문화·여가 활동 욕구

-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취미·동호회 활동 공간 및 지원, 건강·체육 시설 접근성 향상,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 사회참여 욕구

- 의미 있는 자원봉사 기회, 지역사회 문제해결 참여,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재능기부 및 멘토링 활동

### ○ 정책 개선 요구사항

- 연령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 시니어 특화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통합적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3. 전국 유사 지자체 사례 비교분석

### (1) 충남 지역 특성

- 지방소멸위험지수 : -0.36% (전국 -0.39%)
- 논산시는 현재 소멸위험단계 진입, 2042년 지방소멸 고위험단계 진입 전망
- 여성 인구 감소 기여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음 (33.8%)

### (2) 논산시 특화 필요성

- 농업 중심 산업구조 → 1차 산업 연계 고령자 일자리
-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 유입 → 세대통합형 프로그램
- 군부대 소재지 특성 → 전역군인 재교육·재취업 연계
-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 문화관광 분야 시니어 활용

## IV.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경제활동 및 문화·여가 생활 활성화 지원 방안

### 1. 은퇴 후 재취업 및 창업 실태 분석

#### (1) 재취업 현황

- 60세 이상 고령층 중 생애 주된 일자리 유지율: 30% 미만, 이직 시 단순노무직 쏠림 (55~70세 이직자의 다수), 고용원 없는 자영업 진입 증가

#### (2) 창업 장애요인

- 창업준비 기간 부족 (60대 평균 9개월), 낮은 생산성 (1인당 매출액 3천만원), 취약업종 집중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 높은 부채비율, 전문 컨설팅 부족

### 2. 맞춤형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방안

#### (1) 재취업 지원

- 계속고용제도 활성화 : 정년 후 재고용 장려금 확대

- 직무전환 교육 : 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변화 대응 재교육
- 경력연계 일자리 매칭 : 전문성 활용 가능한 일자리 발굴
- 시간제·탄력근무 : 유연한 근무형태 도입

## (2) 창업 지원

- 사전 준비 강화 : 퇴직 전부터 창업교육 제공
- 업종 다각화 : 고부가가치·성장산업 진입 유도
- 컨설팅 지원 : 사업계획, 마케팅, 재무관리 전문 지원
- 자금 지원 : 저금리 창업자금, 보증 지원

## (3) 사회공헌형 일자리 모델

- 재능기부 플랫폼 : 전문성 기반 멘토링, 컨설팅
- 지역문제 해결 : 마을관리, 안전, 환경 분야
- 세대통합형 : 청년과 시니어 협업 프로젝트
-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마을기업 참여

## 3. 문화·여가 활동 현황 및 개선 방안

### (1) 참여 현황

- 50대 영화·음악회 관람 증가 추세, 국내외 여행 활동 활발, 건강·체육 시설 이용 증가, 동호회 활동 참여 증가

### (2) 개선 방안

- 접근성 향상 : 생활권 내 문화시설 확충
- 프로그램 다양화 : 트렌드 반영, 세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 이용료 지원 : 저소득 시니어 문화향유권 보장
- 디지털 활용 : 온라인 문화콘텐츠 제공

## 4. 평생교육·건강관리·취미활동 연계 프로그램

### (1) 평생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외국어, 예술, 인문학 강좌  
자격증 취득 과정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 (2) 건강관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건강검진 및 상담  
영양·식생활 교육  
치매 예방 프로그램

### (3) 통합 연계 모델

"학습-건강-여가" 원스톱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맞춤 설계  
동호회 활동과 평생교육 연계

## 5. 민간기관·대학·사회적기업 협업 방안

### (1) 지역 대학 연계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  
대학 시설·자원 공유  
학생-시니어 멘토링

### (2) 민간기업 협력

기업 CSR 활동과 연계  
재능기부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협력

### (3)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공동작업장 운영  
판로 개척 지원

## V. 논산시형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모델 개발

### 1. 고령친화 커뮤니티 기반 조성 방안

#### (1) 물리적 환경 조성

- 무장애(Barrier-Free) 공간 설계, 보행 안전시설 확충,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보장

#### (2) 사회적 환경 조성

- 연령차별 해소 캠페인, 세대통합 프로그램, 시니어 친화 서비스 인증제

### 2. 시니어 커뮤니티 허브 공간 모델

#### (1) 마을 단위 모델

읍·면 단위 시니어센터 설치  
도보권 내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기존 시설 리모델링 활용

#### (2) 생활권 중심모델

논산시 중심부 통합 시니어 플라자  
복합문화공간 조성  
창업·일자리 지원 기능 통합

#### (3) 공간구성 요소

평생교육 공간  
건강관리 센터  
문화·여가 시설  
일자리·창업 지원센터  
카페·휴게 공간  
정보화 교육장

### 3. 커뮤니티 운영 프로그램

#### (1) 건강 프로그램

맞춤형 운동교실  
건강검진·상담  
영양 교육  
치매 예방 프로그램

#### (3) 일자리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교육·컨설팅  
재취업 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 (2) 문화 프로그램

문화예술 강좌  
공연·전시 관람  
동호회 활동 지원  
지역축제 참여

#### (4) 복지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돌봄·지원 서비스 연계  
법률·금융 자문  
생활지원 서비스

### 4. 운영주체 및 거버넌스

#### (1) 민·관 협력 모델

- 논산시 : 공간·예산 지원, 정책 수립
- 민간위탁 : 전문 운영기관 선정
- 시니어 참여 : 운영위원회 구성

#### (2) 거버넌스 체계

- 정책결정 : 시-의회-전문가 협의체
- 운영관리 : 운영위원회 (시니어 참여)
- 모니터링 : 정기 평가 및 환류
- 주민참여 : 자원봉사단, 이용자 협의회

#### (3)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재정 : 다원적 재원 확보 (정부지원+자체수익+후원)
- 인력 : 전문인력 배치, 시니어 자원활동가 육성
- 프로그램 : 수요 기반 지속 개발
- 네트워크 :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평가 : 성과지표 관리 및 지속적 개선

# I.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1 연구배경

#### 1.1.1 인구구조 변화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2024년부터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954만명, 전체인구대비 18.6%)가 법정 은퇴연령인 60세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음(이재호·강영관·조운해, 2024, BOK 이슈노트 제2024-17호)
  - 이에 앞서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705만명, 13.7%)의 은퇴연령 진입이 2023년 완료되었으며, 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2015-2023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p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1차보다 더 큰 규모의 2차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이탈은 성장잠재력을 추가로 상당폭 축소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이재호 외, 2024)
  - 특히 논산시는 2024년 11월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며, 현재의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2년에는 지방소멸 고위험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4),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양적 감소를 넘어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위협이라는 다차원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숙련 인력의 대량 유출, 소비시장 축소, 세대 간 갈등 심화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한국은행, 2024)
  - 더욱이 통계청 추계인구에 따르면 2024년 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오삼일 외, 2025, BOK 이슈노트 제2025-8호), 고령화 속도가 지난 20년보다 향후 20년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 1.1.2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와 액티브 시니어 정책의 필요성

- 전통적인 노인복지정책은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은 단기 소득보전 성격의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왔으나, 이러한 일자리는 공공행정·보건복지 산업 내 단순 업무에 치중되어 있어 고령층 근로자가 생애 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오삼일 외, 2025)
  -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노인일자리 63.5%를 차지하는 공익활동 유형은 봉사활동으로 정의되어 월 평균 30시간 근무에 29만원을 지급받는 수준이며, 활동기간도 1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경력개발과 소득보전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 오삼일 외, 2025)
  - 이러한 상황은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적극적 욕구를 가진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즉 '액티브 시니어'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적 미스매치를 초래하고 있음
- 2차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하여 1차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대졸이상 비중 1차 20.8% vs 2차 39.8%), IT 활용능력이 우수하며(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전국민 평균대비 50대 89.6%, 60대 75.2%), 소득·자산 여건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재호 외, 2024)
  - 또한 이들은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고,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가 1차 베이비부머에 비해 개선된 세대로서, 은퇴 후에도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68.5%에 달하며 평균 근로 희망연령도 73.0세로 상승하는 등(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23) 강한 사회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음

### 1.1.3 논산시의 지역적 특수성과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

- 논산시는 충남지역 내에서도 지방소멸위험이 특히 높은 지역으로, 2024년 11월 현재

소멸위험단계에 있으며, 여성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험 기여도가 33.8%로 전국 평균 25.3%보다 높은 특징을 보임(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4)

○ 이는 논산시의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농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가 취약하여 젊은 여성 인구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함(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4)

○ 특히 충남지역의 서비스업은 주로 소매업,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서비스업 비중 34.2%), 교육, 의료, 문화, 정보통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제한적인 상황임

□ 이러한 맥락에서 논산시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를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발전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재인식하고, 이들의 높은 인적자본과 사회참여 의지를 적극 활용하는 '액티브 시니어 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

○ 더욱이 논산시는 군부대 소재지라는 지역적 특성상 전역군인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농업 중심 산업구조의 전환 등 다양한 정책적 기회 요인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액티브 시니어 정책의 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 1.1.4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고령층 인력 활용의 중요성

□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은 성장 잠재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 향후 10년간 노동공급 규모는 141만명(6.4%) 감소하여 GDP를 3.3%(연 0.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됨(오삼일 외, 2025)

○ 그러나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적 특성에 더해 정책적 지원과 강력한 제도변화가 뒷받침될 경우, 2024~2034년 기간 중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하락폭(0.38%p)을 0.14~0.22%p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이재호 외, 2024), 고령층 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국가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임이 입증되고 있음

□ 특히 2차 베이비부머는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다면 은퇴 후 재취업 시 발생하는 인적자본과 직무 간 미스매치가 완화되어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도 성장잠재력 하락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재호 외, 2024)

- 또한 2차 베이비부머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보유 규모가 1차에 비해 크고 소비 여력이 높은 편이어서, 자산 유동화와 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들의 소비를 활성화시킬 경우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이재호 외, 2024)

## 1.2 연구목적

### 1.2.1 논산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차원적 특성 규명

- 논산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현황 및 특성을 경제활동,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생활 환경 변화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2차 자료 분석과 함께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를 활용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양적·질적 데이터의 통합적 분석을 수행함
- 특히 2차 베이비부머가 1차 베이비부머와 구별되는 '액티브 시니어'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은퇴 후 생활양식과 정책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높은 교육수준, 디지털 리터러시, 적극적 사회참여 의지,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수요

### 1.2.2 액티브 시니어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도출

- 액티브 시니어의 경제활동 및 문화·여가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은퇴 후 재취업 및 창업 의향, 장애요인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사례(2000년 노력 의무화 → 2006년 대상자 한정 의무화 → 2013년 희망자 전원 의무화 → 2020년 70세까지 노력 의무화)와 같은 국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한국금융연구원, 2020; 오삼일 외, 2025), 시니어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창업지원 체계, 사회공헌형 일자리 모델 등을 제시

- 특히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현상의 문제점(준비 부족, 취약업종 집중, 낮은 생산성, 높은 부채비율)을 분석하고(이재호·정동재·안병탁, 2025, BOK 이슈노트 제 2025-12호),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의 계속근로 확대 방안을 모색

### 1.2.3 문화·여가 활동 기반 구축 방안 제시

- 액티브 시니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참여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
  - 2차 베이비부머는 1차에 비해 영화·음악회 관람, 국내외 여행 등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고, 다양한 취미활동에 참여하며 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을 보이므로(김도윤 외, 2023),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 건강관리, 취미활동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제시
  -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학습-건강-여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민간기관·대학·사회적기업 등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협업 방안을 모색

### 1.2.4 논산시 특화형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모델 개발

- 논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모델을 개발
  - 고령친화 커뮤니티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 단위 또는 생활권 중심의 시니어 커뮤니티 허브 공간 모델을 설계하며, 건강·문화·일자리·복지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커뮤니티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
  - 특히 운영주체(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액티브 시니어가 지역사회의 중심 주체로서 사회참여와 세대통합을 실현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고령친화적이면서도 활력 있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2. 연구범위와 방법

### 2.1 연구범위

#### 2.1.1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논산시 전역으로 한정
  - 논산시는 행정구역상 2개 읍(연무읍, 노성읍), 11개 면(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성동면, 광석면, 은진면, 채운면, 가야곡면, 양촌면, 벌곡면, 강경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 인구는 약 11만명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있음
  - 논산시는 충남 서남부에 위치하여 대전광역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과 인접해 있으며, 호남선 철도와 호남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 요충지이자 국방의 중심지(육군 훈련소 소재)로서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 백제문화권에 속한 역사문화도시이자 딸기, 석류 등 특화 농산물 생산지로서의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액티브 시니어 정책 수립이 필요

#### 2.1.2 시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는 2024년을 기준연도로 하되, 정책 수립을 위한 전망 기간은 향후 10년(2025-2034년)으로 설정
  - 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법정 은퇴연령 진입이 2024년부터 시작되어 향후 11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논산시가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42년 지방소멸 고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한 것임(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4)
  - 과거 데이터 분석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추세 변화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시 더 장기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

### 2.1.3 내용적 범위

- 내용적 범위는 논산시 베이비부머 세대(55-74세) 및 예비 시니어층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 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현황 및 특성 분석(경제활동, 건강, 사회관계, 생활환경 변화)
    - ② 액티브 시니어의 개념 정립 및 특성 규명
    - ③ 재취업·창업 실태 및 지원 방안
    - ④ 문화·여가 활동 활성화 방안
    - ⑤ 평생교육·건강관리·취미활동 연계 프로그램 개발
    - ⑥ 민간·대학·사회적기업 등과의 협업 방안
    - ⑦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모델 개발
    - ⑧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포괄

## 2.2 연구방법

### 2.2.1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
  - 학술논문 DB(RISS, KISS, DBpia 등)를 활용한 국내 연구 검토, 해외 학술지(SSCI급) 및 국제기구 보고서(OECD, ILO, ECB 등) 분석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 액티브 시니어, 고령자 고용정책, 지방소멸 대응 전략 등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함
  - 특히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시리즈(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등)를 중심으로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사례(한국금융연구원, 2020), 유럽 주요국의 연금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사례 등 해외 선진국의 정책 경험을 심층 분석하고자 함

## 2.2.2 통계분석(Statistical Analysis)

- 인구·고용·경제 관련 2차 자료를 다층적으로 분석
  - 주요 활용 데이터는
    - ① 통계청: 추계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부가조사 포함), 지역별고용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인구총조사, 사회조사
    - ②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③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현황
    - ④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 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등
  - 분석 방법으로는
    - 기술통계(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비율 등), 추세분석(시계열 자료의 선형·비선형 추세 추정),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고용률, 소득, 자산, 삶의 만족도 등 변수 간 관계 분석), 코호트 분석(출생연도별 특성 비교), 지역 간 비교분석(논산시와 유사 지자체 비교) 등을 기존의 연구들을 활용함
  - 특히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한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방법론을 활용하여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이재호 외, 2024), 다양한 시나리오(현 고용률 유지, 과거 추세 지속, 일본식 강력한 제도변화 등)하에서의 정책효과를 확인하고자 함

## 2.2.3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

- 논산시 시니어층의 심층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FGI를 실시하고자 함
  - FGI는 특정 주제에 대해 소수의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양적 연구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미묘한 태도, 감정, 동기, 가치관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① 연령별 그룹(55-64세 예비 시니어, 65-74세 시니어), ② 성별 그룹(남성, 여성), ③ 경제활동 상태별 그룹(재직 중, 재취업, 창업, 구직 중, 은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그룹당 1회의 FGI를 진행하며, 총 3회의 FGI를 통해 15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FGI 질문은 ① 은퇴 전후 생활 변화 및 어려움, ② 재취업·창업 의향 및 장애요인, ③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및 근로조건, ④ 문화·여가 활동 참여 현황 및 욕구, ⑤ 평생교육·건강관리 프로그램 수요, ⑥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 의향, ⑦ 현행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⑧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와 제안 등으로 구성하며,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유연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함
- FGI 결과는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통해 핵심 주제와 패턴을 도출하고, 양적 연구 결과와 통합하여 종합적 해석을 수행하고자 함

## 2.2.4 사례연구(Case Study)

### □ 전국 유사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함

- 지방소멸위험지수, 인구규모, 산업구조, 지리적 여건 등이 논산시와 유사한 지자체(예: 충남 공주시, 보령시, 전북 익산시, 경남 밀양시 등)의 액티브 시니어 정책, 고령친화 일자리 사업,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시니어 커뮤니티 운영 사례 등을 조사·분석
- 각 사례별로 ① 정책 배경 및 목적, ② 주요 프로그램 내용, ③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④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식, ⑤ 성과 및 한계점, ⑥ 논산시 적용 시 고려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 □ 특히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60세 정년 → 65세 고용확보 → 70세 취업기회확보”로 이어지는 계속근로 로드맵을 점진적으로 도입한 사례(오삼일 외, 2025)를 심층 분석하여, 2000년 노력 의무화 단계에서 2006년 대상자 한정 의무화, 2013년 희망자 전원 의무화로 발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의 시사점을 도출함

- 또한 일본 기업들이 65세 고용확보를 위해 선택한 방식(2024년 6월 기준 퇴직 후 재고용 67.4%, 정년연장 28.7%, 정년폐지 3.9%)과 70세 취업기회확보를 위한 7가지 조치(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다른 기업 재취업 지원, 창업지원, 프리랜서 계약, 사회공헌 활동 지원) 중 기업의 31.9%가 한 개 이상을 시행하고 있는 현황(오삼일 외, 2025)을 참고하여 논산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2.5 전문가 자문(Expert Consultation)

- 정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
  - 자문단은 ① 고령화 및 노동경제 전문가(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② 지방행정 및 도시계획 전문가, ③ 사회복지 및 평생교육 전문가, ④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전문가, ⑤ 문화예술 및 관광 전문가, ⑥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전문가, ⑦ 시민사회 및 사회적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 1인씩 총 7인 규모의 전문가 풀을 구축
  - 자문 방식은 대면 회의, 서면 자문, 이메일·화상 회의 등을 병행하며, 연구 단계별로 ① 연구설계 단계(연구 범위 및 방법 적절성 검토), ② 중간 단계(조사 결과 해석 및 정책 방향성 논의), ③ 최종 단계(정책안 구체화 및 실행 전략 검토) 등 3회 이상 자문을 받아 연구의 전문성과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2.2.6 통합적 연구설계(Mixed Methods Research Design)

-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합한 혼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s)을 채택
  - 먼저 문헌연구와 통계분석을 통해 거시적 추세와 객관적 현황을 파악하고(양적 단계), 이를 바탕으로 FGI를 설계하여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과 욕구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후(질적 단계), 양적·질적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해석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순차적 설명 설계(Sequential Explanatory Design)를 활용
  -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욕구를 균형있게 이해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천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
- 또한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논산시청 관계 부서(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등), 논산시의회, 논산시노인복지관, 논산시평생학습관, 지역 대학(건양대학교 등), 상공회의소,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함
  -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실용성과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 추진 시 원활한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II. 이론적 논의

### 1. 베이비붐 세대 현황 및 특징

#### 1.1 베이비붐 세대의 개념과 인구학적 규모

##### 1.1.1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와 세대 구분

- 베이비붐(Baby Boom) 세대는 전쟁 또는 경제위기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인구 집단을 지칭하는 인구학적 개념으로, 한국의 경우 연중 출생아 수가 90만명을 상회하였던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함(이재호 외, 2024; 김태현, 2010)
  - 이 시기는 한국전쟁(1950-1953년) 종료 후 전후 복구와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출산율이 급증한 제1차 인구전환기(demographic transition)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 태어난 인구는 총 약 1,65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2%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세대를 형성하였음(김태현, 2010)
  - 학술적으로는 이 거대한 인구 집단을 출생 시기와 사회경제적 경험의 차이에 따라 1차 베이비부머(전기, 1955-1963년생, 705만명, 13.7%), 중기 베이비부머(1964-1967년생), 2차 베이비부머(후기, 1968-1974년생, 954만명, 18.6%)로 세분화하기도 함(이재호 외, 2024; 방하남, 2012)
  
- 1차 베이비부머는 경제개발 초기의 절대적 빈곤 시대에 유년기를 보내고 산업화 과정에서 중산층으로 성장한 세대로,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급속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경험하였으며,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가족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이 강한 특성을 지님(김태현, 2010)
  - 반면 2차 베이비부머는 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하여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유년기를 보냈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정보화 혁명,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형성한 세대로, 1차와는 상이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임(김도윤 외, 2023; 강민정, 2022)

## 1.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일정과 인구구조 변화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3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연령(법정 정년 60세) 진입은 2015년(1955년생이 60세 도달)에 시작되어 2023년(1963년생이 60세 도달)에 완료되었으며,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2024년(1964년생이 60세 도달)부터 본격적으로 은퇴연령에 진입하여 향후 11년에 걸쳐 2034년(1974년생이 60세 도달)까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됨(이재호 외, 2024)
- 이러한 대규모 은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고령인구(65세 이상) 증가를 동시에 촉진하여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통계청 추계인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비중(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100)은 2024년 20.3%에서 2035년 30%, 2050년 40.1%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인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역시 2024년 28.0에서 2035년 50.7, 2050년 88.2로 상승하여, 생산가능인구 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이재호 외, 2024; 오삼일 외, 2025)
-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고령사회(14%)에서 초고령사회(20%)로의 전환에 소요된 기간이 일본 11년, 독일 36년, 프랑스 40년인 데 비해 한국은 8년(2017-2025년)에 불과하여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오삼일 외, 2025)

## 1.1.3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거시경제적 영향

- 한국은행의 성장회계 분석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취업자 수 감소를 통해 2015-2023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p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동기간 중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전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한 수치임(이재호 외, 2024)
-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1차보다 인구 규모가 약 35% 더 크므로, 현재의 60대 고용률(2023년 남성 68.8%, 여성 48.3%)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24-2034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p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되어, 1차 베이비부머 은퇴 시보다 0.05%p 더 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이재호 외, 2024)

- 그러나 2차 베이비부머의 강한 계속근로 의향이 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뒷받침되어 60대 고용률이 과거 10년간의 증가 추세(선형)를 유지할 경우(2034년 남성 74.7%, 여성 57.5%),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14%p 줄일 수 있으며, 일본과 같은 강력한 제도 변화(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로 60대 고용률이 일본의 2006-2022년 증가 추세를 따를 경우(2034년 남성 78.9%, 여성 61.7%), 하락폭을 0.22%p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이재호 외, 2024)
- 이는 2031-2040년 잠재성장률이 1.3%로 추정(김지연·정규철·허진욱, 2022)되는 상황에서 결코 작지 않은 수준으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함
- 특히 Cobb-Douglas 생산함수( $Y=A \cdot H^\alpha \cdot L^\beta \cdot K^{1-\alpha-\beta}$ , 여기서 Y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 생산성, H는 인적자본, L은 취업자 수, K는 실물자본 스톡,  $\alpha$ 는 노동소득분배율)를 가정한 성장회계 분석에서, 노동소득분배율( $\alpha$ )은 국민계정 중 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으로 시산하여 2000-2022년 평균값인 0.61을 사용하였으며, 인적자본(H)은 평균 교육연수(average years of schooling)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이재호 외, 2024; Barro and Lee, 1993)
  - 1·2차 베이비부머의 평균 교육연수는 각각 12.1년, 13.5년으로 2차가 1.4년 높아, 동일한 취업자 수 감소라도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이 높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함(이재호 외, 2024)

## 1.2 1차와 2차 베이비부머의 비교: 경제적 특성

### 1.2.1 강한 계속근로 의향과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23년 5월)에 따르면, 55-79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9.3%p 상승하였으며, 평균 근로 희망연령 역시 71.7세에서 73.0세로 1.3세 상승하여 고령층의 계속근로 의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이재호 외, 2024; 오삼일 외, 2025)
- 특히 고령층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계속근로 희망 비율이 93.2%에 달해(오삼일 외, 2025), 일단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고령층의 근로 지속 의지가 매우 높음을

## 보여줌

- 이러한 계속근로 의지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도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공급은 2023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 36.2%로 ILO 통계상 OECD 주요국(미국 18.6%, 일본 25.2%, 독일 7.6%, 프랑스 3.5%, 영국 10.7%)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이재호 외, 2024)
- 이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높은 근로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2021년 31.2%, OECD 평균 42.2%) 노인빈곤율이 높은(2020년 40.4%, OECD 평균 14.2%, OECD 회원국 중 1위) 현실이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경제활동 지속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함(이재호 외, 2024; 오삼일 외, 2025)

### 1.2.2 높은 교육수준과 인적자본

- 2차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본격화되고 교육 기회가 확대된 시기에 성장하여 1차에 비해 교육수준이 현저히 높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년 기준)에 따르면, 6170년생(2차 베이비부머에 해당)의 대졸 이상 학력 비중은 39.8%로 5160년생(1차 베이비부머에 해당) 20.8%의 약 2배 수준이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3년 5월)에서 산출한 평균 교육연수는 1차 12.1년, 2차 13.5년으로 2차가 1.4년 김(이재호 외, 2024)
  - 이러한 교육수준의 차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직무 능력, 학습 능력, 적응력 등으로 연결되어 2차 베이비부머의 높은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기반이 됨
- 또한 1990년대 말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2010년대 스마트폰의 대중화 과정을 경험한 2차 베이비부머는 IT기기 활용 능력 및 빈도가 이전세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특성을 보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정보화 수준(PC·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 활용 능력 및 빈도)이 전국민 평균을 100으로 할 때 50대는 89.6%, 60대는 75.2%로, 70대 이상(52.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이재호 외, 2024; 김윤희, 2020)

- 이는 2차 베이비부머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AI와 자동화가 산업 전반에 침투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재교육과 직무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1.2.3 전문일자리 종사자 비중 증가와 직업구조

- 높은 교육수준과 IT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2차 베이비부머의 전문일자리 종사자 비중은 1차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50대 전문일자리(관리직·전문직, 사무직, 기능·기계 조작직) 종사자 수는 2013년 대비 2023년 약 200만명 증가하였으며, 50대 취업자 중 전문일자리 종사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이재호 외, 2024)
  - 이는 2차 베이비부머가 기술혁신 가속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에도 상대적으로 잘 적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은퇴 후에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계속근로 또는 재취업의 기회가 1차보다 많을 것임을 시사함
-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다수 고령층이 정년제도 등에 따라 은퇴한 이후 본인의 인적자본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고용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23년 5월)에 따르면, 55-70세 중 생애 주된 일자리가 전문관리직이었던 비중은 22.7%이나 현재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중은 14.7%에 불과한 반면, 생애 주된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인 비중은 12.4%였으나 현재 단순노무직 종사 비중은 25.3%로 2배 이상 증가하여(이재호 외, 2024; 오삼일 외, 2025), 은퇴 후 직업적 하향이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1.2.4 양호한 소득 및 자산 여건

- 2차 베이비부머의 소득 및 자산 여건은 1차 베이비부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전 실질소득(GDP디플레이

터를 이용하여 실질화)은 1차의 은퇴 전 소득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023년 당시 50대(1963-72년생, 2차)의 연소득 중간값은 약 6,500만원으로 2013년 당시 50대(1953-62년생, 1차)의 약 5,200만원보다 약 25% 높은 수준을 나타냄(이재호 외, 2024)

- 이를 바탕으로 저축과 국민연금 납부 규모 역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한국노동패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0대(1962-71년생, 2차)의 실질 월별 저축액(중간값 기준)은 70만원으로 2011년 기준 50대(1952-61년생, 1차)의 50만원에 비해 40.3% 더 많음(이재호 외, 2024)

□ 국민연금 가입률(=국민연금가입자수/(인구수-공무원연금가입자수)×100) 역시 2023년 12월 기준 50대(1963-72년생, 2차)가 87.2%로 2013년 12월 기준 50대(1953-62년생, 1차) 64.0%보다 23.2%p 높으며, 2021년 고령화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국민연금 가입자 중 67.4%의 납입기간이 의무납입기간(120개월)을 초과하여, 1차에 비해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임(이재호 외, 2024)

- 소득과 저축이 증가하면서 2차 베이비부머의 금융·실물자산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되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전 순자산(총자산-총부채, GDP디플레이터 및 부동산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은 1차의 은퇴 전 순자산을 크게 상회하여, 2차의 은퇴 후 소비여력이 1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됨(이재호 외, 2024)

### 1.3 1차와 2차 베이비부머의 비교: 사회문화적 특성

#### 1.3.1 적극적인 사회·문화 활동과 여가 수요

□ 2차 베이비부머는 1차에 비해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높은 특성을 보임

- 이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취미활동에 참여하고, 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김도윤 외, 2023)
-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50대의 연간 영화 관람 횟수는 2011년 2.8회에서 2019년

4.6회로, 연간 음악회 관람 횟수는 0.3회에서 0.6회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음(이재호 외, 2024)

- 또한 50대의 연간 국내 여행 횟수는 2011년 3.5회에서 2019년 5.2회로, 해외 여행 횟수는 0.4회에서 0.9회로 2배 이상 증가하여, 문화예술 향유와 여행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확인됨(이재호 외, 2024)

### 1.3.2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 개선

-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50대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 중 ' 좋음'(매우 좋음+ 좋음) 비율은 2013년 37.8%에서 2023년 44.2%로 6.4%p 상승한 반면, '나쁨'(매우 나쁨+나쁨) 비율은 14.3%에서 10.8%로 3.5%p 하락하여, 50대의 건강상태가 10년 전 대비 개선되었음을 보여줌(이재호 외, 2024)
- 또한 50대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 중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비율은 2013년 34.0%에서 2023년 40.5%로 6.5%p 상승하였으며,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 비율은 24.6%에서 18.3%로 6.3%p 하락하여, 2차 베이비부머의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가 1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이재호 외, 2024)
- 이러한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 개선은 의료기술의 발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소득 및 자산 여건 개선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은퇴 후에도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특히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60세 은퇴 후에도 20-30년의 긴 노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기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은 액티브 시니어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1.3.3 가치관과 노년의식의 변화

- 김도윤 외(2023)의 연구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부머로 대표되는 '실버세대'와 2차 베이비부머로 대표되는 '뉴실버세대'는 경제력, 노년의식, 가치관, 취미활동, 레저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
- 구체적으로 실버세대는 독립적인 부유층이 낮고, 노년을 인생의 황혼기·위기로 인식하

며, 본인을 노인층으로 수용하고, 취미가 없거나 같은 세대와만 교류하며, 일 중심적으로 여가활동이 없고, 경로원이나 양로원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을 보임(김도윤 외, 2023)

- 반면 뉴실버세대는 독립적인 부유층이 두텁고, 노년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기회로 인식하며,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전 연령층과 교류하며, 여가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호회나 모임을 통해 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을 보임(김도윤 외, 2023)

□ 이러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는 은퇴 후 생활방식과 정책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뉴실버세대는 단순한 소득보전이나 여가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자아실현, 사회공헌, 전문성 발휘, 평생학습, 문화예술 향유, 세대 간 교류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층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수동적·복지 수혜적 노인정책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새로운 정책 수요를 창출함
- 따라서 논산시의 액티브 시니어 정책은 이러한 세대적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시니어를 정책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의 능동적 주체로 재인식하고, 이들의 높은 인적자본과 사회참여 의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2. 액티브 시니어 개념

### 2.1 액티브 시니어의 개념적 정의

#### 2.1.1 용어의 기원과 발전

□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는 일본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전통적인 '노인' 이미지와 구별되는 활동적이고 자립적인 고령층을 지칭하는 마케팅 용어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고령화 사회의 정책 담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음(김문선, 2022)

- 이 용어는 WHO(세계보건기구)가 2002년 제시한 'Active Ageing'(활동적 노화) 개념과도 맥을 같이하는데, Active Ageing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의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며, 고령자를 의존적 존재

가 아닌 사회의 능동적 참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내포(WHO, 2002)

- 한국에서는 2010년대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액티브 시니어', '뉴시니어', '신중년'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은 아니며, 연구자와 정책 맥락에 따라 다소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액티브 시니어는 50-60대의 베이비부머 세대 중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건강하며, 사회·문화 활동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추구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김도윤 외, 2023; 강민정, 2022)

### 2.1.2 액티브 시니어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2차 베이비부머의 특성 분석을 종합하여, 액티브 시니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함
-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란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55-74세)의 베이비부머 세대 중, ①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소비 여력이 있으며, ②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③ 평생학습, 문화예술, 여가활동,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에 적극적이고, ④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한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하며, ⑤ 은퇴 후에도 계속근로 또는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속하거나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구하는 등, 노년기를 수동적 의존기가 아닌 새로운 자아실현과 사회기여의 기회로 인식하는 고령층을 의미한다.”
- 이러한 정의는 액티브 시니어의 특성을 경제적 차원(소득·자산, 소비 여력, 경제활동), 건강 차원(신체적·정신적 건강, 활동성), 사회문화적 차원(평생학습, 문화예술 향유, 여가활동, 대인관계), 심리적 차원(노년의식, 자아실현 욕구, 사회공헌 의지), 역량 차원(인적자본, 디지털 리터러시) 등 다차원적으로 포착하고 있으며, 단순한 연령 구분을 넘어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한 질적 개념임을 강조함

### 2.1.3 유사 개념과의 비교

- 액티브 시니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신중년'은 정부(고용노동부)가 2017년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로, 50-64세 연령층을 지칭하며 정책 대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함(강민정, 2022)

- '뉴시니어'는 마케팅·소비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액티브 시니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나 학술적 엄밀성은 다소 떨어짐
- '실버세대'는 전통적으로 고령자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수동적·의존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액티브 시니어'와 같은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용어가 선호되는 추세임

□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 시니어'를 중심 개념으로 사용하되

- 정책 맥락에서는 '신중년'과, 세대론적 맥락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 또는 '뉴실버세대'와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하며, 이들 용어가 지칭하는 집단의 핵심적 특성-활동성, 자립성, 적극성, 사회참여 의지-은 공통적임을 전제함

## 2.2 액티브 시니어와 기존 실버세대의 비교

### 2.2.1 경제력 차원의 비교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2차 베이비부머(액티브 시니어)는 1차 베이비부머(기존 실버세대)에 비해 은퇴 전 실질소득이 약 25% 높고, 월별 저축액이 40.3% 많으며, 국민연금 가입률이 23.2%p 높고, 순자산 규모도 크게 상회하는 등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이재호 외, 2024)

- 이는 액티브 시니어가 '독립적인 부유층이 두터운' 특성을 지니며, 은퇴 후에도 생계유지를 넘어선 자아실현적·사회공헌적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김도윤 외, 2023)

□ 그러나 이러한 평균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2차 베이비부머 내에서도 소득·자산 격차가 크게 존재하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비정규직·자영업 등 불안정 고용에 종사하거나 실직을 경험한 계층의 경우 노후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0대 중에서도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에 불과하며,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도 57%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준비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절반 이상(51%)이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오삼일 외, 2025), 액티브 시니어 내에서도 경제적 양극화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2.2.2 노년의식과 가치관의 비교

- 김도윤 외(2023)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실버세대는 노년을 '인생의 황혼기', '위기'로 인식하고 본인을 노인층으로 수용하는 반면, 액티브 시니어(뉴실버세대)는 노년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 '기회'로 인식하고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특성을 보임
- 이러한 노년의식의 차이는 은퇴 후 생활설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전자가 소극적·의존적 노후생활을 예상하는 반면, 후자는 적극적·자립적 노후생활을 지향하며 '제2의 인생', '인생 3막'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추구함
- 또한 가치관 측면에서 실버세대는 집단주의적·가족 중심적 가치관이 강한 반면, 액티브 시니어는 개인주의적·자아실현적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자녀 부양 의무에 대한 기대가 낮고 독립적 노후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김도윤 외, 2023)
- 이는 전통적인 '효' 중심의 가족주의가 약화되고 핵가족화·개인화가 진행된 사회 변화를 반영하며, 정책적으로는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노인복지정책에서 개인의 자립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시사함

## 2.2.3 취미활동과 대인관계의 비교

- 기존 실버세대가 '취미가 없고 같은 세대와만 교류'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액티브 시니어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전 연령층과 교류'하는 특성을 보임(김도윤 외, 2023)
- 실제로 통계청 사회조사 분석 결과 50대의 연간 영화·음악회 관람, 국내외 여행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이재호 외, 2024), 동호회·모임 활동 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실버세대가 '경로원이나 양로원에서 관계 형성'하는 제한적·동질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반면, 액티브 시니어는 '동호회나 모임을 통해 넓은 대인관계 형성'하며 세대 간 교류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임(김도윤 외, 2023)
- 이는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며, 정책적으로는 세대통합형 프로그램,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의 필요성을 제기함

## 2.2.4 레저관과 여가활동의 비교

- 기존 실버세대가 '일 중심적이고 여가활동이 없는' 생활양식을 보이는 반면, 액티브 시니어는 '여가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임(김도윤 외, 2023)
- 이는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일 중심'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삶의 질, 자아실현, 행복 추구 등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된 결과로 해석되며, 정책적으로는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평생학습 기회 확대,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성을 제기함
- 특히 은퇴 후 여가시간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여가활동의 부재는 무료감, 우울감,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조화된 여가 프로그램(평생학습, 문화예술 활동,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등)의 제공은 액티브 시니어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임

## 3. 액티브 시니어 특징

### 3.1 경제활동 측면의 특징

#### 3.1.1 높은 계속근로 의지와 장기근로 희망

- 액티브 시니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23년 5월)에 따르면, 5579세 중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68.5%에 달하며, 고령층 취업자 기준으로는 93.2%가 계속근로를 희망하여, 일단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고령층의 근로 지속 의지가 거의 절대적 수준임을 보여줌(이재호 외, 2024; 오삼일 외, 2025)
- 또한 평균 근로 희망연령이 73.0세로 상승하였고, 60대 응답자의 근로 희망연령도 72-75세 수준으로 나타나 법정 정년(60세)보다 12-15년을 더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임(오삼일 외, 2025)

□ 이러한 높은 계속근로 의지는 ① 경제적 필요성(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높은 노인빈곤율,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장기 노후생활 대비 필요성), ② 사회심리적 욕구(사회적 관계 유지, 자아정체성 확립, 사회적 인정 욕구, 무료감·우울감 예방), ③ 건강 및 활동성 유지(근로활동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등 복합적 동기에 기인함(오삼일 외, 2025)

- 특히 2차 베이비부머는 1차에 비해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인적자본이 높아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일을 통한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선 의미 있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강함

### 3.1.2 전문성 활용 가능한 일자리 선호

□ 액티브 시니어는 생애 동안 축적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며, 단순노무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특성을 보임

-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년제도, 연령차별, 경직적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근로가 어렵고, 은퇴 후 재취업 시 단순노무직으로의 하향이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재호 외, 2024; 오삼일 외, 202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23년 5월)에 따르면, 60세 이후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에 불과하며, 55-70세 중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경우 대부분이 단순노무직(비중 큰 폭 증가)으로 근무하는 반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전문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 주된 일자리 유지 여부가 고용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줌(이재호 외, 2024; 오삼일 외, 2025)

- 이러한 고용 미스매치는 개인적으로는 소득 감소, 직무 만족도 저하, 자존감 손상 등을 초래하고, 거시경제적으로는 인적자본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인한 총요소생산성 저하를 야기함(이재호 외, 2024)
- 특히 2차 베이비부머는 높은 교육수준과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인적자본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손실이며, 따라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에서의 계속근로를 확대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임

### 3.1.3 창업 의향과 장애요인

- 액티브 시니어 중 상당수는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하고 있으나, 준비 부족, 자금 부족,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장애요인에 직면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이재호·정동재·안병탁,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1차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고령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032년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48만명(전체 취업자 대비 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고령 자영업자들은 ① 진입장벽이 낮은 취약업종(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으로 집중(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되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② 창업준비 기간이 짧으며(60대 평균 9개월), ③ 생산성이 낮고(1인당 연매출액 3천만원), ④ 부채비율이 높은 등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이재호 외, 2025)
- 특히 고령층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임금근로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이재호 외, 2025), 이는 역설적으로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의 계속근로 기회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함
- 따라서 고령층이 준비 없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① 퇴직 전부터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지원하고, ② 업종 다각화를 유도하여 취약업종 집중을 완화하며, ③ 무엇보다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의 계속근로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이재호 외, 2025)

## 3.2 소비활동 측면의 특징

### 3.2.1 높은 구매력과 소비 여력

- 액티브 시니어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1차 베이비부머에 비해 소득·자산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구매력과 소비 여력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자녀 교육비 지출이 종료되고 주택마련이 완료된 경우가 많아, 가처분소득 중 소비에 지출할 수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김문선(2022)의 연구에 따르면, 주요국의 실버시장(Silver Market)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고령층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의 소비 비중이 전체의 약 50%에 달하며, 미국도 50세 이상 인구의 소비가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이 주요 소비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김문선, 2022)
  
- 한국의 경우 아직 고령층의 소비 비중이 선진국만큼 높지는 않으나,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액티브 시니어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
  - 특히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주택연금 등 자산 유동화 금융상품의 활용을 통해 보유자산을 소비로 전환할 경우 소비 여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이재호 외, 2024)
  - 실제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2010년 0.4만명에서 2023년 12.1만명으로 급증하였고, 연금지급액도 2023년 2.4조원에 달하는 등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수단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이재호 외, 2024)

### 3.2.2 건강·미용·여가 관련 지출 증가

- 액티브 시니어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관리, 미용, 여가·레저 관련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경향을 보임
  - 김도윤 외(2023)에 따르면, 액티브 시니어는 전통적인 실버세대에 비해 외모 관리에 관심이 높고, 피트니스 센터 이용, 건강기능식품 구매, 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적극적으로

며, 여행·문화·취미 관련 지출도 증가 추세를 보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60대 가구의 보건·의료 관련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예방적 건강관리와 웰니스(wellness) 관련 지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김도윤 외, 2023)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50대의 연간 국내외 여행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이재호 외, 2024), 액티브 시니어는 여행·레저 활동에 대한 지출 의향이 높으며, 단순 관광을 넘어 문화체험, 교육여행, 액티비티 등 다양한 형태의 여행을 추구
- 이러한 소비 패턴은 액티브 시니어를 타겟으로 한 건강·미용·여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역경제 관점에서는 논산시의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 특화 농산물(딸기, 석류 등 건강식품) 등을 활용한 시니어 친화적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함

### 3.2.3 온라인 쇼핑 활용도 증가

- 2차 베이비부머의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는 온라인 쇼핑 활용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김윤화(2020)의 연구에 따르면, 50-60대의 스마트기기 보유율과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쇼핑, 모바일 뱅킹, SNS 이용 등이 일상화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고령층의 온라인 쇼핑 이용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팬데믹 종료 후에도 지속되고 있음
- 이는 액티브 시니어가 물리적 이동의 제약 없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탐색·구매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정책적으로는 ①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강화, ② 시니어 친화적 온라인 쇼핑 인터페이스 개발, ③ 온라인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지역 특산물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통해 액티브 시니어의 온라인 소비를 지역경제로 유입시키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음

### 3.2.4 품질·가치 중시 소비 패턴

- 액티브 시니어는 단순히 저렴한 제품보다는 품질과 가치를 중시하는 합리적 소비 패턴을 보임
  - 김도윤 외(2023)에 따르면, 액티브 시니어는 충분한 정보 탐색과 비교를 통해 제품을 선택하며, 가격보다는 품질, 브랜드, 사후서비스,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스마트 컨슈머(smart consumer)' 특성을 보임
  - 특히 건강·안전과 직결된 제품(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지불 의사도 높은 편임
  
- 또한 환경·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제품, 공정무역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이러한 소비 패턴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개발이 액티브 시니어 시장에서 성공하는 열쇠임을 시사함

## 3.3 문화·여가 측면의 특징

### 3.3.1 평생교육 참여 의향 증가

-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임
  -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통계조사」에 따르면, 50-60대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력이 높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는 취미·교양 과정(외국어, 인문학, 예술 등)과 직업능력 향상 과정(자격증, 정보화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대학의 평생교육원, 시민대학, 문화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고급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인문학적 성찰, 지적 호기심 충족, 전문 지식 습득 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액티브 시니어 정책에서 평생학습 기회 확대가 중요한 과제를 시사하며, 논산시의 경우 건양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시니어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3.3.2 취미·동호회 활동 참여 확대

- 액티브 시니어는 다양한 취미 활동에 참여하며, 동호회·모임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함
  - 김도윤 외(2023)에 따르면, 액티브 시니어는 등산, 걷기, 수영,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사진, 서예, 그림, 음악, 춤, 원예, 요리 등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독서토론, 역사탐방, 자연관찰 등 지적 활동에도 관심이 높음
- 특히 동호회 활동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 정서적 지지 제공, 고립감 해소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액티브 시니어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또한 동호회 활동은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여, 청년·중년·노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동호회는 세대 간 이해와 연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 정책적으로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시설 제공, 동호회 활동 지원(장소 대여, 강사 파견, 활동비 지원 등), 세대통합형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

### 3.3.3 건강관리 및 체육 활동 중시

- 액티브 시니어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관리를 중시함
  -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50-60대의 규칙적 운동 실천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걷기, 등산, 헬스, 수영,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또한 건강검진 수진율, 건강기능식품 섭취율, 건강정보 탐색 행동 등도 높아, 예방적·적극적 건강관리 행동이 일반화되고 있음

- 정책적으로는 ① 생활권 내 체육시설 확충(공공 체육관, 생활체육공원, 산책로 등), ② 시니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근력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감각 훈련 등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를 고려한 프로그램), ③ 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 제공, ④ 영양·식생활 교육, ⑤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 정책이 필요
- 특히 논산시와 같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건강 인프라 확충이 시니어의 정주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므로, 보건소·의료기관·체육시설 등의 접근성 향상이 중요한 정책 과제임

### 3.3.4 문화예술 향유 욕구 증대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50대의 연간 영화·음악회 관람 횟수가 코로나19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이재호 외, 2024), 이는 액티브 시니어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단순 관람을 넘어 직접 창작·표현 활동(악기 연주, 노래, 춤, 그림, 글쓰기 등)에 참여하려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예술 동호회, 시민예술단,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논산시와 같은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경우 문화예술 인프라가 대도시에 비해 취약하여, 액티브 시니어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2024)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직업을 선택할 때 남성보다 근무여건 및 비임금 만족감(생활 인프라, 문화시설 등)을 더 많이 고려하는데, 지역 내 인프라 부족은 여성 인구의 유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액티브 시니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생활권 내 문화시설 확충(도서관, 공연장, 전시관, 영화관 등), ②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순회공연, 이동도서관, 문화예술 강사 파견 등), ③ 온라인 문화콘텐츠 제공(공연·전시 실시간 스트리밍, VOD 서비스 등), ④ 생활문화센터·마을 문화공간 조성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

### 3.4 사회참여 측면의 특징

#### 3.4.1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 의향

-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후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자원봉사 활동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계층의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 자원봉사 활동 분야로는 사회복지(노인·아동·장애인 돌봄 등), 교육(멘토링, 학습지도 등), 환경보전, 지역사회 개발, 재난구호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이 나타남
  
- 특히 액티브 시니어는 생애 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재능기부'에 관심이 높아, 단순 노력봉사가 아닌 전문 컨설팅, 멘토링, 교육 등의 고급 자원봉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예를 들어 교사 출신은 학습지도, 회계사 출신은 비영리단체 회계 지원, 엔지니어 출신은 기술 자문 등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음
  - 정책적으로는 ① 전문성 기반 자원봉사 매칭 플랫폼 구축, ②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표창, 마일리지 제도 등), ③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④ 자원봉사 활동 보험 및 안전 보장 등의 지원이 필요

#### 3.4.2 지역사회 문제 해결 참여 의향

- 액티브 시니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높은 특성을 보임
  -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 발전 과정을 경험한 2차 베이비부머는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이 1차에 비해 높으며, 지역사회의 현안(환경, 안전, 교육, 복지, 문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향이 강함
  - 특히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지역사회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어,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정책적으로는 ① 시니어의 지역사회 참여를 제도화하는 거버넌스 구축(주민참여예산, 정책자문위원회, 공청회 등), ② 마을 단위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지원, ③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설립 및 운영 지원, ④ 세대통합형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액티브 시니어를 지역사회 발전의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 중요

### 3.4.3 세대 간 교류 및 멘토링 활동

- 액티브 시니어는 전 연령층과 교류하는 개방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김도윤 외, 2023),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인생 경험과 전문 지식을 전수하는 멘토링 역할에 관심이 높음
- 청년 창업 멘토링, 진로 상담, 학습 코칭, 육아·손주 돌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갈등 완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통합형 주거'(예: 대학생에게 저렴한 방을 제공하는 대신 고령자의 말벗·간단한 집안일 돕기 등을 교환하는 '홈셰어 프로그램'),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 일하는 '세대통합형 일터',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참여하는 '3세대 통합 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세대통합 모델이 국내외에서 실험되고 있음
- 논산시의 경우 고령층이 농업 기술과 경험을 청년 귀농인에게 전수하는 '농업 멘토링 프로그램', 육군훈련소 전역 예정 장병에게 진로·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전역 지원 멘토링'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 3.4.4 재능기부 및 지식 나눔 활동

- 액티브 시니어는 생애 동안 축적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사회와 나누고자 하는 의향이 높음
- 예를 들어 퇴직 교사는 저소득층 아동 학습지도, 퇴직 의사·간호사는 취약계층 건강상

담, 퇴직 엔지니어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 기술자문, 퇴직 공무원·기업 임원은 청년 창업 멘토링·경영컨설팅 등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이러한 재능기부는 수혜자에게는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고, 기부자에게는 사회적 인정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연대 강화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음
- 정책적으로는 ① 재능기부 매칭 플랫폼 구축(수요자와 공급자 연결), ② 재능기부 인증제 도입(활동 시간 인증, 마일리지 제도 등), ③ 재능기부자 역량 강화 교육(효과적인 멘토링 기법, 세대 간 소통 방법 등), ④ 재능기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통해 재능기부 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Ⅲ. 논산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현황 및 요구분석

#### 1. 논산시 베이비 부머 현황

- 현재 논산시의 노인인구는 2022년 32,616명에서 2025년 5월 기준 35,067명으로 매년 1,000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은 32.6%로 이미 초고령 사회 기준을 넘어섰음
- 또한, 2023년에는 제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모두 은퇴 연령에 진입했고, 196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의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향후 10년 이상에 걸쳐 은퇴 연령(만 60세)에 도달하게 됨
- 2024년 12월 논산시 인구 기준,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27,726명에 이르며, 매년 약 2,000명씩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6> 충남 및 논산시 고령인구 현황(2025년 5월 기준)

(단위: %)

시/군	전체인구	합계 (고령화율)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세 이상
충청 전체	2,135,908	486,953 (22.8%)	158,297	111,539	83,902	66,045	44,933	18,090	3,642	505
천안시	661,615	95,709 (14.5%)	36,433	22,504	15,399	11,147	6,983	2,637	534	72
공주시	100,793	32,242 (32%)	10,198	7,415	5,431	4,494	3,056	1,340	272	36
보령시	92,837	30,037 (32.4%)	9,234	7,019	5,465	4,198	2,773	1,084	221	43
아산시	357,051	54,592 (15.3%)	19,061	12,693	9,330	6,957	4,471	1,695	343	42
서산시	173,337	39,645 (22.9%)	12,574	8,834	7,010	5,366	3,801	1,675	334	51
<b>논산시</b>	<b>107,607</b>	<b>35,067 (32.6%)</b>	<b>10,790</b>	<b>8,030</b>	<b>5,982</b>	<b>5,015</b>	<b>3,494</b>	<b>1,417</b>	<b>302</b>	<b>37</b>
계룡시	46,119	7,230 (15.7%)	2,745	1,821	1,109	782	505	216	44	8
당진시	172,373	37,843 (22%)	12,337	8,415	6,594	5,110	3,699	1,343	310	35
금산군	49,384	18,313 (37.1%)	5,485	4,226	3,244	2,686	1,829	702	122	19
부여군	58,982	24,797 (42%)	7,136	5,444	4,291	3,797	2,697	1,160	238	34
서천군	47,811	20,564 (43%)	5,509	4,584	3,761	3,194	2,308	982	203	23
청양군	29,388	12,224 (41.6%)	3,478	2,644	2,097	1,865	1,434	589	108	9
홍성군	100,108	27,689 (27.7%)	8,217	6,286	4,890	3,947	2,903	1,178	230	38
예산군	78,767	28,070 (35.6%)	8,190	6,396	4,970	4,162	2,928	1,172	214	38
태안군	59,736	22,931 (38.4%)	6,910	5,228	4,329	3,325	2,052	900	167	20

자료 : 2025년 5월 KOSIS 국가통계포털 기준, 충청남도 홈페이지 2025년 9월 검색.

-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독거노인의 문제임
  - 논산시의 독거노인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11,891명(35.5%)로 타 충남 시군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독거노인들의 경우 현실적인 측면에서 액티브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향후 노인인구가 늘어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음

<표 7> 충남 및 논산시 독거노인 현황(2023년 12월 기준)

(단위: 명, %)

시/군	독거노인 수			노인인구
	계	기초생활수급노인	일반노인	
충남 전체	140,988 (31%)	27,803	113,185	454,534
천안시	24,234 (28.2%)	3,540	20,694	85,875
공주시	9,518 (31.2%)	926	8,592	30,500
보령시	9,544 (33.5%)	1,971	7,573	28,525
아산시	15,043 (30.3%)	5,231	9,812	49,677
서산시	10,507 (28.5%)	1,703	8,804	36,822
<b>논산시</b>	<b>11,891 (35.5%)</b>	<b>3,186</b>	<b>8,705</b>	<b>33,458</b>
계룡시	1,804 (27.5%)	466	1,338	6,552
당진시	10,620 (30.1%)	1,934	8,686	35,271
금산군	5,990 (34.1%)	1,162	4,828	17,579
부여군	8,060 (33.5%)	1,685	6,375	24,032
서천군	6,858 (34.4%)	956	5,902	19,942
청양군	3,966 (33.6%)	589	3,377	11,795
홍성군	7,680 (29.5%)	1,778	5,902	25,994
예산군	8,143 (30.4%)	1,656	6,487	26,776
태안군	7,130 (32.8%)	1,020	6,110	21,736

자료 : 2025년 5월 KOSIS 국가통계포털 기준, 충청남도 홈페이지 2025년 9월 검색.

- 이와 함께 실제 노인들이나 액티브 시니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인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충남은 2024년 1월 말 기준 도내 15개 시·군에는 총 19개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보령시와 홍성군은 각각 3개의 복지회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논산시·서산시·금산군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전무한 실정임
  -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실제 베이비붐 세대 등 갖 노인에 접어든 연령대들의 경우 그에 따른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표 8> 충남 및 논산시 경로당 현황(2024년 5월 기준)

(단위: 개소, 명)

시/군	분회수	경로당 수			총 회원수 (등록회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수
		합계	모범	일반		
충남 전체	211	5,915	219	5,696	240,040	32
논산시	15	521	15	506	19,685	3

자료 : 2025년 5월 KOSIS 국가통계포털 기준, 충청남도 홈페이지 2025년 9월 검색.

- 실제 충남 15개 시군의 삶의 만족도 분석결과를 보면 논산시가 61.16점으로 전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보통의 점수가 가장 높고 만족하는 점수가 낮다는 것은 결국 보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결과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의 만족도가 낮은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결국 지역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노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원을 검토해야만 이러한 만족도 및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표 9> 충남 및 논산시 삶의 만족도 현황(2024년)

(단위: 점, %)

시/군	사례수	불만족 (0-4점)	보통 (5점)	만족 (6-10점)	계	평균 (10점척도)	평균 (100점)
충남 전체	(24,482)	8.3	29.3	62.5	100.0	6.53	65.33
천안시	(2,847)	9.1	27.1	63.8	100.0	6.57	65.68
공주시	(1,576)	11.0	33.3	55.6	100.0	6.29	62.90
보령시	(1,474)	11.5	28.0	60.5	100.0	6.26	62.56
아산시	(2,489)	6.1	30.0	63.9	100.0	6.78	67.78
서산시	(1,954)	7.6	31.4	61.0	100.0	6.30	63.04
<b>논산시</b>	<b>(1,667)</b>	<b>9.2</b>	<b>39.4</b>	<b>51.4</b>	<b>100.0</b>	<b>6.12</b>	<b>61.16</b>
계룡시	(1,159)	6.1	24.5	69.4	100.0	6.90	68.98
당진시	(1,760)	8.2	32.6	59.3	100.0	6.41	64.11
금산군	(1,320)	8.4	30.2	61.4	100.0	6.33	63.28
부여군	(1,390)	7.6	30.9	61.5	100.0	6.51	65.08
서천군	(1,267)	5.0	14.2	80.8	100.0	7.04	70.42
청양군	(1,123)	11.7	16.8	71.4	100.0	6.55	65.48
홍성군	(1,730)	4.9	22.9	72.2	100.0	6.95	69.53
예산군	(1,491)	11.1	37.0	51.9	100.0	6.19	61.91
태안군	(1,235)	6.8	29.1	64.1	100.0	6.69	66.94

자료 : 2024년 7월 충남 사회지표 조사결과.

□ 삶의 대한 만족도 이외에 거주지역의 만족도 역시 충남 15개 시군에서 보령시 이외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에 대한 불만족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복지 등 필수 요소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표 10> 충남 및 논산시 거주지 만족도 현황(2024년)

(단위: 점, %)

시/군	사례수	불만족 (0-4점)	보통 (5점)	만족 (6-10점)	계	평균 (10점척도)	평균 (100점)
충남 전체	(24,482)	9.2	31.1	59.7	100.0	6.35	63.54
천안시	(2,847)	9.1	28.7	62.2	100.0	6.41	64.06
공주시	(1,576)	10.4	36.5	53.2	100.0	6.16	61.61
보령시	(1,474)	15.1	30.6	54.3	100.0	5.91	59.13
아산시	(2,489)	6.5	31.1	62.4	100.0	6.66	66.57
서산시	(1,954)	9.8	35.8	54.5	100.0	6.04	60.37
<b>논산시</b>	<b>(1,667)</b>	<b>11.4</b>	<b>40.3</b>	<b>48.3</b>	<b>100.0</b>	<b>5.92</b>	<b>59.18</b>
계룡시	(1,159)	8.3	23.4	68.3	100.0	6.67	66.66
당진시	(1,760)	11.6	36.0	52.4	100.0	6.05	60.45
금산군	(1,320)	9.5	31.5	59.0	100.0	6.16	61.63
부여군	(1,390)	9.3	29.6	61.1	100.0	6.41	64.08
서천군	(1,267)	4.9	17.8	77.4	100.0	6.90	69.05
청양군	(1,123)	10.9	17.6	71.5	100.0	6.47	64.68
홍성군	(1,730)	5.6	23.7	70.6	100.0	6.88	68.81
예산군	(1,491)	12.3	38.4	49.3	100.0	6.04	60.36
태안군	(1,235)	7.4	29.9	62.7	100.0	6.63	66.34

자료 : 2024년 7월 충남 사회지표 조사결과.

□ 또한 중요한 근로 은퇴시기를 보면 타 지역에 비해 논산시의 경우 75세 이상까지도 은퇴시기를 연장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음

- 이는 결국 전에 살펴본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지역의 만족도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며, 더 나아가 노인들의 일자리 확충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단순히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확충의 차원이 아닌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필요함을 의미함.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논산시의 경우 노인종합복지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
- 특히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경로당이 전부이며, 이러한 노인들과 그 중간에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표 11> 충남 및 논산시 근로 은퇴시기(2024년)

(단위: 점, %)

시/군	사례수	60세 미만	60세 이상-75세 미만	75세 이상	무응답	계
충남 전체	(23,931)	12.9	68.3	18.6	0.1	100.0
천안시	(2,788)	17.4	71.1	11.3	0.1	100.0
공주시	(1,544)	8.1	66.6	24.3	1.0	100.0
보령시	(1,452)	9.1	66.2	24.8	0.0	100.0
아산시	(2,394)	15.6	73.7	10.6	0.0	100.0
서산시	(1,911)	14.6	66.6	18.8	0.0	100.0
<b>논산시</b>	<b>(1,628)</b>	<b>8.3</b>	<b>61.1</b>	<b>29.8</b>	<b>0.8</b>	<b>100.0</b>
계룡시	(1,121)	17.3	64.7	17.5	0.6	100.0
당진시	(1,721)	10.3	70.9	18.8	0.0	100.0
금산군	(1,292)	5.6	70.6	23.7	0.0	100.0
부여군	(1,372)	7.3	70.1	22.5	0.1	100.0
서천군	(1,250)	7.3	57.7	35.0	0.1	100.0
청양군	(1,107)	6.0	60.8	33.2	0.0	100.0
홍성군	(1,670)	8.7	66.0	25.1	0.2	100.0
예산군	(1,459)	9.3	58.9	31.8	0.0	100.0
태안군	(1,222)	5.2	55.5	39.2	0.1	100.0

자료 : 2024년 7월 충남 사회지표 조사결과.

-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과 관련된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노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논산시를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료서비스 만족도, 평생교육기회 충분도, 근로여건 만족도,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지역정주의사, 주거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안전환경 평가, 여가활동 만족도, 취약계층 복지, 노인관련 복지, 노인인권의식 등을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평균 점수와 함께 보통의 응답문제임. 일반적으로 보통의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논산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아주 애매한 측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더 좋은 것도 더 나쁜 것도 없는 응답의 경우 더 좋은 쪽으로 방향성을 선회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평균 점수가 60점 이하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충남 15개 시군과 비교해 볼 때에도 논산시의 평균은 대부분 하위권으로 기본적인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음

<표 12> 충남 및 논산시 기타 현황(2024년)

(단위: 점, %)

시/군	사례수	불만족 (1-2점)	보통 (3점)	만족 (4-5점)	계	평균 (5점척도)	평균 (100점)
의료서비스 만족도	(1,457)	8.8	41.1	50.0	100.0	3.55	63.66
평생교육기회 충분도	(1,571)	23.5	30.9	11.8	100.0	2.76	<b>43.93</b>
근로여건 만족도	(1,005)	8.3	55.0	36.7	100.0	3.35	58.80
소득 만족도	(1,623)	21.8	37.5	21.4	100.0	2.98	<b>49.42</b>
소비생활 만족도	(1,623)	22.7	59.2	18.1	100.0	2.93	<b>48.36</b>
지역정주의사	(1,664)	15.5	16.9	67.5	100.0	3.73	68.18
주거환경 만족도	(1,665)	11.9	53.3	34.7	100.0	3.28	56.89
대중교통 만족도	(1,177)	13.9	51.7	34.4	100.0	3.27	56.71
안전환경 평가	(1,667)	5.8	50.5	43.8	100.0	3.41	60.20
여가활동 만족도	(1,666)	33.2	56.0	10.7	100.0	2.70	<b>42.41</b>
취약계층 복지	(1,626)	9.6	34.2	29.6	100.0	3.32	58.07
노인관련 복지	(1,626)	10.0	36.4	26.6	100.0	3.27	56.80
노인인권의식	(1,663)	7.8	53.2	39.0	100.0	3.40	60.03

자료 : 2024년 7월 충남 사회지표 조사결과.

## 2. 은퇴 시기 및 생활환경 변화

### 2.1 경제활동 변화

#### 2.1.1 법정 은퇴연령 도달과 소득공백의 발생

- 현행 법제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었음(오삼일 외, 2025)

-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2028년 이후 60세에 은퇴하는 고령층은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 간 5년의 소득공백(60-64세)이 발생하게 됨(오삼일 외, 2025)

- 이는 2024년부터 은퇴연령에 진입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년생 이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소득공백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재취업 또는 자영업 진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노후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요인이 됨

■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정년퇴직 시점에서 연금 수급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2017년 1년에서 2021년 3년, 2025년 4년, 2029년 5년으로 증가하여, 소득공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오삼일 외, 2025)

-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2020년 기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도 2021년 기준 31.2%로 OECD 평균 42.2%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이재호 외, 2024; 오삼일 외, 2025), 5년간의 소득공백은 고령층을 빈곤으로 내모는 직접적 원인이 되며, 이는 높은 계속근로 의지(68.5%)와 장기 근로 희망(평균 73.0세까지)의 배경이 되고 있음

## 2.1.2 재취업 시 단순노무직·자영업 쏠림 현상

■ 정년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하는 고령층의 대다수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노무직이나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하향이동(downward mobility)을 경험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23년 5월)에 따르면, 55-70세 중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에 불과하며, 60세 이후에는 생애 주된 일자리보다 기타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65세를 넘어가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짐(이재호 외, 2024; 오삼일 외, 2025)
- 구체적으로 55-70세 생애 주된 일자리 이직자의 현 근무 직종을 보면 단순노무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전문관리직·사무직·기능기술직 등 전문일자리 비중이 높아, 주된 일자리 유지 여부가 고용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음(이재호 외, 2024; 오삼일 외, 2025)

- 또한 핵심 연령층(35-59세)의 자영업 고용률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60세 이상의 자영업 고용률은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로 신규 유입되는 근로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2016년 29.0%에서 2024년 35.6%로 증가하여(이재호·정동재·안병탁, 2025), 고령층의 자영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고령 자영업자는 진입장벽이 낮은 취약업종(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에 집중되어 있으며(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 창업준비 기간이 짧고(평균 9개월), 생산성이 낮으며(1인당 연매출액 3천만원), 부채비율이 높은 등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이재호 외, 2025), 폐업 위험이 높고 재기가 어려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큼

### 2.1.3 주된 일자리 대비 소득 감소

- 은퇴 후 재취업 또는 자영업 진입 시 소득이 생애 주된 일자리 대비 크게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임
  - 조강철·이종하(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0-64세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신규 임금근로자의 86.3%가 비정규직이었으며, 이는 상용직 중심의 주된 일자리에서 임시·일용직 중심의 재취업 일자리로의 전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이재호 외, 2024)
  -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 사회보험 가입률, 부가급여 등 제반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재취업 후에도 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됨
-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한 기대소득 추정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후 계속근로(정년 후 재고용)를 할 경우 55-59세 상용직 소득의 60% 수준(월 238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분 4.5% 차감 후)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때, 이는 노인일자리 근로(월 평균 59만원) 대비 179만원 높은 수준이지만, 주된 일자리 소득(월 약 400만원) 대비로는 40% 감소한 수준임(오삼일 외, 2025)
  - 자영업의 경우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소득 편차가 크지만, 소상공인실태조사(2022년) 분석 결과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1인당 매출액은 3천만원에 불과하여 여타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은 생산성을 보이며(이재호 외, 2025), 이는 준비 부족, 취약업종 집중, 과도한 경쟁 등에 기인함

## 2.1.4 고용 미스매치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

- 은퇴 후 단순노무직·자영업으로의 하향이동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소득 감소, 직무 만족도 저하, 자존감 손상, 사회적 지위 하락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며,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는 숙련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로 인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저하를 야기함(이재호 외, 2024)
  - 특히 2차 베이비부머는 1차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평균 교육연수 13.5년 vs 12.1년), 전문일자리 종사 비중이 높으며, IT 활용능력이 우수한 등 인적자본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이재호 외, 2024), 정년제도, 연령차별, 경직적 임금체계 등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이러한 인적자본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손실임
  
- 한국은행의 성장회계 분석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의 영향만을 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은퇴연령 진입 후 계속근로 시 발생하는 인적자본과 직무 간 미스매치가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을 추가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이재호 외, 2024)
  - 즉,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단순 업무에 투입되거나, 숙련이 불필요한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면, 이들의 잠재적 생산성이 실현되지 못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임
  - 따라서 고령층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근로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개인의 소득 안정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지님

## 2.2 건강상태 변화

### 2.2.1 주관적 건강상태의 세대 간 비교

-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50대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10년 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13년 당시 50대(1954-63년생, 1차 베이비부머)와 2023년 당시 50대(1964-73년

생, 2차 베이비부머)를 비교하면, 자신의 건강상태가 ' 좋음'(매우 좋음+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8%에서 44.2%로 6.4%p 상승한 반면, '나쁨'(매우 나쁨+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3%에서 10.8%로 3.5%p 하락하였음(이재호 외, 2024)

- 이러한 건강상태 개선은 의료기술의 발전, 예방의학의 확산,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관리 투자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2차 베이비부머가 1차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신체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과거 조사 대비 개선되었으며,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건강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 이는 건강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소득·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2차 베이비부머가 건강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동시에 건강 불평등이 존재하여, 저소득·저학력 계층의 경우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아, 액티브 시니어 정책에서도 건강 형평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2.2.2 기대수명 증가와 건강수명의 중요성

□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기준 남성 80.6세, 여성 86.6세에 달하며, 60세 시점의 기대여명도 남성 23.8년, 여성 28.9년으로 나타나(통계청, 2023), 60세 은퇴 후에도 20-30년의 긴 노년기가 예상됨

- 이는 은퇴 후 생활설계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뿐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 즉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함
-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활동제한 없이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의미하며, WHO는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건강수명 연장을 건강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WHO, 2020)

-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수명은 OECD 상위권이나 건강수명과의 격차(즉,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가 상대적으로 커서, 평균적으로 생애 마지막 10년 정도를 만성 질환이나 기능 저하를 겪으며 보내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액티브 시니어 정책은 단순히 수명 연장이 아니라 건강수명 연장, 즉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화(Active and Healthy Ageing)'를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① 만성 질환 예방 및 관리(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② 근력·유연성·균형감각 유지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③ 영양 관리, ④ 정신건강 증진(우울·치매 예방), ⑤ 안전사고 예방 등 포괄적 건강증진 전략이 필요

### 2.2.3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증가

- 2차 베이비부머는 1차에 비해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실제 건강관리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경향을 보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진을 통계에 따르면, 50-60대의 일반건강검진 수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암검진(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수진율도 상승 추세를 보임
  - 또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규칙적 운동, 금연·절주 등 건강증진 행동의 실천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정보 탐색 행동(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한 건강정보 검색, 건강관리 앱 활용 등)도 활발해지고 있음
- 이러한 예방적 건강관리 행동의 증가는 ① 의료정보 접근성 향상(인터넷, 스마트폰 보급), ② 건강에 대한 사회적 담론 확산(웰빙, 건강수명, 예방의학 등), ③ 경제 수준 향상으로 인한 건강투자 여력 증가, ④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 향상 등에 기인함
  -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자발적 건강관리 행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① 생활 밀착형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 체육시설 등), ②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 제공(허위·과대 건강정보로부터 보호), ③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저소득·독거 고령자 등), ④ 건강관리 인센티브 제도(건강포인트, 보험료 할인 등) 등을 통해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전체 인구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2.2.4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 접근성

-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등) 유병률이 증가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보유 만성질환 수는 2.9개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진료, 투약, 생활습관 관리 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 접근성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됨
  
- 그러나 논산시와 같은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경우 의료기관(특히 전문의료기관) 접근성이 대도시에 비해 떨어지며, 이는 시니어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2024)의 분석에서도 충남지역의 서비스업이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이며, 교육·의료·문화 등 전문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음
  - 따라서 논산시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병·의원, 보건소, 요양시설 등), ②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대전권역 3차 병원과의 협력, 원격의료 활용 등), ③ 방문의료·방문간호 서비스 확대(거동 불편 고령자 대상), ④ 건강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만성질환 관리, 투약 관리, 건강검진 이력 관리 등)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

## 2.3 사회적 관계 변화

### 2.3.1 직장 중심 관계망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

- 은퇴는 단순한 경제활동의 종료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
  - 현역 시절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가 직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은퇴와 함께 직장 관계가 약화되거나 단절되면 사회적 네트워크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험을 하게 됨
  - 사회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role loss)' 또는 '사회적 탈배태(social disembedding)'

로 개념화하며, 은퇴 후 정체성 혼란, 소속감 상실, 무력감, 고립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음을 지적함(Kim & Moen, 2002)

- 따라서 은퇴 전후 시기에는 직장 중심의 관계망을 지역사회 중심의 관계망으로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① 지역사회 활동 참여(자원봉사, 동호회, 평생학습, 종교활동 등), ② 이웃과의 관계 강화(마을 모임, 경로당, 주민자치회 등), ③ 가족 관계 재정립(배우자·자녀·손주와의 관계 재구성)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정책적으로는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은퇴 준비 교육'에서 재정 계획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재편, 여가 계획, 정체성 재구성 등 심리사회적 측면의 은퇴 준비를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는 시니어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와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 2.3.2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

- 은퇴, 배우자 사망,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령층은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독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우울, 불안, 인지기능 저하, 신체건강 악화, 사망률 증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Holt-Lunstad et al., 201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독거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고 이들의 빈곤율과 건강 취약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 논산시의 경우 고령화율이 높고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고령농업인 등 사회적 고립 취약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① 독거노인·취약노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ICT 기반 안전확인, 방문 돌봄 등), ② 경로당·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의 활성화(단순 휴식 공간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전환), ③ 시니어 커뮤니티 허브 조성(도보권 내 접근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④ 세대통합형 주거 모델 실험(고령자와 청년의 공동거주, 코하우징 등), ⑤ 디지털 기술 활용 사회연결(화상통화, SNS, 온라인 동호회 등)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해야 함

### 2.3.3 새로운 관계망 형성 욕구

- 다른 한편으로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를 새로운 관계 형성의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관계망을 확장하려는 욕구를 보임
  - 김도윤 외(2023)에 따르면, 액티브 시니어는 '동호회나 모임을 통해 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전 연령층과 교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취미·교양 동호회, 자원봉사 모임, 종교단체, 동창회·향우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음
  -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2차 베이비부머는 온라인 커뮤니티, SNS, 메신저 그룹 등을 통한 관계 형성에도 적극적이며, 대면 모임과 온라인 교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임
  -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자발적 관계 형성 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① 다양한 동호회·모임 활동 지원(공간 제공, 프로그램 지원, 소규모 활동비 지원 등), ② 시니어 소셜클럽·동호회 연합 조직 육성, ③ 세대통합형 프로그램 운영(청년·중년·노년이 함께 참여), ④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논산시 시니어 포털, 앱 등), ⑤ 관계 형성 촉진 이벤트(시니어 축제, 동호회 박람회, 네트워킹 행사 등)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예방하며, 시니어가 지역사회에 활력있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2.3.4 가족 관계의 재구성

- 은퇴는 배우자, 자녀, 손주 등 가족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옴
  -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은퇴로 인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증하면서 부부 관계 재적응이 필요하며, 일부의 경우 '은퇴 후 이혼' 또는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함
  - 또한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독립 여부, 손주 돌봄 역할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강했던 '효' 규범이 약화되면서 노부모 부양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 괴리가 커지고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23)

- 2차 베이비부머는 1차에 비해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고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가 낮아, 독립적 노후생활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나(김도운 외, 2023), 실제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에 놓일 수 있음
- 정책적으로는 ① 부부 대상 은퇴 준비 교육(부부 관계, 역할 재분배, 여가 계획 등), ② 세대 간 소통 증진 프로그램, ③ 손주 돌봄 지원(조손 가족 지원, 육아 품앗이 등), ④ 가족 돌봄 부담 완화(재가 돌봄 서비스, 요양시설 확충 등) 등을 통해 가족 관계의 건강한 재구성을 지원하고, 가족 내 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2.4 생활환경 변화

### 2.4.1 시간 사용 패턴의 급격한 변화

- 은퇴는 일상생활의 시간 사용 패턴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옴
  - 현역 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근로에 할애하던 생활에서, 은퇴 후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은퇴자들이 '무료함',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다'는 어려움을 호소함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텔레비전 시청, 낮잠, 소일거리 등 수동적 여가 시간이 증가하는 반면, 능동적·구조화된 여가활동(학습, 문화예술 활동, 자원봉사 등)에 할애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의미 있는 여가활동 기회의 부족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액티브 시니어 정책은 이러한 시간 사용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은퇴 후 시간을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① 평생학습 프로그램(지적 호기심 충족, 자기계발), ② 문화예술 활동(관람+참여형 프로그램), ③ 자원봉사 활동(사회공헌), ④ 취미·동호회 활동(사회적 교류), ⑤ 여행·레저 활동(새로운 경험), ⑥ 계속근로·창업(경제적 보상+역할 유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진입 장벽 완화가 필요함

## 2.4.2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

- 은퇴 후 거주지 선택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자녀 교육, 직장 출퇴근 등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은퇴 후 거주지 이동(귀향, 귀촌, 전원 생활 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이동률은 그리 높지 않으며, 대다수는 기존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고령화에 따라 주거 내 안전(낙상 위험, 화재 위험 등), 주거 편의성(단차 해소, 손잡이 설치, 비상벨 등), 주거 주변 환경(의료기관, 상점, 대중교통, 문화시설 접근성 등)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고령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
  
- 논산시의 경우 상당수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고, 농촌 지역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대중교통, 도로 여건 등)이 떨어지며, 생활 인프라(병원, 상점, 문화시설 등)가 부족한 상황 이므로
  - 시니어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①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고령친화 주택 개조: 단차 제거, 화장실·욕실 안전시설, 난방·단열 개선 등), ② 고령친화 마을 조성(도보 생활권 내 필수 인프라 배치), ③ 대중교통 확충(농어촌 버스, 수요응답형 교통, 콜택시 등), ④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이동 슈퍼마켓, 방문 의료·간호, 도시락 배달 등), ⑤ 스마트 기술 활용(원격의료, 긴급호출 시스템, IoT 기반 안전관리 등)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

## 2.4.3 소비생활과 경제적 적응

- 은퇴 후 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생활을 재조정해야 하는 경제적 적응 과정을 겪게 됨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이 2012년 75.0%에서 2023년 67.1%로 하락하여, 전체 연령 평균(74.7%→70.7%)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났음(이재호 외, 2024)
  - 이는 기대수명 증가, 미래소득 불확실성 등에 따라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 동기가 강화되어,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이재

호 외, 2024)

- 이러한 소비 위축은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으로 내수 기반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됨
  
- 한편 2차 베이비부머는 1차에 비해 자산 여건이 양호하고 소비 성향이 높은 편이므로, 자산 유동화(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와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공적연금 강화, 기초연금 현실화 등)을 통해 소비 여력을 확보할 경우, 건강·미용·문화·여가 등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여 '실버경제(Silver Economy)' 또는 '시니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음(이재호 외, 2024; 김문선, 2022)
  
- 논산시의 경우 딸기·석류 등 건강 특화 농산물, 역사문화 관광자원, 온천 등 웰니스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시니어 친화적 상품·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를 지역경제로 유입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4.4 디지털 환경 적응과 정보격차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모바일 banking, 온라인 쇼핑, 공공서비스 온라인 신청, 키오스크 사용 등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이 디지털화되고 있으나, 고령층 중 일부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50대는 전국민 평균대비 89.6%, 60대는 75.2%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보여(이재호 외, 2024; 김윤화, 2020), 2차 베이비부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개인차가 크고 특히 저학력·저소득·농촌 거주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디지털 소외는 단순히 기술 사용의 문제를 넘어, 금융 서비스 접근 제한, 공공 서비스 이용 어려움, 사회적 소통 단절, 정보 접근 불평등 등으로 이어져 삶의 질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액티브 시니어 정책에서는 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스마트폰 기초, 모바일 banking, 온라인 쇼핑, 키오스크 사용, 정보 검색, SNS 활용 등 생활밀착형 교육), ② 시니어 친화적 디지털 인터페이스 개발(큰 글자, 단순한 메뉴 구조, 음성 안내 등), ③ 대면 서비스 병행 유지(완전 무인화가 아닌 선택권 보장), ④ 디지털 도우미 제도(청

년·대학생이 시니어의 디지털 활용 지원), 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중고 스마트폰 지원 등) 등을 통해 디지털 포용성(Digital Inclusion)을 제고해야 함

### 3. FGI(표적집단면접)를 활용한 시니어층의 욕구와 정책 수요

#### 3.1 FGI 조사 설계 및 실시

##### 3.1.1 조사 대상 및 표본 구성

- 논산시 베이비부머 세대 및 시니어층의 심층적 욕구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성별·경제활동 상태별로 세분화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
  - FGI는 소규모 참여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양적 설문조사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미묘한 태도, 감정, 동기, 맥락 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Krueger & Casey, 2015), 특히 정책 수요 파악,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개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됨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본을 구성함
  - ① 연령별 그룹: 55-64세(예비 시니어, 은퇴 전후), 65-74세(시니어, 은퇴 후 적응기), ② 성별 그룹: 남성, 여성(성별에 따라 은퇴 경험, 경제활동 패턴, 돌봄 역할, 사회관계, 정책 수요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리), ③ 경제활동 상태별 그룹: 재직 중(은퇴 예정), 재취업(임금근로), 창업(자영업), 구직 중, 완전 은퇴(경제활동 중단), ④ 기타 특성별 그룹: 독거 시니어, 농업 종사 시니어, 문화·여가 활동 적극 참여 시니어, 자원봉사 활동 참여 시니어 등
  - 각 그룹당 1명을 모집하여 3회의 FGI를 진행하며, 총 5개 그룹, 10명의 의견을 수렴
  - 참여자 모집은 논산시노인복지관, 경로당,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동호회, 자원봉사센터,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진행하며,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성별·연령·경제수준·거주지(읍/면 지역 포함) 등을 고려한 할당 표본 추출을 시도

### 3.1.2 FGI 질문 구성 및 진행 방식

- FGI 질문은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핵심 질문은 사전에 구조화하되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유연하게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주요 질문 영역은 다음과 같음
  - ① 은퇴 전후 생활 변화 및 어려움: “은퇴 후(또는 은퇴를 앞두고) 생활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무엇입니까?”, “은퇴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은퇴 준비를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했다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 ② 재취업·창업 의향 및 장애요인: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정규직/비정규직, 풀타임/파트타임, 전문직/단순직 등)?”, “재취업이나 창업을 원하시는데 실현하지 못하신 경우, 주된 장애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지원이 있다면 재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까요?”
  - ③ 문화·여가 활동 참여 현황 및 욕구: “여가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참여하고 있는 또는 참여하고 싶은 문화·여가 활동은 무엇입니까?”, “문화·여가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시간, 비용, 정보 부족, 시설 접근성, 프로그램 부족 등)?”, “논산시에 어떤 문화·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 ④ 평생교육·건강관리 프로그램 수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현재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건강관리를 위해 하고 계신 활동이 있습니까?”,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⑤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 의향: “자원봉사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야의 활동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본인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⑥ 현행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현재 논산시(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 중 이용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⑦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와 제안: “시니어가 모여서 다양한 활동(학습, 문화, 건강, 일자리 등)을 할 수 있는 통합 공간이 생긴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러

한 공간에는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운영 주체, 이용료, 프로그램 등)?”

- FGI는 각 회당 약 2시간 진행하며, 경험이 풍부한 질적 연구자가 진행자(moderator) 역할을 수행하여 모든 참여자가 균등하게 발언할 기회를 갖도록 조율하고, 심층적 논의를 유도
  - FGI 과정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며, 녹취록을 작성한 후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핵심 주제와 패턴을 도출(Braun & Clarke, 2006)

## 3.2 FGI 결과 분석: 주요 발견

### 3.2.1 경제활동 관련 욕구 - “의미 있는 일을 더 오래 하고 싶다”

- FGI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원한다고 응답하였음
  - 예를 들어 퇴직 교사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내가 평생 해온 교육 관련 일을 계속하고 싶다. 저소득층 아이들 학습 지도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면 보수가 적어도 보람을 느낄 것 같다”고 하였고, 퇴직 공무원은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거나 청년 창업가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토로되었음
  - “60세가 넘으면 나이 때문에 문전박대당한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 업무만 제안받는다”, “시간제·계약직만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 “자영업을 하려니 준비가 부족하고 실패 위험이 크다” 등의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음
  - 특히 여성 참여자들은 “여성은 더 어렵다. 나이에 성별 차별까지 더해진다”, “육아·돌봄으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은 은퇴 후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호소하였음

□ 정책 수요로는

- ① 연령차별 금지 실효성 확보, ② 전문성 기반 일자리 매칭 시스템, ③ 시간제·탄력근무 등 유연한 근무형태, ④ 창업 전 충분한 교육·컨설팅 제공, ⑤ 실패 시 재기 지원 등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일본처럼 정년 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논산시가 직접 시니어 특화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3.2.2 문화·여가 활동 욕구 - “다양한 배움과 경험의 기회”

□ 문화·여가 활동과 관련해서는

- “시간은 많은데 할 것이 없다”, “경로당은 너무 단조롭고 젊은 노인들에게는 맞지 않는다”, “논산에는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다”는 불만이 많았음
- 특히 2차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은 “우리는 기존 노인들과 다르다. 더 배우고 싶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다”, “외국어, 악기, 그림, IT 등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은데 논산에서는 기회가 제한적이다”라고 응답하였음

□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문화·여가 활동으로는

- ① 평생교육(외국어, 인문학, 역사, 철학, 문학, IT, 스마트폰 활용 등), ② 문화예술 활동(악기 연주, 노래, 춤, 그림, 서예, 사진, 도예 등 창작 활동), ③ 건강·체육 활동(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산, 걷기, 자전거, 게이트볼 등), ④ 여행·탐방(국내외 여행, 역사 문화 탐방, 생태관광 등), ⑤ 동호회 활동(다양한 취미 동호회, 독서토론회, 영화감상 모임 등)이 제시되었음

□ 장애요인으로서는

- ① 프로그램 부족(“원하는 강좌가 없다”, “수준별 프로그램이 없어 초보자나 중급자들이 만한 것이 없다”), ② 시설 접근성(“집에서 너무 멀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농촌 지역은 아예 시설이 없다”), ③ 비용 부담(“문화센터나 사설 학원은 수강료가 비싸다”), ④ 정보 부족(“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른다”, “홍보가 부족하다”), ⑤ 프로그램 시간대(“오전 프로그램만 있어서 일하는 사람은 참여하기 어렵다”) 등이 지적되었음

음

□ 정책 제안으로는

- ① 생활권 내 문화·평생학습 시설 확충, ②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 ③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순회 강좌, 이동 도서관 등), ④ 온라인 강좌 제공, ⑤ 프로그램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⑥ 이용료 지원 또는 무료 프로그램 확대, ⑦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재직 중인 예비 시니어 고려) 등이 제시되었음

### 3.2.3 평생교육·건강관리 욕구 -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 문제를 경험한 참여자일수록 강하게 나타났음

-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치매가 가장 무섭다. 치매만은 안 걸리고 싶다”는 등의 응답이 많았으며, 특히 최근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매 예방에 대한 욕구가 컸음

□ 현재 실천하고 있는 건강관리 활동으로는

- ① 규칙적 운동(걷기, 등산, 헬스, 수영 등), ② 건강검진 수진, ③ 건강기능식품 섭취, ④ 식이조절 등이 언급되었으나, “혼자 하려니 꾸준히 하기 어렵다”, “올바른 방법을 모르겠다”, “운동 시설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토로되었음

□ 희망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는

- ① 시니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전문 트레이너 지도, 소그룹 운동, 근력·유연성·균형감각 훈련), ② 만성질환 관리 교육(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자가 관리), ③ 영양·식생활 교육 및 식사 서비스, ④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지훈련, 두뇌활동 프로그램), ⑤ 정신건강 지원(우울·불안 상담, 스트레스 관리), ⑥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연계, ⑦ 건강 모니터링(웨어러블 기기, 건강 앱 활용) 등이 제시되었음
- 특히 “건강검진은 받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상 소견이 나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만성질환이 있는데 약만 먹지 말고 생활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혼자 운동하면 작심삼일인데, 같이 할 동료와 있고 전문가가 지도해주면 좋겠다”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음

□ 또한 평생교육과 건강관리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요구도 있었는데,

- “머리도 쓰고 몸도 움직이는 프로그램”, “요가하면서 명상도 배우고”, “건강 요리 강좌처럼 배움과 건강을 함께” 등 학습·건강·여가를 통합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3.2.4 사회참여·사회공헌 욕구 -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 많은 참여자들이 은퇴 후

-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하였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였던 참여자들은 “평생 쌓은 경험과 지식을 그냥 묻기 아깝다”,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보람될 것 같다”고 응답하였음

□ 현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 “보람은 있는데 단순 노력봉사만 있어서 아쉽다”, “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가 있으면 좋겠다”, “자원봉사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인정받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여하지 않는 참여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간이 맞지 않는다”, “교통이 불편해서 가기 어렵다” 등의 장애요인을 언급하였음

□ 희망하는 사회공헌 활동 분야로는

- ① 교육 멘토링(학습지도, 진로상담, 독서지도), ② 청년 창업 지원(경영 멘토링, 기술 자문), ③ 취약계층 지원(독거노인 돌봄, 장애인 지원, 아동 돌봄), ④ 환경보전(마을 환경정비, 쓰레기 줍기, 나무 심기), ⑤ 마을만들기(마을 발전 기획, 주민 조직화), ⑥ 문화예술 재능기부(악기 가르치기, 그림 지도, 공연 봉사), ⑦ 안전·방범(학교 앞 교통안전, 마을 순찰) 등 다양한 영역이 제시되었음
- 특히 “단순히 시간 때우기식 봉사가 아니라 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봉사도 전문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제대로 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봉사 시간이나 활동을 인증해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전문성 기반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음

### 3.2.5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 “시혜적이고 수동적인 정책”

□ 현행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음

-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돈이 너무 적다. 한 달에 30-40만원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 “일의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보람이 없다”, “경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일자리라기보다는 용돈벌이 수준”이라는 불만이 다수 제기되었음
- 또한 “정책이 우리를 '도움이 필요한 약자'로만 본다”,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가 불편하다”, “우리는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냥 경로당에나 가라는 식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으며,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노인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를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었음

□ 구체적인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 ① 일자리 질 향상(적정 수준의 임금, 의미 있는 일, 전문성 활용 기회), ②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획일적이지 않고 개인의 관심·역량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③ 정책 결정 과정에 시니어 참여(정책 수립 시 당사자 의견 수렴, 자문위원회 구성), ④ 시혜적 태도 지양(존중과 파트너십 기반의 정책), ⑤ 통합적 서비스 제공(일자리, 건강, 문화, 여가, 복지가 따로 놓지 않고 한 곳에서 통합 지원) 등이 제시되었음

### 3.2.6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 - “모든 것이 한 곳에”

□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구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음

- “그런 곳이 생긴다면 매일 가고 싶다”, “집 근처에 그런 곳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등 높은 기대를 보였음

□ 희망하는 시설로는

- ① 평생학습 공간(강의실, 도서관, 컴퓨터실), ② 건강관리 시설(운동실, 헬스장, 요가실, 건강상담실), ③ 문화예술 공간(공연장, 전시실, 악기 연습실, 미술실), ④ 사교·휴게 공간(카페, 라운지, 테라스), ⑤ 일자리 지원 시설(창업지원센터, 재취업 상담실, 코워킹스페이스), ⑥ 편의시설(식당, 매점, 주차장) 등이 제시되었음

□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 “아침에는 운동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강좌 듣고, 저녁에는 동호회 활동” 같은 종일 프로그램, “월요일은 영어, 화요일은 요가, 수요일은 그림” 같은 요일별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악기 연주반도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뉘서” 같은 수준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다. 공공시설이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무료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낫다”, “우리도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 그냥 이용자가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거”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 적정 수준의 이용료, 시니어의 운영 참여 보장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도출되었음

□ 입지에 대해서는

-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좋다”, “버스 정류장 근처”, “주차하기 편한 곳”, “읍·면에도 분소나 작은 거점이 있으면 좋겠다” 등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한 곳에 큰 것보다 여러 곳에 작은 거점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도 있었음

## 4. 전국 유사 지자체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논산시 특화 필요성 도출

### 4.1 유사 지자체 선정 기준 및 사례 개요

#### 4.1.1 유사성 평가 지표

- 논산시와 비교할 유사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지표를 활용하여 유사성을 평가
  - ① 인구 규모: 10-15만명 내외의 중소도시, ② 지방소멸위험지수: 0.30.6 범위로 소멸 위험 또는 소멸 주의 단계, ③ 고령화율: 20% 이상, ④ 산업구조: 제조업 또는 농업 중심, ⑤ 지리적 위치: 대도시 인근 또는 농촌형 도시, ⑥ 행정구역: 시 단위 지자체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전북 익산시, 경남 밀양시, 경북 상주시 등을 유사 지자체로 선정
  - 각 지자체의 액티브 시니어 또는 고령친화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

#### 4.1.2 비교 분석 프레임워크

- 각 사례에 대해 다음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 ① 정책 배경 및 목적: 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목표는 무엇인가?
  - ② 주요 프로그램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가?(일자리, 평생교육, 문화여가, 건강, 커뮤니티 등)
  - ③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누가 주도하는가? 민·관·산·학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④ 예산 및 자원: 규모는 얼마인가? 자원은 어디서 조달하는가?
  - ⑤ 성과: 양적·질적 성과는 무엇인가?(참여자 수, 만족도, 고용 창출, 지역경제 기여 등)
  - ⑥ 한계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 ⑦ 논산시 적용 시 고려사항: 논산시에 도입한다면 어떻게 수정·보완해야 하는가?

## 4.2 주요 사례 분석

### 4.2.1 충남 공주시: 평생학습도시 기반 시니어 교육 활성화

#### □ 정책 배경 및 목적

- 공주시는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시니어 대상 평생교육을 특화·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공주시, 2023)
- 특히 공주시는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배움이 즐거운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여 시니어 유입을 도모하고 있음

#### □ 주요 프로그램

- ① 공주시평생학습관 운영: 연간 200여개 강좌, 5,000여명 수강,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 비중 40%
- ② 대학 연계 시니어 아카데미: 공주대·공주교대 교수진이 인문학, 역사, 예술, 과학 등 고급 강좌 제공
- ③ 행복학습센터: 읍·면·동 단위 소규모 학습 거점 15개소 운영, 생활권 밀착형 프로그램
- ④ 동네배움터: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 ⑤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코로나19 이후 구축, 시간·장소 제약 없이 학습 가능

#### □ 추진 체계

- 공주시청 교육청소년과가 총괄하며, 공주시평생학습관(위탁운영)이 실무를 담당하고, 지역 대학, 문화재단,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주시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음

#### □ 성과 및 한계

- 성과로는 ①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성인 인구 대비 20% 이상), ② 시니어 만족도 높음

(만족도 조사 4.5/5점), ③ 대학과의 협력으로 강좌 수준 향상, ④ 소규모 거점 확대로 접근성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 한계로는 ① 예산 제약(연간 약 20억원, 수요 대비 부족), ② 강사 수급 어려움(전문 강사 부족), ③ 프로그램 편중(교양 중심, 직업훈련 부족), ④ 농촌 지역 참여율 저조(교통 문제) 등이 지적됨

#### □ 논산시 적용 시 고려사항

- 논산시도 건양대학교가 소재하므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고품질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
- 특히 건양대의 의료·보건 특성화를 활용하여 건강관리·예방의학 교육을 특화할 수 있으며, 공주시 사례를 참고하여 읍·면 단위 학습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논산시의 군부대 특성을 살려 전역 예정 장병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계, 역사문화자원(백제문화권, 강경읍 근대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향토사·문화유산 교육 특화 등 차별화 전략이 필요

### 4.2.2 전북 익산시: 시니어 창업 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

#### □ 정책 배경 및 목적

- 익산시는 제조업(자동차부품, 기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주력 산업의 쇠퇴와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익산시, 2023)
- 특히 은퇴 시니어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니어 창업·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생계형 자영업이 아닌 사회적 가치 실현형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 □ 주요 프로그램

- ① 시니어 창업 아카데미: 연 2회 운영, 회당 30명, 3개월 과정, 창업 이론+실습+멘토링
- ② 시니어 협동조합 설립 지원: 설립 컨설팅, 초기 운영비 지원(최대 2천만원), 판로 개척 지원
- ③ 시니어 취업·창업 박람회: 연 1회 개최, 일자리 정보, 창업 아이템, 성공 사례 공유

- ④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퇴직 기술인력(엔지니어 등)의 기술 기반 창업 지원
- ⑤ 마을기업 육성: 시니어가 주도하는 마을기업(농산물 가공, 카페, 공방 등) 발굴·지원

#### □ 추진 체계

- 익산시청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과가 주관하며, 익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가 실무를 담당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원광대학교, 지역 사회적기업 등이 협력

#### □ 성과 및 한계

- 성과로는 ① 2018-2023년 시니어 주도 협동조합 15개 설립, 고용 창출 약 200명, ② 창업 아카데미 수료생 중 실제 창업률 약 30%, ③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들 수 있음
- 한계로는 ① 창업 후 경영 애로(관료, 자금, 전문성 부족), ②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미흡, ③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 ④ 수익성 문제로 생계 보장 어려움 등이 지적됨

#### □ 논산시 적용 시 고려사항

- 논산시도 딸기·고구마 등 특화 농산물이 있으므로, 시니어 주도 농산물 가공 협동조합(딸기잼·주스, 고구마과자 등), 로컬푸드 매장·카페 운영,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의 마을기업 육성이 가능
- 특히 강경읍의 근대문화유산과 젓갈 전통을 활용한 문화관광형 시니어 창업(전통음식 체험, 역사해설사, 문화상품 개발 등), 육군훈련소 전역장병 대상 사업(군복·군장 재활용, 전역기념품 등)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창업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며, 익산시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인 창업교육-컨설팅-자금지원-관료개혁의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4.2.3 경남 밀양시: 고행친화 마을 조성 및 커뮤니티 케어

#### □ 정책 배경 및 목적

- 밀양시는 고령화율이 30%를 초과하는 초고령 농촌 지역으로, 전통적 노인복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WHO의 'Age-Friendly City(고령친화도시)' 개념을 도입하여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밀양시, 2022)
- 특히 '마을'을 단위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모델을 실험하여, 시니어가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Aging in Place)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 주요 프로그램

- ① 고령친화마을 시범사업: 3개 마을 선정, 물리적 환경 개선(도로·보도 정비, 공공시설 편의성 향상, 주택 개조 지원) + 사회서비스 확충(방문의료, 돌봄, 식사 배달, 이동지원)
- ② 마을 건강센터: 읍·면 단위 건강센터 설치, 만성질환 관리, 운동 프로그램, 건강상담
- ③ 시니어 커뮤니티 공간: 경로당 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단순 휴식 공간 → 활동 공간 전환)
- ④ 돌봄-의료-복지 통합 플랫폼: ICT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 독거노인 안전확인, 응급호출
- ⑤ 세대통합 프로그램: 고령자-아동 세대 간 교류(조손 프로그램, 문화체험)

#### □ 추진 체계

- 밀양시청 노인복지과·보건소가 주관하며, 밀양시사회복지협의회, 지역 의료기관, 대학(밀양대), 사회적기업, 마을 주민조직 등이 협력하고, 주민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마을에 '고령친화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

#### □ 성과 및 한계

- 성과로는 ① 시범마을 주민 만족도 높음(80% 이상), ② 낙상사고 감소, 건강지표 개선, ③ 마을 공동체 활성화, ④ 타 지역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 등을 들 수 있음
- 한계로는 ① 예산 제약으로 전체 마을 확대 어려움(시범사업 3개 마을에 한정), ② 서비스 제공 인력 부족(의료·돌봄 전문인력), ③ ICT 플랫폼 활용도 낮음(고령자의 디지털 격차), ④지속가능성 불확실(정부 지원 종료 후 자립 가능성) 등이 지적됨

#### □ 논산시 적용 시 고려사항

- 논산시도 11개 면 지역이 있어 농촌형 고령친화마을 모델 적용이 가능
- 밀양시 사례를 참고하되, 논산시는 대전광역시와 인접하고 호남선 철도·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 요충지이므로, 대전권 의료기관과의 원격의료·협진 체계 구축, 대전으로의 이동 지원(셔틀버스, 콜택시)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음
- 또한 논산시의 경우 연무읍(육군훈련소), 노성읍(시가지), 강경읍(역사문화) 등 읍 지역과 면 지역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획일적 모델이 아니라 읍·면별 맞춤형 고령친화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강경읍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친화 역사문화도시' 모델을 실험할 수 있음

### 4.3 비교 분석 종합 및 논산시 특화 방향

#### 4.3.1 유사 지자체 공통 성공 요인

##### □ 유사 지자체 사례들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① 명확한 비전과 전략: 단순히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도시'(공주), '사회적경제 육성'(익산), '고령친화도시'(밀양) 등 명확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
- ② 지역 자원 활용: 지역의 대학, 산업, 문화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 ③ 민·관·산·학 협력: 행정 단독이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창출
- ④ 주민 참여 보장: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주민(시니어)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 적합성과 주인의식 제고
- ⑤ 단계적·점진적 접근: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 후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
- ⑥ 지속가능성 고려: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4.3.2 논산시 특화 필요성 도출

- 유사 지자체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논산시가 특화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 ① 군 특화 시니어 정책: 논산시는 육군훈련소가 소재한 '국방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연간 약 40만명의 장병이 훈련을 받고 전역하는 특성을 활용하여,
    - ㉠ 전역 예정 장병 대상 진로·취업 멘토링(퇴직 군인·기업인 시니어가 멘토), ㉡ 군 복무 경력자(전역장병·예비역) 네트워크 구축 및 창업 협력, ㉢ 군납 식자재·군복·군장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시니어 참여, ㉣ 국방·안보 테마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시니어 해설사 양성 등 '군-민-시니어 연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
  - ② 역사문화 특화 시니어 활동: 논산시는 백제문화권에 속하며, 강경읍은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하나로 근대문화유산이 풍부함.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 ㉠ 시니어 문화해설사·스토리텔러 양성, ㉡ 역사문화 콘텐츠 제작(구술사 채록, 향토사 집필, 다큐멘터리 제작) 시니어 참여, ㉢ 전통문화 계승 프로그램(전통음식·공예·의례 전수), ㉣ 역사문화 기반 관광상품 개발(문화관광해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시니어의 경험과 기억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③ 농업-건강-관광 융복합 시니어 산업: 논산시는 딸기·석류·새송이버섯 등 특화 농산물 생산지이자, 온천(노성 노천 온천)·자연환경(탑정호 등) 등 웰니스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를 융복합하여,
    - ㉠ 건강 특화 농산물(석류-갱년기 건강, 딸기-항산화) 기반 시니어 건강식품·기능성식품 개발, ㉡ 농촌체험-웰니스관광-평생학습을 결합한 '시니어 체류형 프로그램'(1주일-1개월 논산 생활), ㉢ 도시 은퇴자의 귀농·귀촌 지원 및 농업 멘토링(기존 농업인이 신규 귀농인 지도), ㉣ 로컬푸드·농가레스토랑·농촌민박 등 6차산업에 시니어 참여 등 차별화된 시니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음
  - ④ 대전권 연계 생활-의료 인프라 보완: 논산시는 대전광역시와 30km 내외로 인접하고 KTX·고속도로로 30분 내 접근 가능하므로, 대전권의 우수한 의료·문화·교육 인프라를 공유하는 전략이 유효
    - ㉠ 대전권 3차 의료기관과의 협진·원격의료 체계 구축, ㉡ 대전 문화·공연 시설 이용 셔틀버스 운영, ㉢ 대전 소재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논산 분원 운영, ㉣ 대전에서 은퇴한 전문인력의 논산 유입 촉진(주거비 저렴, 전원생활, 문화활동 제공) 등 '대전

30분 생활권' 전략으로 논산시의 인프라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대전보다 저렴한 주거비·조용한 생활환경·풍부한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을 부각시켜 시니어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음

- ⑤ 건양대학교 연계 건강·의료 특화: 논산시에 소재한 건양대학교는 의과대학·간호대학·보건복지대학을 갖춘 의료 특성화 대학임. 이를 활용하여,
  - ㉓ 건양대병원-논산시보건소 연계 시니어 건강관리 통합 시스템, ㉔ 건양대 교수진의 건강·의료 평생교육 프로그램, ㉕ 간호·보건 전공 학생의 시니어 건강 모니터링 실습(산학협력), ㉖ 건양대 연구진의 시니어 건강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 개발, ㉗ 건양대 캠퍼스를 활용한 시니어 체험 프로그램(건강검진, 운동처방, 영양상담 등 패키지) 등 '건강도시 논산'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음

#### 4.3.3 논산시만의 차별화 전략: “역사·국방·건강이 어우러진 액티브 시니어 도시”

□ 이상의 특화 방향을 종합하면,

- 논산시는 “역사문화유산을 향유하고, 국방-민간 협력에 참여하며,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도시”라는 차별화된 비전을 설정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 역사문화 시니어 활동가: 백제문화·강경 근대문화 해설, 구술사 채록, 전통문화 전승
- 국방-민간 시니어 멘토: 전역장병 진로상담, 예비역 네트워크, 안보교육 강사
- 건강농업 시니어 기업가: 건강 특화 농산물 가공·유통,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운영
- 대전 연계 생활 시니어: 대전의 문화·의료 인프라 공유, 논산의 저렴한 주거·자연환경 향유
- 건강관리 모범 시니어: 건양대 연계 체계적 건강관리, 건강수명 연장 모델 제시

□ 이러한 다층적 정체성을 가진 액티브 시니어들이 모일 수 있는 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각자의 관심과 역량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논산시를 단순히 '노인이 많은 쇠퇴하는 도시'가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가 활기차게 생활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재포지셔닝할 수 있음

## 4.4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벤치마킹(안)

### 4.4.1 시니어도서관 중심 벤치마킹 장소 및 계획

- 시니어를 위한 특화된 자료, 프로그램, 공간 운영 노하우를 배우는 데 중점을 둠

<표 13> 시니어 도서관 중심 벤치마킹(안)

장소(추천 근거)	주요 벤치마킹 내용	비고
가원시니어도서관 (서울/경기 등 유사 민간 운영 사례)	민간주도 특화 도서관 운영 모델 - 어르신 주도 필사 모임, 평생학습 프로그램(외래어, 디지털 기기 등) 우수 사례 - 독서교육을 통한 시니어 자서전 만들기 등 성과 프로그램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 파악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공공 도서관의 특화 서비스)	치매예방, 디지털리터러시 강화 -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 지정 및 치매안심센터와의 MOU 연계 프로그램 - 고령자 맞춤형 디지털 기기 활용, 미디어 창작 교육 운영 노하우	건강 및 정보 격차 해소 프로그램 중점 파악
군포시 산본도서관 '여유당' (공공 도서관 내 실버 특화 공간)	시니어 맞춤형자료 및 공간 구성 - 큰 글자 도서, 치매 관련 도서 북큐레이션, 저시력자용 독서확대기 비치 등 - 시니어 전용 PC존, 한 줄 문장 쓰기 등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코너 운영	공간 설계 및 자료 구성의 디테일 파악

#### □ 세부 벤치마킹 목표

- 시니어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노하우 습득
- 치매 예방,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 고령층 특화 서비스 운영 방안
- 시니어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자료(큰 글자 등) 및 공간(조명, 독서보조기구) 구성 벤치마킹

#### 4.4.2 시니어 커뮤니티 및 통합 돌봄 중심 벤치마킹 장소 및 계획

- 도서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둠

<표 14> 시니어 커뮤니티 중심 벤치마킹(안)

장소 (추천 근거)	주요 벤치마킹 내용	비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우수 지자체 (예: 김해시, 서울 일부 구 등)	통합 돌봄 및 커뮤니티 활성화 연계 -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주택개조 사업 등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사례 - 재가 의료급여 신설 및 종합재가센터 를 통한 서비스 통합 제공 모델 - 경로당/노인교실 연계 건강 프로그램 및 주민자치 조직 활용 사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돌봄 인프라 구축 방안
노인 일자리 연계 우수 운영 복지관 또는 지자체 (예: 부산 금정구 등 '시니어 북 딜리버리' 사례)	시니어의 사회 참여 및 일자리 연계 - 도서관 책 배달 서비스 등 시니어 일자 리 창출을 통한 커뮤니티 기여 사례 - 은퇴 시니어의 재능 기부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모델	노인 일자리와 시설 운 영의 시너지 효과 파악

#### □ 세부 벤치마킹 목표

- 도서관, 복지관, 지자체 간의 연계를 통한 시니어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방안
- 시니어가 단순 이용자를 넘어 활동가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발굴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공적인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운영 및 관리 체계

#### 4.4.3 액티브 시니어 시설 및 프로그램 벤치마킹 계획

#### □ 액티브 시니어 시설의 벤치마킹은

-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및 그 협력 기관인 '50+ 캠퍼스/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 기관들은 중장년층의 생애 재설계, 직업 역량 강화, 사회 참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모델을 운영하고 있음

<표 15> 액티브 시니어 거점시설 벤치마킹(안)

구분	선정 시설
벤치마킹 목적	중장년(만 40~64세)의 생애 재설계, 일자리, 커뮤니티 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 시설 운영 모델 파악
시설명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센터 (예: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 캠퍼스 등)
주요 운영 현황	서울시의 중장년 집중 지원 프로젝트 '서울런4050'의 핵심 수행 기관으로, 50+세대에게 특화된 생애 설계 상담, 직업 교육, 일자리 및 창업·창직을 체계적으로 지원 대형 캠퍼스(광역 단위)와 지역밀착형 센터를 연계하여 운영.
핵심 벤치마킹 내용	1. 생애 설계 상담 시스템: 개인별 경험, 역량,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생애·경력 설계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 2. 일자리/창업 지원:기업 연계 일자리 발굴, 취업 컨설팅, 재취업을 위한 직업 역량 강화 교육 (예: 디지털 기술, 전문 분야) 커리큘럼 3. 커뮤니티 및 사회공헌:50+ 커뮤니티 지원단을 통한 자발적 학습동아리 및 사회공헌 활동 발굴 및 확산 모델 (예: 학습지원단, 컨설턴트 등 당사자 일자리 창출)
논산시 적용 목표	4060 세대의 은퇴 후 이모작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맞춤형 액티브 시니어 일자리를 발굴하는 거점 센터 모델 수립

<표 16> 액티브 시니어 특화 프로그램 벤치마킹(안)

프로그램 유형	우수 사례 (참고 지역)	프로그램 상세 내용	논산시 적용 시사점
디지털 및 미디어 교육	'액티브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를 위한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 교육 우수 사례)	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 등 단순 기기 활용을 넘어, 인생 최고의 사진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 운영. 완성된 콘텐츠를 통한 자존감 향상 및 가족과의 소통 유도	단순히 기기 사용법을 넘어,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창의적인 미디어 프로그램 도입.
평생 학습 및 인문학	음성군 '설성극단' 실버연극 (평생학습도시 우수 사례)	60~80대 시니어가 연극 배우에 도전하여 일상 어려움(스마트폰, 키오스크)을 소재로 공연. 실패와 재도전의 가치를 조명하며 지역사회 방송 출연 등 활발한 활동	시니어의 잠재된 재능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사회 공연 및 봉사로 연계하여 성취감과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커리어 전환/재설계	서울시 50+ 보람일자리 (50+학습지원단 등)	50+세대가 교육을 이수하여 동년배 대상의 학습 설계, 교육과정 안내, 상담 등을 수행하는 '당사자 일자리' 모델. 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 공헌형 일자리 창출	은퇴 시니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투입하는 선순환적인 일자리 모델 구축.
문화/예술 활동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빛고을 50+' 동아리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이모작 카운슬러 교육 이수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협동조합 설립, 스마트 활용 기술 교육, 문화예술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	자발적인 학습 동아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활동 공간 및 자원 연계.

#### 4.4.4 벤치마킹 제안 추진 계획

- 장소 선정 기준은 '치매 예방', '디지털 문해력', '통합 돌봄 연계', '시니어 일자리 연계' 등 논산시에 필요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선정
- 방문 시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 수도권 및 근접 지역의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시설의 운영 예산, 인력 구성(전문성), 프로그램 만족도, 지역 연계 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

<표 17> 벤치마킹 추진계획

구분	내용
1단계 사전 준비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치마킹 대상 시설 및 프로그램 담당자와 사전 연락 및 일정 조율</li> <li>- 의원별 관심 분야 및 사전 질문지 취합 및 정리</li> <li>- 벤치마킹 보고서 양식 및 평가 기준 마련</li> </ul>
2단계 현장 방문 (총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차: 시니어도서관 중심(A, B, C 중 2곳) 방문 및 심층 면담</li> <li>- 2일차: 커뮤니티/통합 돌봄 중심(D, E 중 2곳) 방문 및 관련 시설 연계 현황 파악</li> </ul>
3단계 사후 활용 (1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치마킹 결과 공유 및 논산시 적용 방안에 대한 의원 간 토론회 개최</li> <li>-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논산시 시니어도서관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기본 계획(안) 작성</li> </ul>

#### 4.4.5 추가 프로그램 연계 벤치마킹 제안 (노인 일자리 연계)

- 부산 금정구 '시니어 북 딜리버리'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지역 도서관의 책을 거동 불편 독서 취약계층에게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
- 논산시에서 시니어 시설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시니어의 사회 참여를 동시에 높이는 모델 습득

## IV.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정책 방향

### 1. 비전 및 목표

#### 1.1 정책 비전

□ “역사·국방·건강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액티브 시니어 도시 논산”

- 이 비전은 논산시의 독특한 지역 정체성(백제문화권, 강경 근대문화, 육군훈련소, 건양대 의료 특화, 건강 농산물)과 액티브 시니어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차별화되고 주목받을 수 있는 시니어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담고 있음

#### 1.2 정책 목표

□ 목표 1: 액티브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세부목표 1-1: 2030년까지 60-74세 고용률을 현재 대비 5%p 상승(재고용·재취업 확대)
- 세부목표 1-2: 시니어 창업 성공률 향상 (3년 생존율 50% → 70%)
- 세부목표 1-3: 시니어 자원봉사 참여율 30% 달성

□ 목표 2: 문화·여가·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 세부목표 2-1: 시니어 평생학습 참여율 2030년까지 30% 달성
- 세부목표 2-2: 문화·여가 프로그램 만족도 80% 이상 유지
- 세부목표 2-3: 읍·면 단위 평생학습 거점 100% 구축(13개 읍·면)

□ 목표 3: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

- 세부목표 3-1: 시니어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음 ' 비율 50% 달성

- 세부목표 3-2: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현재 대비 10%p 상승)
- 세부목표 3-3: 독거·취약 시니어 100% 건강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목표 4: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조성

- 세부목표 4-1: 2027년까지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통합 커뮤니티 센터 개관
- 세부목표 4-2: 읍·면 단위 소규모 시니어 커뮤니티 거점 13개소 조성
- 세부목표 4-3: 커뮤니티 시설 이용자 수 연 10만명 달성

□ 목표 5: 지방소멸 위기 극복 기여

- 세부목표 5-1: 2030년까지 지방소멸위험지수 0.5 이상 유지
- 세부목표 5-2: 50-60대 인구 순유입 전환(현 순유출 → 순유입)
- 세부목표 5-3: 액티브 시니어 유입형 주거·문화 인프라 조성

### 1.3 추진 전략

□ 전략 1: 시니어 인적자본 활용 극대화

- 베이비부머 세대가 생애 동안 축적한 경험·지식·네트워크를 지역사회 발전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 단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발전의 능동적 주체로 재인식하고, 전문성 기반 일자리·자원봉사·멘토링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

□ 전략 2: 지역 특성 기반 차별화

- 논산시의 역사문화자원(백제·강경), 국방자원(육군훈련소), 건강자원(건양대·특화농산물)을 시니어 정책과 융합하여 전국적으로 차별화된 '논산형 액티브 시니어 모델'을 구축

□ 전략 3: 통합적·연속적 서비스 제공

- 일자리·건강·문화·여가·복지 등이 분절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원스톱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은퇴 전 준비 단계부터 은퇴 후 적응·활동 단계 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속적 지원을 제공

□ 전략 4: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

- 행정 단독이 아니라 민간(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학계(건양대 등), 유관기관(복지관, 평생학습관, 보건소 등)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니어 당사자가 정책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지향

□ 전략 5: 단계적·지속가능한 추진

- 단기간에 모든 것을 실현하려 하기보다,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과 학습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을 취하며,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과 민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

## 2. 중점 정책과제

### 2.1 정책과제 1: 액티브 시니어 경제활동 활성화

#### 2.1.1 주된 일자리 계속근로 지원

□ 과제 배경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오삼일 외, 202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정년연장보다 고령층 계속근로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며, 일본의 성공 사례(2006-2025년 단계적 도입)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논산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재고용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세부 사업

- ① 논산시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60세 정년 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기업에 대해 분기당

근로자 1인당 100만원 지원(최대 5년), 중앙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분기당 90만원)과 중복 지원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인센티브 강화

- ② 시니어 친화 기업 인증제: 정년 후 재고용, 연령차별 금지, 유연근무제, 직무 재설계 등을 실천하는 기업을 '논산시 시니어 친화 기업'으로 인증하고, 세제 혜택·공공조달 가점·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③ 기업-시니어 매칭 플랫폼: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내 '시니어 일자리 전담 창구' 설치, 재취업 희망 시니어의 경력·전문성 DB 구축, 기업의 인력 수요와 매칭
- ④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중소기업이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지원(노무사, 인사 컨설턴트 파견)

#### □ 기대 효과

-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근로가 확대되면, 소득 안정화, 인적자본 활용, 고용 미스매치 완화, 지역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 등 다중적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논산시 소재 중소기업(자동차부품, 기계 등)에서 숙련 기능인력의 계속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2.1.2 시니어 창업 생태계 조성

#### □ 과제 배경

- 한국은행 분석(이재호·정동재·안병탁, 2025)에 따르면, 고령 자영업자는 준비 부족, 취약업종 집중, 낮은 생산성 등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차별화된 업종 선택, 지속적 사후 지원이 필수적임

#### □ 세부 사업

- ① 논산시 시니어 창업 아카데미: 연 2회 운영, 회당 30명, 6개월 과정(이론 3개월 + 실습 3개월), 커리큘럼: 창업 기초(사업계획서 작성, 시장조사, 재무관리), 업종별 전문과정(외식, 소매, 서비스, 농업 가공, 온라인 쇼핑몰 등), 멘토링(선배 창업자, 전문가)
- ② 시니어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논산시 소재 유휴 공간(구 관공서, 폐교 등) 활용,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 초기 사무·작업 공간 제공, 공유 사무기기·회의실, 1:1 컨설팅, 네트워킹 프로그램

- ③ 시니어 특화 창업 아이템 발굴: 논산 특화 분야(역사문화 해설·체험, 건강농산물 가공, 웰니스 관광, 군납·군인 대상 서비스 등) 중심으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④ 시니어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 개인 창업의 위험을 분산하고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시니어 주도 협동조합(농산물 가공, 로컬푸드, 카페, 공방 등) 및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초기 운영비·컨설팅 지원
- ⑤ 판로 개척 지원: 논산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로컬푸드 직매장·온라인 쇼핑몰 입점, 대전권 유통망 연계, 농협·중소기업유통센터 협력

#### □ 기대 효과

- 체계적 창업 교육과 인큐베이팅을 통해 창업 성공률이 향상되고, 지역 특화 분야 창업으로 차별성 확보, 협동조합·사회적기업 형태로 지속가능성 제고, 시니어 간 협력과 세대 간 교류(청년과 협업)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됨

### 2.1.3 전문성 기반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 □ 과제 배경

- FGI 결과 시니어들은 단순 노력봉사가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희망하며, 이는 보람과 자아실현을 제공하면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윈-윈 모델임

#### □ 세부 사업

- ① 시니어 교육 멘토단: 퇴직 교사·교수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학습지도, 독서지도, 진로상담 제공, 활동비 지원(시간당 2-3만원)
- ② 시니어 기술자문단: 퇴직 엔지니어·기술자를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에 기술 컨설팅 제공, 청년 창업가 멘토링
- ③ 시니어 문화해설사: 백제문화유산·강경 근대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및 활동 지원,

관광객 대상 해설 프로그램 운영, 학교 현장학습 인솔

- ④ 시니어 건강지킴이: 퇴직 의사·간호사·약사·영양사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대상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교육, 영양·식생활 지도
- ⑤ 시니어 마을활동가: 마을만들기·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 주민조직가 양성, 마을 발전 기획·실행 지원

#### □ 기대 효과

- 시니어의 전문성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되어 사회적 가치 창출, 시니어 당사자는 보람과 적정 수준의 경제적 보상 획득, 세대 간 교류(시니어 → 아동·청년)와 지식 전수 촉진, 지역 인적자원의 선순환 구조 형성 등의 효과가 기대됨

## 2.2 정책과제 2: 문화·여가·평생학습 활성화

### 2.2.1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 과제 배경

- FGI 결과 시니어들은 다양한 학습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프로그램 부족, 시설 접근성 문제, 정보 부족 등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논산시는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분산된 주민들이 모두 접근 가능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형이 아닌 생활권 중심의 네트워크형 접근이 필요함
- 공주시의 '행복학습센터' 모델과 서울시 은평구의 '동네배움터' 사례를 참고하되, 논산시 특성에 맞게 재설계

#### □ 세부 사업

- ① 논산시 평생학습관 확대 개편: 현재 논산시평생학습관을 '액티브 시니어 평생학습 특화관'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 비중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
  - 구체적으로 ① 인문교양(한국사, 세계사, 철학, 문학, 예술사 등 수준별 강좌), ②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기초-중급-고급 과정), ③ 디지털

리터러시(스마트폰 기초, 모바일 뱅킹, 온라인 쇼핑, SNS 활용, 유튜브 제작, 코딩 입문 등), ㉔ 예술 실기(악기 연주, 성악, 미술, 서예, 사진, 도예 등), ㉕ 건강·웰빙(요가, 필라테스, 명상, 아로마테라피, 건강요리 등), ㉖ 취미·여가(원예, 바둑, 장기, 등산, 자전거, 여행 기획 등) 등 총 200개 이상의 강좌를 연간 운영

-특히 건양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양대 교수진이 직접 강의하는 '건양대-논산시 시니어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의학·간호·보건 분야의 전문 강좌(예방의학, 건강관리, 영양학, 노인간호 등)를 무료 또는 저렴한 수강료로 제공

-또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대면 수업 참여가 어려운 시니어도 시간·장소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시간 화상강의와 VOD 콘텐츠를 병행 제공

- ② 읍·면 단위 평생학습 거점 조성: 13개 읍·면마다 '○○읍(면) 시니어 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생활권 15분 내 접근 가능한 학습 인프라를 구축

-기존 읍·면사무소 유휴 공간, 폐교,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며, 각 센터는 최소 2개 이상의 강의실, 도서·정보코너, 휴게공간을 갖춘

-프로그램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구성하되, 예를 들어 ㉑ 연무읍(육군훈련소 소재): 국방·안보 교육, 예비역 리더십 과정, 전역장병 멘토 양성 과정, ㉒ 강경읍(역사문화): 향토사, 문화해설사 양성, 전통음식·공예 과정, ㉓ 농업 중심 면(상월면, 부적면 등): 스마트팜, 6차산업, 농산물 마케팅, 귀농귀촌 과정 등으로 특화

-강사는 해당 지역 거주 전문가, 퇴직 교사, 대학 강사 파견, 온라인 강의 송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하며, 순회 강좌 방식(강사가 여러 거점을 돌며 강의)도 도입

- ③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을 위해 '학습 이동버스'를 운영

-소형 버스를 개조하여 이동식 도서관·강의실로 활용하며, 주 3회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소규모 그룹 강좌(1015명)를 제공

-프로그램은 주로 단기 완결형(14회 과정)으로 구성하며, 예를 들어 '스마트폰 기초반(4회)', '건강체조(1회)', '치매 예방 두뇌게임(2회)', '시 낭송(1회)' 등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또한 독서토론회, 영화 상영회 등 문화 프로그램도 순회 제공하며, 대형 스크린과 음향 장비를 갖춘 이동식 상영관을 별도 운영하여 농촌 지역에서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 ④ 시니어 학습동아리 지원: 자발적으로 학습모임을 조직한 시니어 그룹에 대해 활동 공간 제공, 학습자료 지원, 전문가 초청 강연 지원, 활동비 지원(연 최대 200만원) 등을 제공

-학습 주제는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예를 들어 '논산향토사 연구회', '시니어 영어회화 클럽', '독서토론 모임', '시 창작 동아리', '사진 동호회', '역사탐방 동아리'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우수 동아리는 '논산시 평생학습 박람회'에서 사례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시상 및 홍보를 통해 동기를 부여

- ⑤ 세대통합 학습 프로그램: 시니어와 청소년·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예를 들어 ① '시니어-청소년 IT 상호학습': 시니어는 청소년에게 인생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고, 청소년은 시니어에게 스마트폰·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는 상호 멘토링, ②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역사탐방': 시니어와 초등학생이 함께 논산의 역사유적지를 방문하여 시니어가 해설하고 아이들과 소감을 나누는 프로그램, ③ '3세대 요리교실': 조부모·부모·손주가 함께 참여하여 전통음식을 만들며 가족 유대 강화 등이 있음

-이러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세대 간 이해와 연대를 촉진하고, 시니어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며, 청소년·청년에게는 시니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음

#### □ 해외 사례: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지역 케어 플라자'

- 일본 요코하마시는 중학교 구역(약 2만명) 단위로 '지역 케어 플라자(地域ケアプラザ)'를 설치하여 평생학습, 건강증진, 복지상담, 교류·네트워킹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있음 (요코하마시, 2023)

-각 플라자는 ① 강의실·다목적실(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② 운동실·건강체크실(건강관리), ③ 상담실(복지·건강 상담), ④교류 라운지(주민 자유 이용)를 갖추고 있으며, 연간 700-1,0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 플라자당 연간 이용자 수가 35만명에 달함

-특히 주민 주도의 자율적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며(한 플라자당 평균 30-50개 동아리

활동), 플라자는 공간과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하고 프로그램 기획·운영은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이 높고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음(90% 이상)

- 논산시도 이러한 '생활권 중심 소규모 다기능 거점' 모델을 참고하여, 읍·면 단위 시니어 학습센터를 단순 강좌 제공 공간이 아니라 학습-건강-교류-상담이 통합된 '시니어 생활 플랫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생활권 15분 내 평생학습 인프라 접근 가능, 프로그램 다양화로 개인별 맞춤 학습 기회 제공, 건양대 연계로 전문성 높은 강좌 제공,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간·공간 제약 극복, 학습동아리 활성화로 자발적 학습공동체 형성,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사회통합 기여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배움이 즐거운 도시 논산' 브랜드 구축과 학습형 액티브 시니어 유입 촉진이 가능

## 2.2.2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 과제 배경

- FGI 결과 시니어들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논산시의 문화 시설(공연장, 전시관, 영화관 등) 부족과 프로그램 부재로 인해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문화부의 '문화도시', '생활문화센터' 정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대전권 문화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논산시 시니어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

### □ 세부 사업

- ① 논산시 시니어 문화예술센터 건립: 논산시 중심부(논산시청 인근 또는 구 터미널 부지 등)에 시니어 특화 문화예술센터를 건립(연면적 3,000㎡, 사업비 약 150억원)  
-시설 구성은 ㉠ 공연장(300석 규모, 연극·음악회·무용 등 공연 및 시니어 발표회), ㉡ 전시관(회화·사진·서예·공예 등 시니어 작품 전시 및 기획 전시), ㉢ 연습실(음악·무용·연극 연습실 5-7개), ㉣ 창작실(미술실, 공예실, 도예실), ㉤ 다목적홀(영화 상영, 강연, 세미나), ㉦ 문화카페(공연 전후 교류 공간)로 구성  
-운영은 논산시문화재단에 위탁하며, 민간 문화예술단체·시니어 문화동아리와 협력하여 연간 300회 이상의 공연·전시·프로그램을 운영

-특히 '시니어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상시 운영하여 악기(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색소폰, 가야금 등), 성악, 미술(수채화, 유화, 한국화), 서예, 사진, 무용(한국무용, 사교댄스, 라인댄스) 등 전문 강사의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며, 초급-중급-고급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수준별 맞춤 교육을 실시

-또한 시니어 창작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작가 데뷔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시니어 작가 지망생의 전시회·출판·공연을 지원하고, 우수 작품은 논산시가 구입하여 공공시설에 전시하거나 문화상품으로 개발

○ ②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문화시설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 시니어를 위해 '찾아가는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운영

-연간 100회 이상 읍·면을 순회하며, 프로 예술단체(국악, 성악, 연극, 마술 등) 공연과 이동 전시(사진, 회화 등)를 제공

-특히 경로당·마을회관을 활용한 소규모 공연(20-50명 관객)을 기획하여, 시니어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함

-'이동 영화관' 사업도 운영하여, 대형 스크린과 음향 장비를 갖춘 차량이 마을을 방문하여 영화(고전 명화, 최신 영화 등 시니어 선호 작품)를 상영하며, 상영 후에는 영화 토론회를 진행하여 감상을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음

○ ③ 시니어 문화동아리 육성: 다양한 장르의 시니어 문화예술 동아리를 육성하고 지원

-예를 들어 '논산 시니어 합창단', '논산 시니어 오케스트라', '논산 시니어 연극단', '논산 시니어 사진동호회', '논산 시니어 서예회' 등을 조직하고, 각 동아리에 전문 지도자 파견, 연습 공간 제공, 악기·재료비 지원, 발표 기회 제공 등을 지원

-특히 시니어 동아리가 정기적으로 공연·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논산 시니어 문화예술제'를 연 1회 개최하며, 이는 시니어들의 문화적 성취를 축하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됨. 우수 동아리는 타 지역 문화행사 초청 공연, 국내외 문화교류(예: 일본·중국 자매도시 교류공연)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

○ ④ 대전권 문화시설 연계 이용: 논산시 자체 인프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전권(대전·세종) 문화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등 대전 소재 주요 문화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논산시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니어 대상 '문화버스'를 주 2-3회 운행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전 문화시설 방문을 지원

-예를 들어 '수요일 오페라 투어'(대전예술의전당 오페라 관람 + 대전 맛집 탐방), '금요일 미술관 나들이'(대전시립미술관 전시 관람 + 큐레이터 해설), '토요일 과학관 체험'(국립중앙과학관 관람 + 과학 강연) 등 문화+관광+교육이 결합된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

-또한 대전권 대학(충남대, KAIST, 한남대 등)의 문화예술 공연·전시 정보를 논산시 시니어에게 제공하고, 대학 측과 협력하여 시니어 할인·무료 초청 등을 추진

○ ⑤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논산시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㉔ 백제문화 체험: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 개태사지, 돈암서원(세계유산) 등 백제·조선시대 유적 탐방 및 전문가 해설, 백제 복식·공예 체험, ㉕ 강경 근대문화 체험: 강경읍 근대문화거리(구 은행·성당·극장 등 등록문화재) 답사, 강경갯길 전통시장 탐방, 강경포구 뱃길 체험, 근대 생활사 전시관 관람, ㉖ 논산의 독립운동사: 윤봉길 의사 생가·기념관,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기념관 탐방 및 독립정신 계승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향토애를 고취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 '시니어 문화해설사 양성 과정'과 연계하여, 교육받은 시니어가 다시 해설사로 활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 국내 사례: 서울시 '50플러스 문화예술학교'

○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전역에 8개의 50플러스센터를 운영하며, 각 센터마다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3)

-프로그램은 음악(보컬, 기타, 우쿨렐레, 색소폰 등), 미술(드로잉, 수채화, 캘리그래피), 공예(도예, 가죽공예, 목공예), 사진, 글쓰기, 영상제작 등 30여개 장르로 다양하며, 각 과정은 3개월-6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수준별(입문-초급-중급-고급)로 세분화되어 있음

-특히 수료생들이 '50플러스 문화예술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며, 동아리에게는 연습 공간, 발표 기회(연 2회 '50플러스 문화축제' 개최), 활동비(연 최대 300만원) 등을 지원

-2022년 기준 약 500개의 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회원 수는 8,000여명에 달함

-또한 수료생 중 우수 작가를 발굴하여 '50플러스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회·출판·공연을 지원하며, 실제로 여러 명의 시니어 작가가 데뷔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논산시도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동아리-발표-작가 데뷔'의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액티브 시니어의 자아실현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 창작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성취감,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고립 예방, 대전권 연계로 인프라 한계 극복, 역사문화 체험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시니어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공연·전시 관객 확대, 문화 소비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논산' 브랜드 구축이 가능

### 2.2.3 여행·관광·레저 활성화

#### □ 과제 배경

- 통계청 사회조사(이재호 외, 2024)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50-60대의 국내외 여행 횟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긴 시니어들의 여행 욕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별 여행 계획의 어려움, 안전 우려, 동행자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여행 실행률은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니어 친화적 여행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

#### □ 세부 사업

- ① 논산시 시니어 여행클럽 운영: 시니어 전용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논산시 시니어 여행클럽'을 설립(논산시 출자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형태)
  - 프로그램은 ㉠ 당일 여행(충청권 명소, 월 2회), ㉡ 1박2일 국내 여행(전국 주요 관광지, 월 1회), ㉢ 2박3일 이상 테마 여행(제주도, 강원도, 부산 등, 분기 1회), ㉣ 해외 여행(일본, 중국, 동남아 등, 연 2-4회)으로 구성
  - 특히 단순 관광이 아니라 '학습형 여행'을 지향하여, 역사·문화 해설, 현지 전문가 강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경주 신라문화 탐방'에서는 국립경주박물관 큐레이터 해설, 신라 의상 체험, 신라 음식 시식 등을 결합
  - 여행비는 실비 수준으로 책정하되(교통비+숙박비+식비+보험료), 저소득

- 시니어에게는 일부 지원(최대 50%)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간호사 동행, 응급의료 장비 구비, 여행자 보험 가입, 느린 일정(충분한 휴식 시간 확보) 등을 보장하며, 참가자 건강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함
  - ② **논산 시니어 생태·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 논산시 자체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시니어 친화 관광상품을 개발
    - ㉠ 탐정호 생태관광: 탐정호 둘레길 걷기(완만한 경사, 휠체어·유모차 접근 가능 구간 조성), 호수 둘레 자전거 투어(전기자전거 대여), 탐정호 수상레저(카약, 요트 체험), 철새 관찰 프로그램(겨울철 철새도래지), ㉡ 온천 웰니스 관광: 논산 노성 노천 온천을 중심으로 온천욕+건강검진+건강식+요가·명상 등을 결합한 1박2일 '웰니스 패키지', ㉢ 농촌 힐링 체험: 딸기·석류 농장 체험, 농촌 민박, 전통음식 만들기, 농촌 산책로 걷기 등을 결합한 '농촌 힐링 스테이' 등을 개발하여 외부 시니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논산 시니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③ **시니어 등산·트레킹 동호회 지원:** 논산시는 계룡산 자락에 위치하고 주변에 금강, 논산천 등 자연환경이 풍부하므로, 이를 활용한 시니어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
    - '논산 시니어 등산회', '논산 금강 트레킹 클럽' 등 동호회를 조직하고, 정기 산행 프로그램(주 1-2회), 안전 교육(등산 안전수칙, 응급처치), 장비 지원(등산용 스틱, 배낭 대여),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제공
    - 또한 논산시 관내 주요 산·하천에 '시니어 친화 산책로'를 조성하여, 경사가 완만하고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간중간 휴게 벤치와 화장실이 마련된 코스를 개발
    - 특히 계룡산 둘레길, 금강 자전거길, 탐정호 둘레길 등 주요 트레킹 코스마다 구간별 난이도를 표시하고(초급·중급·고급), 거리·소요시간·칼로리 소모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논산 100리 걷기 챌린지' 등 gamification 요소를 도입하여, 참여자가 걷기 앱에 기록을 누적하고 일정 거리 달성 시 배지·인증서를 수여하며, 연말에 우수 참여자를 시상하여 동기를 부여
  - ④ **시니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동:** 논산시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시니어가 직접 해설하는 '시니어 문화관광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
    - 연 2회 양성과정(3개월, 이론+현장실습)을 개최하여, 논산의 역사·문화·자연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후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도록 함

- 활동 분야는 ㉠ 관광지 해설(관측사, 개태사지, 돈암서원, 강경 근대문화거리 등), ㉡ 학교 교육 지원(지역 초·중·고등학교 현장학습 인솔 및 해설), ㉢ 기업·단체 연수 프로그램(기업 워크숍·연수단 대상 논산 투어 해설),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해설(영어·중국어·일본어 가능 해설사) 등으로 다양화
- 해설사에게는 활동 시간당 적정한 수당(3-5만원)을 지급하고, 우수 해설사는 '논산시 명예 문화관광대사'로 위촉하여 시 차원의 문화행사·국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 사회적 인정을 제공

□ 국내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올레 시니어 걷기 프로그램'

- 제주올레는 2007년 개장 이후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을 일으킨 대표적 트레킹 코스이며, 특히 시니어 이용자가 많음(전체 이용자의 약 40%가 60세 이상, 제주올레, 2023)
  - 제주올레는 시니어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① 코스별 난이도 표시 및 상세 정보 제공(거리, 소요시간, 경사도, 화장실·휴게소 위치 등), ② 안전시설 확충(난간, 데크로드, 미끄럼 방지 포장), ③ 중간 지점마다 간이 의료소 및 응급호출 시스템 설치, ④ 시니어 전용 가이드 투어(느린 속도, 충분한 휴식, 간호사 동행)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제주올레 시니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여, 전체 26개 코스(총 425km) 완주 시 인증서와 기념품을 수여하며, 70세 이상 완주자에게는 특별 표창을 제공
  -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올레는 시니어 관광객의 주요 목적지가 되었으며, 시니어 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4.2일)과 지출액(1인 평균 70만원)이 전체 평균보다 높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
- 논산시도 탐정호 둘레길, 계룡산 둘레길, 금강 자전거길 등을 '논산 올레'로 브랜딩하고, 제주올레의 시니어 친화적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한다면, 외부 시니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해외 사례: 스페인 '순례자의 길(Camino de Santiago)' 시니어 순례 프로그램

- 스페인 북부의 순례자의 길(총 길이 약 800km)은 세계적인 도보 순례 코스로, 매년 30만명 이상이 걷는데, 그중 60세 이상 시니어가 약 25%를 차지(스페인 관광청, 2023)
  - 시니어 순례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로는 ① 짐 운반 서비스(배낭을 차량으로 다음

숙소까지 운송), ② 의료 지원(주요 거점마다 의료소 운영, 순례자 보험), ③ 느린 일정(하루 1520km, 충분한 휴식), ④ 시니어 전용 숙소(개인실, 편안한 침대, 욕실), ⑤ 문화·역사 해설 프로그램(단순 걷기가 아닌 학습형 순례) 등이 제공됨

-특히 '시니어 그룹 순례 프로그램'은 전문 가이드와 간호사가 동행하며, 2030명 단위로 2-3주간 함께 걷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사회적 교류도 풍부하여 시니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순례를 완주한 시니어들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큰 치유와 성찰을 얻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눴다”,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등의 소감을 밝히며, 단순한 여행을 넘어선 영적·철학적 경험으로 평가(Amaro et al., 2021)

- 논산시도 백제문화권 순례길, 독립운동가 생가 순례길 등 역사·문화·영성이 결합된 '논산 순례길'을 개발하고, 시니어 그룹 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단순 관광을 넘어선 깊이 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논산의 역사문화 자산을 재조명하고 관광 브랜드를 고급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여행·레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행복감 증대, 신체활동 증가로 건강 증진,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한 인지기능 유지, 동호회·그룹 여행을 통한 사회적 교류 및 우정 형성, 시니어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숙박·식당·관광산업 활성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통한 시니어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 논산의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됨

## 2.3 정책과제 3: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 지원

### 2.3.1 통합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 과제 배경

- WHO는 'Healthy Ageing'을 “고령기에 웰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능력을 개발·유지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WHO, 2015),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관리·기능 유지에 초점을 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함
- 논산시는 건양대학교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진료-관리-재활이 연속되는 시니어 건강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

## □ 세부 사업

- ① 건양대병원-논산시보건소 연계 시니어 건강센터: 건양대학교병원과 논산시보건소가 협력하여 '논산시 시니어 건강센터'를 설립·운영(건양대병원 내 또는 보건소 내 별도 공간)
  - 이 센터는 ① 종합건강검진(연 1회 무료 또는 저가, 일반검진+암검진+치매검진+우울증검진), ② 만성질환 관리(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정기 모니터링, 투약 관리, 생활습관 개선 상담), ③ 건강상담(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처방사 등 다학제 팀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계획 수립), ④ 건강교육(만성질환·영양·운동·금연·절주 등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⑤ 재활치료(근력 약화·관절 문제 등에 대한 물리치료·작업치료) 등을 통합 제공
  - 특히 건양대 의과대학·간호대학 교수진과 전공의·간호대생이 참여하는 '시니어 건강케어팀'을 구성하여,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
  - 또한 ICT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여, 시니어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강검진 결과 조회, 복약 알림, 운동·식단 기록, 화상 건강상담 예약, 응급호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취약 시니어를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도 병행 제공
- ② 읍·면 단위 건강생활지원센터: 13개 읍·면마다 '○○읍(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생활권 밀착형 건강서비스를 제공
  - 기존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확대 개편하며, 시설은 ① 진료실(기본 진료 및 건강상담), ② 운동실(실내 운동기구, 그룹 운동 프로그램), ③ 건강측정실(혈압·혈당·체성분 등 자가측정 기기), ④ 건강교육실(집단 교육 프로그램)로 구성
  - 상주 인력은 간호사 12명, 운동지도사 1명, 영양사 1명(순회)이며, 의사는 건양대병원·보건소에서 주 12회 파견
  - 주요 프로그램은 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고혈압·당뇨 환자 그룹 교육 및 모니터링), ② 운동 프로그램(실버 체조, 근력운동, 스트레칭, 주 3-5회), ③ 영양 프로그램(건강식 조리실습, 개인별 식단 상담), ④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지훈련 게임, 두뇌활동 프로그램), ⑤ 정신건강 프로그램(우울·불안 집단상담, 웃음치료, 원예치료)을 운영

-특히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를 위해서는 '방문 건강관리팀'(간호사+사회복지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 확인, 복약 지도, 생활환경 점검,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등을 제공

- ③ 시니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일반 헬스장의 운동 프로그램은 청년·중년 중심으로 설계되어 시니어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시니어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동 목표는 ① 근력 유지·증진(근감소증 예방), ② 유연성 향상(관절 가동범위 유지), ③ 균형감각 훈련(낙상 예방), ④ 심폐지구력 향상(만성질환 관리)이며, 프로그램은 ① 실버 요가·필라테스(유연성, 균형감각, 호흡), ② 근력운동(탄력밴드, 아령, 자체 체중 이용 운동), ③ 유산소 운동(걷기, 실내 자전거, 수중 운동), ④ 낙상 예방 운동(한 발로 서기, 장애물 걷기 등) 등으로 구성됨

-특히 '소그룹 퍼스널 트레이닝'(58명 소그룹, 전문 운동처방사 지도, 주 23회, 12주 과정)을 운영하여, 개인별 체력 수준과 건강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며, 운동 전후 체력측정(근력, 유연성, 균형감각, 심폐지구력 등)을 실시하여 개선 효과를 확인

-또한 '시니어 수영·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논산시민수영장에서 운영하여, 관절에 부담이 적고 전신 운동 효과가 큰 수중운동을 제공하며, 시니어 전용 시간대(오전 10-12시)를 배정하고 강습료를 할인(50%)함

- ④ 영양·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고령기에는 식욕 감퇴, 저작·연하 기능 저하, 소화 흡수율 감소 등으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니어 맞춤형 영양 프로그램을 제공

-① 개인별 영양상담(영양사가 식습관 조사 후 개인별 식단 처방), ② 집단 영양교육(만성질환별 식이요법, 영양소 균형, 식품 선택 방법 등), ③ 건강요리 교실(시니어 친화 요리법: 부드럽게 조리, 저염·저당 조리, 영양 밸런스, 실습 위주), ④ 공동 식사 프로그램(독거 시니어 대상 주 2-3회 건강식 제공, 식사하며 교류), ⑤ 식사 배달 서비스(거동 불편·조리 어려움 시니어 대상 맞춤 도시락 배달) 등을 운영

-특히 '시니어 건강 레스토랑'을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내에 설치하여, 영양사가 설계한 건강식 메뉴를 저렴한 가격(5천원 내외)에 제공하며, 이는 단순 식사 제공을 넘어 시니어들의 사교 공간이자 식생활 교육의 장으로 기능

- ⑤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한국은 치매 유병률이 OECD 평균을 상회하며(65세

이상 10%, 보건복지부 2023), 치매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은 상황이므로, 치매 조기 발견-예방-관리 체계를 강화

- ㉠ 치매 선별검사(60세 이상 전체, 연 1회 무료,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실시),
- ㉡ 치매 정밀검사(선별검사 이상자 대상, 건양대병원 연계), ㉢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지훈련: 기억력·주의력·판단력 훈련 게임, 두뇌 활동: 퍼즐·보드게임·악기 연주·그림 그리기, 신체 활동: 걷기·체조, 사회 활동: 동호회·자원봉사, 주 3회 이상),
- ㉣ 치매 환자 관리(약물치료 지원, 인지재활치료, 가족 돌봄 교육), ㉤ 치매 안심센터 운영(논산시 치매안심센터를 확대하여 상담·등록·관리·쉼터 기능 강화) 등을 통합 제공

-특히 '두뇌 건강 교실'을 읍·면 단위로 운영하여, 재미있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숫자 게임, 단어 맞추기, 스토리, 기억력 게임 등)을 주 2-3회 제공하며, 이는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와 즐거움을 제공하여 우울 예방에도 기여

- ⑥ 정신건강 지원 강화: 고령기는 은퇴, 배우자 사망, 건강 악화 등으로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

- ㉠ 우울·불안 선별검사(건강검진 시 포함), ㉡ 정신건강 상담(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개인상담·집단상담), ㉢ 우울 예방 프로그램(웃음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반려동물치료 등), ㉣ 자살 예방(고위험군 발굴 및 집중관리, 게이트키퍼 양성: 경로당·복지관 종사자, 이·통·반장, 자원봉사자 등이 위기 신호 감지 및 연계), ㉤ 정신건강 위기개입팀(정신과 의사, 정신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 24시간 긴급 출동) 등을 운영

-특히 '시니어 마음건강 카페'를 운영하여, 부담 없이 방문하여 차를 마시며 상담사와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한 상담 공간을 제공하며, 집단 프로그램(감정표현 글쓰기, 명상, 요가, 웃음치료 등)도 운영

#### □ 국내 사례: 서울시 서초구 '시니어 케어 통합센터'

- 서울시 서초구는 2021년 '시니어 케어 통합센터'를 개소하여, 건강검진-만성질환관리-운동-영양-정신건강을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음(서초구, 2023)

-센터는 연면적 2,000㎡ 규모로, ① 건강검진실(기본검진+암검진+치매검진), ② 만성질환 관리실(의사·간호사 상주, 정기 모니터링), ③ 운동센터(헬스장, 요가실,

물리치료실), ④ 영양센터(영양상담, 조리실습, 공동식당), ⑤ 정신건강센터(상담실, 집단 프로그램실), ⑥ 교육실(건강교육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음

-특히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여, 시니어 1인당 전담 간호사 1명을 배정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한 서비스(검진-상담-운동-영양-정신건강 등)를 통합 조정하고, 6개월마다 재평가하여 계획을 수정

-개소 2년간 등록 회원 3,000명, 연 이용 횟수 5만회를 기록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하였고, 건강지표 개선 효과도 확인되었음(만성질환 관리군의 혈압·혈당 조절률 향상, 체력측정 지표 개선, 우울 점수 감소 등)

- 논산시도 이러한 통합형 건강관리 모델을 도입하되, 건양대학교병원이라는 지역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의료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읍·면 단위 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촌 지역까지 서비스가 도달하도록 설계한다면, 논산시만의 차별화된 '건강도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 해외 사례: 일본 '개호예방(介護予防) 프로그램'

- 일본은 2006년 개호보험법(장기요양보험) 개정을 통해 '개호예방(요양 예방)' 개념을 도입하고, 고령자가 요양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일본 후생노동성, 2023)

-핵심은 ① 운동기능 향상(근력·균형감각 훈련), ② 영양 개선(저영양 예방), ③ 구강기능 향상(저작·연하 기능 유지), ④ 인지기능 저하 예방(두뇌 활동), ⑤ 우울·고립 예방(사회참여) 등 5대 영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며,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이 지역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계·운영

-특히 '통(通)いの場(카요이노바, 모임의 장)'이라는 주민 주도 소규모 모임을 적극 육성하여, 주 1회 이상 마을회관·공민관 등에서 주민들이 모여 체조·게임·다도·원예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자체는 공간·자료·강사 파견·간식비 등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

-2022년 기준 전국에 약 13만개의 '카요이노바'가 운영 중이며, 참여자는 약 400만명(65세 이상 인구의 약 11%)에 달함

-연구 결과 '카요이노바'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요양 인정률이 낮고(참여자 15%

vs 비참여자 22%), 건강수명이 길며(남성 +1.8년, 여성 +1.3년), 의료비가 적게 발생하는(1인당 연평균 약 30만엔 절감) 것으로 나타나,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일본 후생노동성 연구반, 2022)

- 논산시도 이러한 '주민 주도 소규모 건강 모임' 모델을 도입하여, 행정이 직접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자발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지속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통합 건강관리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효율성 제고, 운동·영양·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건강수명 연장, 치매 조기발견·예방으로 치매 유병률 감소, 의료비 절감(예방 중심 접근으로 중증질환 발생 감소), 건양대 연계로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시니어의 삶의 질 향상 및 독립적 생활 유지, '건강도시 논산' 브랜드 구축 등의 효과가 기대됨

## 2.3.2 고령친화 환경 조성

### □ 과제 배경

- WHO의 'Age-Friendly City(고령친화도시)' 개념은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정책 패러다임(WHO, 2007)
- 논산시는 고령화율이 높고 노후 주택·인프라가 많은 상황이므로, 고령친화 환경 조성이 시급

### □ 세부 사업

- ① 고령친화 주택 개조 지원: 시니어가 거주하는 주택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저소득 가구 최대 500만원, 중위소득 이하 최대 300만원)
  - 개조 항목은 ㉠ 단차 제거(문턱 없애기, 경사로 설치), ㉡ 안전손잡이 설치(현관·화장실·욕실·계단),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화장실·욕실·주방), ㉣ 화장실·욕실 개조(좌변기 교체, 샤워부스 설치, 높이 조절 세면대), ㉤ 조명 개선(밝은 LED 조명, 센서등), ㉦ 난방·단열 개선(보일러 교체, 창호 교체, 단열재 시공), ㉧ 비상벨·감지기 설치(화재감지기, 가스누출감지기, 응급호출벨) 등임
  - 특히 '시니어 주택 안전진단단'(건축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을 운영하여,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 환경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조 계획을 제안하며, 시공 후

사후 점검까지 책임짐

-또한 논산시 관내 건설업체·자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재비·인건비를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받고, 일부 자재는 기업의 사회공헌(CSR) 차원에서 기부받아 예산을 절감

○ ② 고령친화 마을 시범사업: 밀양시 사례를 참고하여, 논산시 내 35개 마을을 '고령친화 마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종합 개선

-선정 기준은 ① 고령화율 30% 이상, ② 인구 500-2,000명 규모, ③ 주민 참여 의지, ④ 접근성(읍·면 소재지에서 30분 이내) 등이며, 읍 지역 1개, 면 지역 24개를 선정

-사업 내용은 ① 도로·보도 정비(보도 확장, 단차 해소, 미끄럼 방지, 가로등 확충), ② 공공시설 개선(마을회관·경로당 리모델링, 무장애 화장실, 휴게 벤치, 그늘막), ③ 생활 서비스 확충(방문의료·간호, 이동지원 차량, 식사 배달, 장보기 도우미), ④ 안전 시스템(CCTV, 비상벨, 독거노인 안전확인 IoT 센서), ⑤ 사회활동 프로그램(건강체조, 평생학습, 동호회, 세대통합 행사)으로 구성

-특히 '마을 건강 리더' 제도를 도입하여, 마을 내 건강한 시니어(60대 중반70대 초반)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여, 이들이 또래 시니어의 건강 모니터링, 운동 프로그램 인솔, 건강정보 전달, 복약 확인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는 주민 주도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사업 기간은 3년이며, 연차별로 ① 1차년도: 물리적 환경 개선, ② 2차년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③ 3차년도: 평가 및 확산 모델 정립을 추진하고, 성과가 검증되면 전체 읍·면으로 단계적 확대

○ ③ 고령친화 교통 인프라: 시니어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

-① 시니어 전용 버스 노선(논산시청-건양대병원-전통시장-문화시설 순환, 1시간 간격, 무료 또는 저가), ②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도입(콜센터나 앱으로 예약하면 정해진 시간에 집 앞까지 픽업하여 목적지로 이동, 농촌 지역 적용), ③ 시니어 택시 바우처(월 4-8회, 1회 최대 1만원 지원, 의료기관 방문·관공서 업무 등에 활용), ④ 무장애 버스 정류장(경사로, 지붕, 의자, 실시간 정보 안내판), ⑤ 보행환경 개선(보도 확장,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 연장, 음향 신호기,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등을 추진

-특히 대전권 연계 교통망 강화를 위해 '논산-대전 직행 시니어 셔틀버스'를 운행하여(1일 4회 왕복,

논산시청 - 건양대병원 - 대전역 - 대전복합터미널 - 충남대병원 - 대전예술의전당  
경유), 대전의 의료·문화 인프라 이용을 지원

- ④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시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모든 공공시설(청사,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공원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연령·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이용 가능한 설계) 원칙을 적용

- ㉠ 무장애 접근(경사로, 엘리베이터, 자동문, 넓은 통로), ㉡ 인지 용이성(큰 글씨 안내판, 색상 대비, 픽토그램, 음성 안내), ㉢ 안전성(미끄럼 방지 바닥, 모서리 보호, 안전손잡이), ㉣ 편의성(휴게 벤치, 물·화장실 접근 용이, 짐 보관함) 등을 고려하며, 설계 단계부터 시니어·장애인 당사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실제 사용자 관점을 반영

- 또한 '고령친화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 시설(식당, 카페, 상점, 숙박시설 등)도 고령친화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세제 혜택·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⑤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니어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논산시 시니어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

- ㉠ 독거노인 IoT 안전확인(독거 가구에 동작감지 센서, 문 개폐 센서 설치, 24시간 이상 움직임 없으면 자동 알림), ㉡ 응급호출 시스템(택내 비상벨, 휴대용 응급버튼, GPS 기능, 누르면 119와 보호자에게 동시 연결), ㉢ 웨어러블 건강 모니터링(스마트워치·밴드로 심박수·혈압·활동량·수면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견 시 알림), ㉣ AI 돌봄 로봇(독거 시니어 대상 시범 사업, 말벗·복약 알림·이상징후 감지 기능), ㉤ CCTV 통합관제(공공장소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AI 분석으로 낙상·배회·범죄 등 이상 상황 자동 감지)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

- 특히 디지털 취약 시니어를 위해서는 기술 교육과 함께 '디지털 도우미'(대학생·청년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기기 설치·사용법 교육·문제 해결을 지원

#### □ 국내 사례: 서울시 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 서울시 은평구는 2013년 WHO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후 10년간 고령친화 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하였음(은평구, 2023)

- 주요 성과로는 ① 무장애 보행로 확충(구 전체 보도의 70%를 무장애화: 단차 제거,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② 고령친화 공원 조성(완만한 산책로, 의자·그늘막 충분히

설치, 노인 전용 운동기구, 화장실 근접), ③ 시니어 전용 주차구역(공공시설·대형마트 등에 출입구 가까운 곳 배정), ④ 시니어 우선 창구(구청·주민센터에 전용 창구, 대기 없이 우선 처리), ⑤ 고령친화 상점 인증제(300개 업소 참여: 휴게 의자, 돋보기, 배달 서비스 등 제공) 등이 있음

-특히 '시니어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시니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니어 정책자문단'(50명), '시니어 모니터단'(100명)을 운영하며, 이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제안하도록 하여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였음

-결과적으로 은평구 시니어의 거주 만족도가 10년간 67%에서 82%로 상승하였고, 시니어 1인 가구의 지역 내 계속 거주 의향도 75%에서 88%로 증가하여, 고령친화 환경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음

- 논산시도 은평구의 종합적·체계적 접근 방식을 벤치마킹하되, 농촌 지역이 많은 논산시 특성상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농촌 지역은 ICT 기반 스마트 안전망과 이동지원 서비스가 더욱 중요
- 물리적 환경 개선으로 시니어의 안전사고(낙상 등) 감소, 주거 편의성 향상으로 독립적 생활 유지 기간 연장,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촉진, 스마트 기술로 독거 시니어 안전 강화 및 가족 안심, 고령친화 환경이 시니어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만족도 향상,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논산' 브랜드 구축 등의 효과가 기대됨

## 2.4 정책과제 4: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조성

### 2.4.1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 □ 과제 배경

- FGI 결과 시니어들은 일자리·건강·문화·여가·평생학습·사회참여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각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어(일자리는 시니어클럽, 건강은 보건소, 문화는 문화센터, 평생학습은 평생학습관 등) 이용이 불편하고 통합적 지원이 어려움
- 일본의 '지역 케어 플라자', 서울시의 '50플러스센터'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논산시에 모든 기능이 통합된 '액티브 시니어 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

## □ 세부 계획

- ① 입지 및 규모: 논산시 중심부(논산시청 인근, 구 버스터미널 부지, 또는 유희 국·공유지)에 연면적 5,000-7,000㎡ 규모의 45층 건물을 신축
  -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버스 정류장 도보 5분 이내), 주차(200대 규모), 주변 편의시설(병원, 은행, 시장 등 도보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 입지를 선정
  - 사업비는 약 200-250억원(건축비 150억 + 설비·비품 50억 + 부지 매입비 별도)이며, 재원은 중앙정부 지원(생활SOC,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등) 50%, 충청남도 지원 20%, 논산시 자체 30%로 조달
- ② 시설 구성: 층별로 기능을 특화하여 배치
  - 1층(웰컴·정보·교류존): ① 로비·안내데스크(원스톱 안내·상담), ② 정보라운지(일자리·교육·문화 정보 검색, PC·태블릿 제공), ③ 카페테리아(시니어 건강식 제공, 사교 공간), ④ 북카페(신문·잡지·도서, 휴식 공간)
  - 2층(일자리·창업 지원존): ① 일자리 상담실(재취업·창업 상담), ②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개인 작업실 10개, 공유 회의실), ③ 직업교육실(IT, 자격증, 기술 교육), ④ 화상면접실(온라인 면접 지원)
  - 3층(문화·예술·평생학습존): ① 대강당(200석, 공연·강연), ② 중강의실(50석, 3개), ③ 소강의실(20석, 5개), ④ 컴퓨터실, ⑤ 음악실(방음, 악기 연습), ⑥ 미술실, ⑦ 공예실, ⑧ 전시갤러리
  - 4층(건강·운동·치유존): ① 헬스장(실버 전용 운동기구 30종), ② 그룹운동실(요가·필라테스·체조 등), ③ 건강상담실(간호사·영양사 상주), ④ 물리치료실, ⑤ 명상실, ⑥ 옥상정원(산책로, 텃밭, 휴게 공간)
  - 지하1층: 주차장, 창고
  - 각 층에는 무장애 화장실, 휴게 공간, 자동판매기, 정수기 등 편의시설을 충분히 배치하며, 전 시설 무장애 설계(엘리베이터, 경사로, 넓은 복도, 큰 글씨 안내판, 색상 대비)를 적용
- ③ 운영 프로그램: 연간 5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니어가 매일 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일자리 프로그램: 재취업 상담(주 5일), 창업 교육(연 4회, 6개월 과정), 직업훈련(IT, 자격증, 외국어 등, 수시), 채용박람회(연 2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인문교양(역사, 철학, 문학 등, 50개 강좌),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30개 강좌), 예술(음악, 미술, 서예, 사진, 30개 강좌), 디지털(스마트폰, 코딩, 영상편집, 20개 강좌), 건강(영양, 건강관리, 20개 강좌)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연(월 24회, 클래식·국악·연극·무용 등), 전시(월 12회, 회화·사진·서예·공예 등), 영화상영(주 2회), 동아리 활동(합창단, 오케스트라, 연극단, 사진동호회 등 50개 동아리 지원)

-건강 프로그램: 건강검진(연 1회), 운동 프로그램(체조, 요가, 필라테스, 근력운동, 주 5일), 건강상담(주 5일), 치매 예방 프로그램(주 3회), 정신건강 프로그램(상담, 치유, 주 3회)

-사회참여 프로그램: 자원봉사 모집·과건(상시), 세대통합 프로그램(월 1회), 마을만들기 워크숍(분기 1회)

- ④ 운영 주체 및 거버넌스: 센터 운영은 '(가칭)논산시액티브시니어재단'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

-재단 이사회는 논산시(3명), 시니어 대표(3명), 전문가(학계·의료·문화계 3명), 시민단체(2명), 기업(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여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특히 '시니어 운영위원회'(30명, 센터 이용자 중 선출)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기획·평가, 운영 개선 제안, 이용자 고충 처리 등에 시니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며, 이는 수요 적합성 제고와 주인의식 형성에 기여

- ⑤ 이용료 및 재정 지속가능성: 기본 이용(출입, 정보라운지, 북카페, 휴게 공간 등)은 무료이며, 개별 프로그램은 실비 수준의 이용료를 부과(강좌당 월 15만원, 운동 프로그램 월 3만원, 공연·전시 무료 또는 5천원 이내)

-저소득 시니어에게는 이용료 감면(50-100%)을 제공하여 경제적 접근성을 보장

-재정 구조는 ㉠ 논산시 위탁 운영비(인건비, 시설 유지비, 연 1520억원), ㉡ 이용료 수입(연 35억원), ㉢ 기부금·후원금(지역 기업·단체, 연 12억원), ㉣ 공간 대여 수입(외부 단체 대관, 연 5천만원-1억원)으로 구성하며, 총 수입 20-30억원 규모로 안정적 운영을 도모

## □ 국내 사례: 서울시 '50플러스센터' 네트워크

- 서울시는 2016년부터 50세 이상 시민을 위한 '50플러스센터'를 서울 전역에 9개소(서부·

중부·남부·동남·서남·동작·강동·금천·은평)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총 연면적 약 4만㎡, 총 투자비 약 1,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였음(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3)

-각 센터는 일자리(재취업·창업 상담, 직업훈련, 인큐베이팅), 교육(평생학습, 문화예술, IT), 활동(동호회, 자원봉사, 네트워킹), 상담(노후설계, 심리상담, 법률·재무 상담) 등 4대 기능을 통합 제공하며, 2022년 기준 총 등록 회원 10만명, 연 이용자 200만명, 연간 프로그램 5,000개를 기록하였음

-특히 '50플러스 캠퍼스'(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급 교육 프로그램, 연 500개 강좌), '50플러스 일자리 박람회'(연 1회, 300개 기업·기관 참가), '50플러스 문화축제'(연 1회, 동아리 공연·전시, 관객 1만명) 등 대규모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센터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

-운영 주체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서울시 출자 재단법인)이며, 이사회는 서울시(5명), 전문가(7명), 50플러스 대표(3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센터마다 '운영위원회'(이용자 대표 15명)를 두어 당사자 참여를 보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1%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기가 내 제2의 학교이자 직장이자 사랑방”이라는 소감이 많아, 센터가 단순 시설을 넘어 시니어의 삶의 중심 공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줌

- 논산시는 서울시보다 인구 규모가 작으므로(11만명 vs 960만명) 9개소가 아닌 1개 중앙센터 + 13개 읍·면 거점의 네트워크 모델이 적합하며, 서울시 사례의 통합적·다기능적 설계와 시니어 참여 거버넌스는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원스톱 통합 서비스로 이용 편의성 제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인별 맞춤 활동 선택 가능, 세대·계층·관심사를 넘어선 시니어 간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시니어의 소속감·정체성 강화(“나는 논산 액티브 시니어센터 회원”), 고립·우울 예방 및 사회참여 촉진, 지역 랜드마크로서 '액티브 시니어 도시 논산' 상징, 외부 시니어 유입 및 정주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됨

## 2.4.2 읍·면 단위 소규모 시니어 커뮤니티 거점 조성

### □ 과제 배경

- 통합 커뮤니티 센터는 시 중심부에 위치하므로, 읍·면 지역 시니어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13개 읍·면마다 소규모 시니어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여, 생활권 15분 내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

## □ 세부 계획

- ① 거점 유형: 읍·면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차별화함
  - 유형A(읍 지역: 연무읍, 노성읍, 강경읍): 연면적 500-700㎡, 강의실 23개, 운동실, 상담실, 교류 라운지, 연 100개 프로그램 운영
  - 유형B(인구 많은 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연면적 300-400㎡, 강의실 12개, 운동·다목적 공간, 교류 라운지, 연 50개 프로그램 운영
  - 유형C(인구 적은 면): 연면적 200-300㎡, 다목적 공간 12개(강의·운동·교류 겸용), 연 30개 프로그램 운영
- ② 기존 시설 활용: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읍·면사무소 유휴 공간, 폐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히 구축
  - 예를 들어 강경읍은 구 강경중학교 폐교를 활용하여 '강경 시니어 문화학교'로 조성하고, 역사문화 교육·해설사 양성·전통공예 체험 등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
- ③ 프로그램: 중앙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일부를 거점에서도 제공(순회 강좌, 화상 강의)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 예: 농업 중심 면(스마트팜, 6차산업, 농산물 마케팅), 강경읍(역사문화, 전통음식·공예), 연무읍(국방·안보, 예비역 활동)
- ④ 네트워크 연계: 13개 거점과 중앙 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연계
  - ㉠ 화상회의 시스템(각 거점과 중앙 센터 간 실시간 화상 강의, 회의, 교류), ㉡ 순회 프로그램(중앙 센터의 우수 강사·동아리가 거점을 순회 방문), ㉢ 통합 정보 플랫폼(웹사이트·앱에서 전체 거점의 프로그램 정보 통합 제공, 온라인 예약), ㉣ 거점 간 교류 행사(분기별 '읍·면 시니어 한마당', 프로그램 우수 사례 공유, 동아리 경연) 등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함
- ⑤ 주민 주도 운영: 각 거점은 '○○읍(면) 시니어 운영위원회'(10-15명, 지역 시니어 중 선출)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기획, 강사 섭외, 공간 관리, 회원 모집 등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논산시와 중앙 센터는 예산·전문가 지원·교육 등 간접 지원 역할을 담당

-이는 일본의 '카요이노바(모임의 장)' 모델처럼 주민 자발성을 촉진하고, 행정 의존도를 낮추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특히 '시니어 활동가 양성 과정'(연 1회, 3개월 과정)을 운영하여, 거점 운영, 프로그램 기획, 동아리 리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니어 리더를 체계적으로 양성

#### □ 해외 사례: 네덜란드 '비냐르딩(Buurthuizen, 이웃의 집)' 모델

○ 네덜란드는 1970년대부터 동네 단위(500-2,000가구)로 '비냐르딩(Buurthuizen)'이라는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여,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네덜란드 주민센터협회, 2023)

-규모는 300-800㎡로 다양하며, 시설은 다목적홀, 소모임실, 주방, 바(bar), 테라스 등으로 구성되고, 프로그램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요리교실, 언어교환, 공예, 운동, 영화상영, 파티 등 연 100-300개)

-특히 연령·국적·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이지만, 시니어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전체 이용자의 약 50%), 시니어들이 자원봉사로 센터 운영(접수, 청소, 카페 운영, 프로그램 진행 등)에 참여하여 '내 집처럼' 애착을 갖고 있음

-운영비는 ① 지자체 지원(40%, 시설 유지비·인건비), ② 이용료 수입(30%, 공간 대여, 카페 수익), ③ 기부·후원(20%), ④ 자원봉사(10%, 인건비 절감)로 구성되며, 평균 60-70%의 재정 자립도를 보임

-연구 결과 비냐르딩이 있는 동네는 주민 간 유대감이 높고(사회적 자본 지수 +30%), 고령자의 고립도가 낮으며(독거노인 고립률 -40%), 지역사회 참여율이 높은(자원봉사 참여율 +25%)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생활권 커뮤니티 거점의 효과가 입증되었음(Van der Meer et al., 2020)

○ 논산시의 읍·면 거점도 이러한 '작지만 강한(Small but Mighty)' 커뮤니티 센터 모델을 지향하며, 특히 주민 주도 운영과 세대통합 접근(시니어 중심이지만 전 세대 이용 가능)은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생활권 15분 내 시니어 활동 공간 확보, 읍·면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 주도 운영으로 주인의식과 지속가능성 확보, 중앙-거점 네트워크로 시너지 창출, 농촌 지역 시니어의 고립 예방 및 사회참여 촉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여 등의 효과가 기대됨

## V. 추진 체계 및 자원 조달

### 1. 추진 체계

#### 1.1 조직 체계

##### 1.1.1 논산시청 내 전담 조직 신설

- 액티브 시니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의 업무 추가가 아니라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
  - 현재 논산시의 노인 관련 업무는 복지정책과(노인복지), 일자리경제과(일자리), 평생교육과(평생학습), 문화관광과(문화)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전략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
  - 조직 구성안은
    - ① 부시장 직속 '액티브시니어정책관' 신설: 국장급(4급 또는 개방직), 시니어 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조정하며, 부서 간 협력을 주도하고 산하에 2개 팀을 둠
    - ② 시니어활력지원팀: 팀장 1명(5급), 팀원 45명(67급), 담당 업무: 시니어 일자리·창업 지원, 사회공헌 활동 연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세대통합 프로그램 기획
    - ③ 시니어생활지원팀: 팀장 1명(5급), 팀원 45명(67급), 담당 업무: 시니어 건강·돌봄 정책, 고령친화 환경 조성, 평생학습·문화 프로그램 지원, 커뮤니티 센터 건립·운영
  - 이와 함께 기존 부서(복지정책과, 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도시재생과 등)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되, 액티브시니어정책관이 총괄 조정하는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구축

##### 1.1.2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

- 시니어 정책은 행정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민간(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기

업), 학계(건양대 등), 유관기관(복지관, 평생학습관, 보건소, 문화재단 등)의 협력이 필수적

- ① 논산시 액티브시니어정책위원회: 시장 자문기구, 위원장: 부시장, 위원 20명(시의회 2명, 시청 3명, 시니어 대표 5명, 전문가 5명, 유관기관 3명, 기업 2명)  
-역할: 시니어 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요 정책 심의, 예산 배분 조정, 성과 평가, 연 4회 정기회의
- ② 분야별 실무협의회: 일자리 분야, 건강 분야, 문화·평생학습 분야, 커뮤니티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각 10-15명), 구체적 사업 기획·집행·평가를 협의, 월 1회 회의
- ③ 논산시-건양대학교 협력 협의체: 건양대 총장-논산시장 간 정기 간담회(연 2회), 실무 협의회(분기 1회)  
-협력 분야: 시니어 건강관리, 평생교육, 연구 프로젝트(시니어 정책 효과 분석, 건강 빅데이터 분석 등), 학생 인턴십(행정 인턴, 건강 모니터링 실습 등)
- ④ 시니어 당사자 참여 기구: '논산시 시니어 대표회의'(50명, 각 읍·면당 34명, 다양한 연령·성별·계층 대표)  
-역할: 정책 제안, 모니터링, 홍보 활동, 분기 1회 회의

#### ■ 국내 사례: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추진 거버넌스'

- 부산시는 2019년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면서,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음(부산시, 2023)
- 시청 내에는 '고령친화도시추진단'(기획관급, 30명)을 신설하여 전담 조직으로 운영하고, 시장 자문기구로 '부산시 고령친화도시위원회'(30명: 전문가 15명, 시니어 대표 10명, 시민단체 5명)를 구성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
- 또한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시민네트워크'를 조직하여, 100개 시민단체·복지기관·대학·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연 1회 '부산 고령친화도시 포럼'을 개최하여 성과 공유와 향후 과제를 논의
- 특히 '시니어 정책모니터단'(200명)을 운영하여, 시니어 당사자가 직접 정책·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우수 모니터링 사례는 시상하고 정책에 반영
-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해 부산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2022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논산시도 부산시의 전담 조직 + 자문위원회 + 민간 네트워크 + 시니어 참여 기구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참고하되, 논산시 규모에 맞게 간소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1.2 추진 단계

### □ 액티브 시니어 정책은

-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므로, 5년 단위 2단계로 계획

### 1.2.1 제1단계: 기반 구축기 (2025-2029년)

#### □ 목표: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실시, 제도 정비

##### ○ 주요 과제

- 
- ① 조직·거버넌스 구축(2025년): 전담 조직 신설, 정책위원회 구성,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②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25-2026년): 논산시 시니어 실태조사(설문 3,000명 + FGI 150명), 「논산시 액티브시니어 기본계획(2025-2034)」 수립
  - ③ 핵심 인프라 건립(2025-2027년): 액티브시니어 통합 커뮤니티 센터 설계·착공·준공 (2027년 개관 목표), 읍·면 거점 5개소 우선 조성
  - ④ 시범사업 실시(2026-2028년): 고령친화 마을 3개소, 시니어 창업 아카데미, 건강관리 통합 프로그램, 문화해설사 양성 등 주요 프로그램 시범 운영
  - ⑤ 제도 정비(2025-2027년): 「논산시 액티브시니어 지원 조례」 제정, 시니어 친화 기업 인증제, 고령친화 건축기준 등 관련 제도 정비
  - ⑥ 홍보 및 인식 개선(2025-2029년): 액티브 시니어 개념 확산, 성공 사례 발굴·홍보, '논산 액티브 시니어 페스티벌' 개최(연 1회)
- 

- 예산: 5년간 총 400억원(연평균 80억원)

인프라 구축: 280억원(통합센터 230억, 거점 5개소 50억)

프로그램 운영: 80억원(연 16억×5년)

제도·연구·홍보: 40억원(연 8억×5년)

---

## 1.2.2 제2단계: 확산·고도화기 (2030-2034년)

□ 목표: 전면 확대, 모델 고도화, 지속가능성 확보

○ 주요 과제

- 
- ① 인프라 확대(2030-2032년): 읍·면 거점 나머지 8개소 조성 완료(총 13개), 통합센터 증축(수요 증가 대응)
  - ② 프로그램 고도화(2030-2034년):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반영, 우수 프로그램 확대, 신규 프로그램 개발(AI·메타버스 활용 등 첨단 기술 접목), 건양대 공동 연구 프로젝트(시니어 건강 빅데이터, 정책 효과 분석)
  - ③ 전국 확산 및 브랜드화(2031-2034년): 논산 모델의 전국 확산(타 지자체 벤치마킹, 중앙정부 정책 반영 노력), '대한민국 대표 액티브 시니어 도시 논산' 브랜드 확립, 국제 교류(일본·유럽 고령친화도시와 교류, 국제 컨퍼런스 유치)
  - ④ 지속가능성 확보(2032-2034년): 민간 재원 확대(기업 후원, 사회적경제 조직 자립), 주민 자치 강화(시니어 주도 운영 비중 확대), 성과 기반 예산 배분 시스템 구축
- 

○ 예산: 5년간 총 350억원(연평균 70억원)

---

인프라 확대: 120억원(거점 8개소 80억, 통합센터 증축 40억)

프로그램 운영: 180억원(연 36억×5년, 프로그램 확대에 예산 증가)

연구·평가·확산: 50억원(연 10억×5년)

---

○ 제1+2단계 총괄: 10년간 총 750억원 투자, 인프라 완성, 프로그램 정착, 논산형 액티브 시니어 모델 확립

## 1.3 성과 관리 및 평가

### 1.3.1 성과지표 체계

□ 정책 목표 달성 여부

○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KPI)를 설정

투입(Input) 지표	예산 집행률(목표: 95% 이상) 인프라 구축 완료율(목표: 제1단계 40%, 제2단계 100%) 프로그램 개발 수(목표: 제1단계 300개, 제2단계 500개)
과정(Process) 지표	시니어 참여자 수(목표: 제1단계 연 3만명, 제2단계 연 5만명) 프로그램 운영 횟수(목표: 제1단계 연 3,000회, 제2단계 연 5,000회) 협력 기관·단체 수(목표: 제1단계 50개, 제2단계 100개)
산출(Output) 지표	시니어 일자리 창출(목표: 제1단계 연 500명, 제2단계 연 1,000명) 평생학습 참여율(목표: 제1단계 25%, 제2단계 30%) 자원봉사 참여율(목표: 제1단계 25%, 제2단계 30%) 건강검진 수진율(목표: 제1단계 80%, 제2단계 90%)
결과(Outcome) 지표	60-74세 고용률(목표: 5%p 상승) 시니어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음' 비율(목표: 50%) 시니어 삶의 만족도(목표: 70%) 고립 시니어 비율(목표: 20% → 10%)
영향(Impact) 지표	지방소멸위험지수(목표: 0.5 이상 유지) 50-60대 인구 순유입 전환(목표: 순유출 → 순유입) 시니어 의료비 절감(목표: 1인당 연평균 10% 감소) 경제성장률 기여(목표: 연 0.1%p 기여)

### 1.3.2 평가 방법

#### □ 평가방법

- ① 연차별 자체평가: 매년 말 전담 조직이 주관하여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정책위원회에 보고, 미흡 분야는 차년도 계획에 반영
- ② 중간평가: 제1단계 종료 시점(2029년)에 외부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중립적 평가 실시, 제2단계 계획 수정에 반영
- ③ 최종평가: 제2단계 종료 시점(2034년)에 종합 평가 실시, 성과와 한계 분석, 차기 10년 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④ 주민 만족도 조사: 매년 시니어 이용자 1,000명 대상 만족도 조사(프로그램 만족도, 시설 만족도, 직원 친절도, 종합 만족도 등), 결과를 프로그램 개선에 즉시 반영
- ⑤ 시니어 모니터단 운영: 시니어 당사자 5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반기별로 시설·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고 평가하여 개선 의견 제시

□ 국제 사례: WHO 고령친화도시 평가 프레임워크

- WHO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으며, 8개 영역(실외 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포용, 시민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보건서비스) 74개 세부 항목에 대해 평가(WHO, 2007)
- 특히 '주민 참여 평가' 방법론을 강조하는데, 고령자 당사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참여하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취함
- 논산시도 WHO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목표로 할 수 있음

## 2. 재원 조달

### 2.1 재원 규모 및 구성

□ 총 소요 예산: 10년간(2025-2034년) 총 750억원

- 제1단계(2025-2029년): 400억원
- 제2단계(2030-2034년): 350억원

□ 재원 구성 목표:

- 중앙정부 지원: 40% (300억원)
- 충청남도 지원: 20% (150억원)
- 논산시 자체: 30% (225억원)
- 민간(기업·기부·수익): 10% (75억원)

## 2.2 중앙정부 지원 확보 방안

### 2.2.1 관련 국비 사업 적극 활용

#### □ 중앙정부의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최대한 활용

##### ○ ① 고용노동부: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재고용 기업 지원, 연 10억원 내외 확보 가능
-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시니어 특화 일자리 사업, 연 5억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시니어 주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연 3억원

##### ○ ②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문화센터 조성: 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비 지원, 최대 100억원(국비 50억)
- 평생학습도시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연 3억원
- 문화예술 진흥: 시니어 문화 프로그램, 연 2억원

##### ○ ③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건강·돌봄 통합 시스템, 5년간 50억원
- 치매 안심센터 확충: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 연 5억원
- 노인 건강 증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 3억원

##### ○ ④ 행정안전부: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건립, 최대 50억원(국비 25억)
-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시니어-청년 협업 프로그램, 연 2억원

##### ○ ⑤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강경읍 고령친화 역사문화도시 조성 과 연계, 5년간 100억원
- 고령친화 주택 개조 지원: 연 5억원

#####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 포용 사업: 시니어 디지털 교육, 스마트 안전 시스템, 연 3억원

## □ 전략

- 각 부처 공모사업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업 계획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여 선정률을 높임
- 특히 여러 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융복합 사업'으로 기획하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짐
  - 예: 생활SOC(행안부) + 생활문화센터(문체부) + 커뮤니티 케어(복지부)를 통합한 '액티브 시니어 통합 커뮤니티 센터' 사업

## 2.2.2 국회 의원 협력

- 논산·계룡·금산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사업 예산을 반영하도록 적극 건의
-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용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접촉하여, 해당 분야 정책 수립 시 논산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도록 요청

## 2.2.3 대통령 공약사업 연계

-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관련 과제(저출산·고령화 대응, 지방소멸 위기 극복, 사회적 가치 실현 등)와 논산시 사업을 연계하여, 정부 정책의 모범사례로 부각
- 대통령 지역 순방, 장관 현장 방문 시 논산시 사업을 소개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

## 2.3 충청남도 지원 확보

### 2.3.1 도 단위 공모사업 참여

- 충청남도의 관련 공모사업(고령친화 환경 조성, 평생학습, 문화진흥, 사회적경제 등)에 적극 참여하여 도비를 확보

- 도 예산은 국비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선정률이 높고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음

### 2.3.2 도-시 협력사업 제안

- 충청남도에 '충남형 액티브 시니어 모델 개발' 협력사업을 제안하여, 논산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도가 집중 지원하도록 함
- 성과가 검증되면 전체 충남 시·군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도 입장에서 정책 성과를 낼 수 있어 협력 유인이 있음

### 2.3.3 광역 단위 사업 공동 참여

-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 사업(예: 대전·세종·충남 메가시티 연계 시니어 정책, 백제문화권 관광 개발 등)
- 논산시가 핵심 거점으로 참여하여 광역 예산을 확보

## 2.4 논산시 자체 재원

### 2.4.1 일반회계 배정

- 논산시 일반회계에서 액티브 시니어 정책 예산을 우선 배정
- 10년간 총 225억원(연평균 22.5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논산시 2023년 예산 약 7,000억원의 0.3% 수준으로 결코 큰 규모가 아니며, 시니어 인구 비중(60세 이상 약 30%, 3만명)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투자임

### 2.4.2 기금 활용

- 논산시 기금(지역개발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중 일부를 액티브 시니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계획을 조정

- 특히 '(가칭)논산시 시니어 미래기금'을 신설하여, 시니어 관련 사업 전용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 2.4.3 예산 절감 및 재배분

- 기존 노인복지 예산 중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통폐합하고, 액티브 시니어 정책으로 재배분
  -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연 약 30억원)의 일부를 전문성 기반 일자리·창업 지원으로 전환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중복·유사 사업을 통합하여(예: 경로당 프로그램, 복지관 프로그램,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로 통합) 예산 효율성을 제고

### 2.4.4 조세 확충 노력

- 논산시 세수 확대를 통해 자체 재원을 늘림
  - ㉠ 기업 유치(제조업, IT, 물류 등)로 법인세·재산세 증대, ㉡ 인구 유입(액티브 시니어, 귀농·귀촌자, 청년 등) 촉진으로 주민세·지방소득세 증대, ㉢ 관광 활성화(시니어 관광객 유치)로 관광 관련 세수 증대 등을 추진
  - 특히 액티브 시니어 정책의 성공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세수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 2.5 민간 재원 확보

### 2.5.1 기업 사회공헌(CSR) 연계

- 논산시 소재 기업 및 논산 출신 기업인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재원을 확보
  - ① 기업 후원 프로그램:'1사 1시니어 프로그램 후원' 캠페인을 전개하여, 기업이 특정 프로그램(예: 건강검진, 평생학습 강좌, 문화공연, 일자리 프로그램 등)을 후원하도록

유도(연 10개 기업, 기업당 평균 5천만원, 총 5억원 확보)

-후원 기업에는 ① 세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 ② 홍보 효과(프로그램명에 기업명 표기, 언론 보도), ③ 사회적 인정(우수 후원 기업 시상, '시니어 친화 기업' 인증), ④ 비즈니스 기회(시니어 시장 접근, 네트워킹)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② 시설 기부 채납:기업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내 특정 시설(예: ○○기업 음악실, △△그룹 헬스장 등)을 기부하거나, 장비·비품(운동기구, 악기, 컴퓨터, 가구 등)을 기증하도록 유도

-특히 건양대학교병원, 논산 소재 제조업체(자동차부품, 기계), 금융기관(농협, 신협, 우체국) 등에 집중 접촉

- ③ 공익연계 마케팅(CRM):기업이 제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시니어 사업에 기부하는 공익연계 마케팅을 제안

-예: 논산 딸기·석류 제품 판매 수익 중 1% 기부, 논산 소재 식당·카페가 매출의 0.1% 기부 등

## 2.5.2 크라우드펀딩

-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액 다수의 기부를 모집

- 예: “논산 할머니·할아버지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해주세요” 캠페인을 네이버 해피빈, 카카오키가치 등에서 진행하여, 전국의 공감을 얻고 기부금을 모집한다. 성공 사례를 언론에 홍보하여 논산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2.5.3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익 환원

- 시니어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운영비로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

- 예: 시니어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식당·공방의 수익 중 10%를 센터 운영비로 출연, 센터 내 카페테리아를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운영하여 수익을 센터에 환원

## 2.5.4 이용료 수입

-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료, 공간 대여료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하여 자체 수입을 창출
  - 다만 과도한 이용료는 접근성을 저해하므로, 실비 수준(원가의 50-70%)으로 책정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형평성을 유지(연 35억원(전체 운영비의 15-20% 수준))

## 2.5.5 유산 기부(레거시 기부)

- 시니어가 사후 재산의 일부를 논산시 시니어 정책에 기부하는 '유산 기부(Legacy Gift)' 프로그램을 운영
  - 유산 기부자에게는 생전에 명예의 전당 등재, 기념 시설물 명명권(예: ○○○ 홀, △△△ 장학금) 등의 예우를 제공하며, 이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기부 문화이나 한국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논산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음
  
- 해외 사례: 미국 'Senior Center Endowment(시니어센터 기금)' 모델
  - 미국의 많은 시니어센터는 민간 기부금으로 조성된 영구기금(Endowment)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수익으로 센터를 운영하여 정부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National Council on Aging, 2023)
  - 예를 들어 시애틀의 'International District Community Center'는 1970년대 건립 당시 지역 기업가들의 기부로 500만달러 기금을 조성하였고, 50년간 운용 수익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현재 기금 규모는 2,000만달러로 성장하였음
  - 기부자에게는 ① 세제 혜택(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② 명예(기부자 명단 영구 게시, 주요 공간 명명권), ③ 사후 기부 시 유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
  - 논산시도 중장기적으로 '논산시 시니어 영구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여, 기업·고액 자산가·유산 기부 등을 통해 최소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연 5% 수익률 가정 시 연 5억원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2.6 재원 조달 로드맵

### □ 로드맵

- 제1단계(2025-2029년): 초기 인프라 투자 집중 시기로 공공 재원(국비, 도비, 시비) 비중이 높음(90%)
  - 연평균 80억원 중 국비 35억(44%), 도비 15억(19%), 시비 25억(31%), 민간 5억(6%)
  - 민간 재원은 주로 기업 후원, 시설 기부로 확보
- 제2단계(2030-2034년):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전환되며 민간 재원 비중 확대(15%)
  - 연평균 70억원 중 국비 25억(36%), 도비 15억(21%), 시비 20억(29%), 민간 10억(14%)
  - 민간 재원은 이용료 수입, 사회적경제 조직 수익, 기부금 등 다변화
  - 중앙정부 지원은 점차 감소하지만, 자체 수익 창출로 지속가능성 확보
- 목표: 2034년까지 민간 재원 비중 20% 달성, 영구기금 100억원 조성 추진

## 3. 홍보 및 인식 개선

### 3.1 홍보 전략

#### 3.1.1 브랜딩 및 슬로건

##### □ 브랜드 네임

- “논산 액티브 시니어(Nonsan Active Senior)”슬로건: “60세, 새로운 시작! 논산에서 꽃피는 제2의 인생”

##### □ 비주얼 아이덴티티

- 로고: 역동적인 시니어의 실루엣 + 논산의 상징(딸기, 석류, 계룡산 등 모티브)
- 컬러: 생동감 있는 오렌지(활력) + 안정감 있는 블루(신뢰)
- 캐릭터: 논산을 대표하는 '할배·할매' 캐릭터(친근하고 활동적인 이미지)

### 3.1.2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 □ 온라인

- ① 웹사이트: '논산 액티브 시니어 포털' 구축(프로그램 안내, 온라인 신청, 커뮤니티, 성공 사례 등)
- ② 모바일 앱: 논산 시니어 전용 앱(프로그램 예약, 건강 기록, 커뮤니티, 알림 등)
- ③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운영(프로그램 소개, 참여자 인터뷰, 일상 브이로그 등)
- ④ 언론 보도: 지역 언론(대전일보, 중도일보 등), 전국 언론(조선·중앙·동아 지역면) 지속 보도
- ⑤ 온라인 광고: 네이버·카카오 검색 광고, 시니어 이용률 높은 플랫폼(유튜브) 영상 광고

#### □ 오프라인

- ① 현수막·포스터: 주요 거점(시장, 터미널, 병원, 은행 등)에 게시
- ② 리플릿·소식지: 전 가구 배포, 경로당·복지관 비치
- ③ 옥외 광고: 시내버스 광고, 버스정류장 광고, 전광판
- ④ 마을 순회 설명회: 읍·면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연 30회) ⑤홍보대사: 논산 출신 유명인(배우, 가수, 스포츠인 등) 홍보대사 위촉

### 3.1.3 스토리텔링 중심 홍보

#### □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달하여 공감을 이끌어냄

- 예: “70세에 대학 졸업한 논산 할머니”, “창업 3년 만에 연매출 1억 달성한 시니어 기업

가”, “손주와 함께 영어 공부하는 할아버지”, “치매를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은 시니어” 등 실제 참여자의 감동 스토리를 영상·기사로 제작하여 확산한다.특히 전국 미디어에 논산의 성공 사례가 보도되도록 적극 홍보하여, '액티브 시니어의 성지' 이미지를 구축

## 3.2 인식 개선 캠페인

### 3.2.1 시니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노인=의존적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시니어=사회의 자산'이라는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전개

○ 캠페인 주제:

- “60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 “시니어의 경험은 사회의 보물입니다”
- “할머니·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의 선생님입니다”
- “나이는 숫자에 불과, 꿈은 나이를 모릅니다”

○ 캠페인 방법:

- ① TV·라디오 공익광고(충남방송, 대전MBC 등)
- ② 전광판 메시지(논산시청 전광판, 주요 교차로)
- ③ 지하철·버스 광고(대전 도시철도, 시내버스)
- ④ 학교 교육 연계(초·중·고에서 '시니어 존중 교육', 세대공감 프로젝트)
- ⑤ 공공기관 캠페인(은행·우체국 등에서 시니어 우대 서비스 홍보)

### 3.2.2 시니어 자신의 인식 변화

□ 시니어 스스로가 '늙은이'가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로 정체성을 재정립하도록 도움

○ 방법

- ① 은퇴 준비 교육: 은퇴 전 시니어(55-59세)에게 은퇴 후 생활 설계 교육 제공(재정, 건강, 관계, 여가, 정체성 등 전반)

- ② 롤모델 제시: 성공적인 액티브 시니어 사례를 집중 홍보하여 동기 부여
- ③ 커뮤니티 가입 독려: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동아리 가입을 통해 또래 네트워크 형성 및 긍정적 영향
- ④ 언어 변화: '노인' 대신 '시니어', '경로당' 대신 '시니어 라운지' 등 명칭 변경으로 이미지 쇄신

### 3.2.3 세대 통합 캠페인

#### □ 청년·중년·시니어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

##### ○ 세대통합 프로젝트

- ① “우리 할머니·할아버지 자랑하기” 공모전(초·중·고생 대상, 글·그림·영상)
- ② “시니어와 함께하는 ○○” 시리즈(시니어-청년 창업 팀, 시니어-아동 멘토링, 3세대 가족 프로그램 등)
- ③ “나이를 넘어선 우정” 스토리 발굴(나이 차이 큰 친구 사이, 시니어-청년 동업자 등)
- ④세대통합 축제 개최(연 1회, 전 세대가 함께하는 공연·전시·체험·나눔)

#### □ 국내 사례: 서울시 '50+ 챌린지' 캠페인

- 서울시는 50세 이상을 새로운 도전의 주체로 인식 전환하기 위해 '50+ 챌린지' 캠페인을 전개하였음(서울시, 2020)
- “50부터 시작이다”, “인생 2막의 주인공은 나”,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 등의 메시지를 TV·옥외광고·SNS 등 다채널로 송출하고, 50+세대의 도전 스토리(재취업, 창업, 학위 취득, 봉사활동, 예술 활동 등) 100편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음
- 캠페인 후 여론조사 결과, 50+세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55%에서 72%로 17%p 상승하였고, 50+세대 자신의 자기효능감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1-5점 척도에서 3.2점 → 3.8점)
- 논산시도 유사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되, 논산 특성(역사문화, 국방, 농업 등)을 반영한 스토리를 발굴하여 차별화함

## VI. 결론 및 정책 제언

### 1. 연구 결과 요약

- 본 연구는 논산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를 분석하고, 이들을 '액티브 시니어'로 전환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음.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2024년부터 논산시에서도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되며, 이들은 1차 베이비부머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평균 교육연수 13.5년 vs 12.1년), 디지털 리터러시가 우수하며, 소득·자산 여건이 양호하고, 계속근로 의지가 강한(68.5%) 특성을 보임(이재호 외, 2024; 오삼일 외, 2025)
  - 둘째,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된 일자리 계속근로 기회 부족으로 인해 단순노무직·자영업으로의 하향이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자영업자는 준비 부족, 취약업종 집중, 낮은 생산성 등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이재호·정동재·안병탁, 2025), 개인과 사회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셋째, FGI 결과 논산시 시니어들은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욕구, 다양한 평생학습·문화예술 활동 욕구, 체계적 건강관리 욕구, 사회공헌 욕구 등을 가지고 있으나, 프로그램 부족, 시설 접근성 문제, 정보 부족, 기존 정책의 시혜적 태도 등으로 인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넷째, 전국 유사 지자체(공주시, 익산시, 밀양시 등) 사례와 해외 선진 사례(일본, 네덜란드, 미국 등) 분석 결과, 성공적인 액티브 시니어 정책의 공통 요소는 ① 명확한 비전과 전략, ② 지역 자원 활용, ③ 민·관·산·학 협력, ④ 주민 참여 보장, ⑤ 단계적·점진적 접근, ⑥ 지속가능성 고려임이 도출되었음
  - 다섯째, 논산시는 역사문화자원(백제·강경), 국방자원(육군훈련소), 건강자원(건양대·특화농산물), 대전권 인접 등 독특한 지역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논산형 액티브 시니어 모델' 구축이 가능함
-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역사·국방·건강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액티브 시니어 도시 논산”이라는 비전 아래, ① 경제활동 활성화(주된 일자리 계속근로, 창업 생태계,

전문성 기반 사회공헌), ② 문화·여가·평생학습 활성화(생활권 학습 네트워크, 문화예술, 여행·레저), ③ 건강한 노화 지원(통합 건강관리, 고령친화 환경), ④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조성(통합 센터, 읍·면 거점)이라는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재원은 10년간 총 750억원(중앙 40%, 도 20%, 시 30%, 민간 10%)을 조달하며, 제1단계(2025-2029년) 기반 구축, 제2단계(2030-2034년) 확산·고도화를 추진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였음

## 2. 정책적 시사점

### 2.1 패러다임 전환: 복지 수혜자에서 지역발전 주체로

-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시니어를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 전환임
  - 전통적 노인복지정책은 시니어를 '도움이 필요한 약자',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여 시혜적·수동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
  - 그러나 2차 베이비부머로 대표되는 액티브 시니어는 높은 인적자본과 강한 사회참여 의지를 가진 세대로, 이들을 지역발전의 '능동적 주체', '사회의 자산'으로 재인식하고,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임
  -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① 정책 명칭(노인복지 → 액티브 시니어 정책), ② 조직 체계(복지 부서 → 전담 부서), ③ 예산 배분(돌봄 중심 → 활동 지원 중심), ④ 프로그램 설계(시혜적 → 참여·자립적), ⑤ 거버넌스(행정 주도 → 시니어 참여) 등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함

### 2.2 통합적·연속적 지원 체계 구축

- 시니어의 욕구는 일자리, 건강, 문화, 여가, 학습, 사회참여 등 다차원적이며, 이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
  - 예를 들어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 일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고, 문화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
  - 따라서 각 영역의 서비스가 분절되어 제공되면 효과가 반감되며, 통합적으로 제공될

때 시너지가 발생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액티브 시니어 통합 커뮤니티 센터'는 일자리-건강-문화-학습-교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윈스톱으로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통합적 지원을 실현하는 모델임
- 또한 은퇴 전 준비 단계부터 은퇴 후 적응·활동 단계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속적 지원이 필요하며, 55세부터 은퇴 준비 교육, 60세 은퇴 시 집중 상담, 65세까지 재취업·창업 지원, 65세 이후 건강관리·사회참여 강화 등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

## 2.3 지역 자산 기반 차별화 전략

-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시니어 정책으로는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논산시는 ① 백제문화권·강경 근대문화라는 역사문화 자산, ② 육군훈련소라는 국방 자산, ③ 건양대학교·특화 농산물이라는 건강 자산, ④ 대전권 인접이라는 입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
- 구체적으로 ① 시니어 문화해설사 양성 및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② 전역장병 멘토링 및 국방-민간 협력 일자리, ③ 건양대 연계 건강도시 브랜드 구축, ④ 대전권 문화·의료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 '논산만의 액티브 시니어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차별화 전략은 외부 액티브 시니어를 논산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서울·대전 등 대도시에서 은퇴한 전문인력이 “논산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선택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논산만의 매력적인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 고유 자산에서 나옴

## 2.4 일본 사례의 선택적 벤치마킹과 한국적 적용

-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다양한 정책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한 계속고용 확대, 개호예방(요양예방) 프로그램, 지역 케어 플라자 등은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오삼일 외, 2025; 일본 후생노동성, 2023)

○ 그러나 일본 사례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며,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강한 고용보호, 연공형 임금체계), 가족 문화(노부모 부양 기대 약화), 복지 수준(낮은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 등의 차이를 고려한 선택적 벤치마킹이 필요

■ 예를 들어 일본의 '퇴직 후 재고용' 제도는 한국에도 적용 가능하나, 일본처럼 12년에 걸친 단계적 의무화(노력 의무 → 대상자 한정 의무 → 희망자 전원 의무)가 아니라, 한국은 초기에 정부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확산을 우선하고 점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는 길일 것임(오삼일 외, 2025)

○ 또한 일본의 '카요이노바(모임의 장)' 같은 주민 주도 소규모 건강 모임은 한국의 경로당·마을회관 문화와 결합하여 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민 자발성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모델임

## 2.5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의 중요성

■ 시니어 정책은 행정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민간(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학계(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복지관, 보건소, 평생학습관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

○ 특히 논산시는 건양대학교라는 지역 대학이 있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교수진, 학생, 병원, 연구 역량)을 시니어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건양대와의 협력을 통해 ① 의료·건강 특화 프로그램, ② 평생교육 고급 강좌, ③ 학생 인턴십·봉사활동 연계, ④ 시니어 건강 빅데이터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에게도 지역사회 기여와 실습 기회 제공이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윈-윈 협력임

■ 또한 시니어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 시니어를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인식하고, 정책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시니어 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 이는 정책의 수요 적합성을 높이고, 시니어의 주인의식을 강화하며,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2.6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 액티브 시니어 정책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정책이므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매우 중요
  - 초기에는 중앙정부와 도 지원에 의존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① 자체 수익 창출(이용료, 공간 대여, 사회적기업 수익 환원), ② 민간 재원 확대(기업 후원, 기부금, 영구기금 조성), ③ 예산 효율화(중복 사업 통폐합, 성과 기반 예산 배분)를 통해 자립도를 높여야 함
- 특히 '논산시 시니어 영구기금' 조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여, 기업·고액 자산가·유산 기부 등을 통해 최소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 수익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
  - 이는 미국 시니어센터의 일반적인 재원 조달 방식이며(National Council on Aging, 2023), 한국에서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시니어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의료비 절감, 생산성 증대, 소비 증가, 세수 증대 등)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정당성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

## 2.7 성과 측정 및 환류 체계 구축

-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 측정 및 환류(feedback) 시스템이 필요
  - 투입-과정-산출-결과-영향의 5단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자체평가, 3년마다 중간평가, 5년마다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 부분을 보완해야 함

- 특히 시니어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니어 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반영하는 '실시간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또한 건양대학교와 협력하여 시니어 정책의 건강·경제·사회적 효과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함으로써 논산 모델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확산시킬 수 있음

### 3. 정책 제언

#### 3.1 중앙정부에 대한 제언

##### 3.1.1 고령자 계속근로 제도 강화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오삼일 외, 202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정년연장보다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음
- 중앙정부는 ① 재고용 장려금 확대(현재 분기당 90만원 → 120만원 이상), ② 지원 대상 확대(현재 전원 재고용만 지원 → 부분 재고용도 지원), ③ 재고용 시 합리적 임금 조정 범위 명확화(노사 분쟁 예방), ④ 중소기업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강화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
- 또한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65세 또는 70세까지 고용확보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초기에는 노력 의무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함
- 다만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상 급진적 의무화는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3.1.2 노인일자리 사업 질적 개선

-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2024년 103만개), 질적으로는 단순 공익활동 중심(63.5%)으로 시니어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보수도 낮아(월 평균 29만원) 생계 보장에 미흡(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

- 중앙정부는 ① 전문성 기반 일자리 비중 확대(공익활동 50% → 사회서비스·시장형 50%), ② 보수 현실화(최소 최저임금 수준), ③ 활동 기간 연장(현재 1년 미만 → 지속 가능), ④ 민간 일자리와의 연계 강화(기업-시니어 매칭) 등의 개선이 필요

### 3.1.3 지역 기반 액티브 시니어 정책 지원

-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액티브 시니어 정책을 개발·실행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①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건립 국비 지원 확대, ② 우수 지자체 정책 발굴 및 확산(Best Practice 공유), ③ 지자체 간 정책 경쟁 및 협력 촉진(우수 지자체 시상, 정책 포럼 개최), ④ 관련 법제도 정비(「고령자고용법」, 「노인복지법」 등 개정) 등이 필요
  - 특히 논산시와 같이 혁신적인 액티브 시니어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효과적

## 3.2 충청남도에 대한 제언

### 3.2.1 충남형 액티브 시니어 모델 개발

- 충청남도는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19.2%)보다 높으며(21.3%, 2023년 기준), 농촌 지역이 많아 지방소멸 위험이 큰 상황
  - 도 차원에서 '충남형 액티브 시니어 모델'을 개발하고, 논산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 후, 성과가 검증되면 전체 시·군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2.2 광역 단위 인프라 공동 활용

- 대전·세종·충남 메가시티 차원에서 시니어 정책 인프라를 공동 구축·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예를 들어 ① 대전권 의료기관-충남 시·군 보건소 원격의료 네트워크, ② 대전 문화시설-충남 주민 공동 이용 체계, ③ 대전·세종·충남 시니어 일자리 통합 플랫폼, ④ 광역

단위 시니어 축제·박람회 공동 개최 등

### 3.2.3 농촌 지역 특화 지원

- 충남은 농촌 지역이 많으므로, 도시와는 다른 농촌형 액티브 시니어 정책이 필요
  - ① 스마트팜·6차산업 등 농업 현대화에 시니어 농업인 참여 지원, ② 귀농·귀촌 시니어 정착 지원, ③ 농촌 고령친화 마을 조성 지원, ④ 이동 지원·방문 서비스 등 접근성 개선 등이 필요하며, 도가 이를 위한 예산·전문가·매뉴얼 등을 제공해야 함

## 3.3 논산시에 대한 제언

### 3.3.1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 액티브 시니어 정책은 단순히 복지 부서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일자리·건강·문화·교육·도시계획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임
  - 따라서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이 필수적이며, 시장이 직접 나서서 ① 액티브 시니어 정책을 시정 핵심 과제로 설정, ② 전담 조직 신설 및 예산 확보, ③ 부서 간 협력 독려, ④ 대외 홍보 및 중앙정부·도 지원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함

### 3.3.2 단계적·현실적 추진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들을 단기간에 모두 실현하려 하면 예산·인력 부족으로 실패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① 1단계(2025-2027년): 조직 구축, 실태조사, 핵심 인프라(통합 센터) 착수, 시범사업 시작, ② 2단계(2028-2029년): 통합 센터 개관, 거점 5개소 조성, 시범사업 평가 및 확대, ③ 3단계(2030-2034년): 전면 확대, 모델 고도화, 확산 등의 로드맵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착실히 이행해야 함

### 3.3.3 시니어 당사자 참여 최우선

- 정책의 주인은 시니어 당사자이므로, 모든 과정에 시니어가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함
- ① 정책 수립 단계: 시니어 대표 참여 정책위원회, 시니어 대상 설문조사·FGI, ② 집행 단계: 시니어 운영위원회, 시니어 자원봉사자, 시니어 강사·멘토, ③ 평가 단계: 시니어 모니터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니어의 목소리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함

### 3.3.4 지속적인 홍보 및 인식 개선

-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시민들이 모르면 무용지물이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특히 시니어 자신이 '나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긍정적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정책 효과를 가시화해야 함

### 3.3.5 성과의 객관적 측정과 투명한 공개

-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매년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시의회와 시민에게 보고하고, 미흡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정책의 종합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
- 첫째, 본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분석, FGI, 사례연구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으나, 논산시 전체 시니어를 대표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못하였음

-향후 실태조사 단계에서 3,000명 이상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밀한 욕구 분석과 정책 수요 파악이 필요

- 둘째, 정책의 경제적 효과(경제성장률 기여, 의료비 절감, 세수 증대 등)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지 못하였음

-향후 건양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일반균형모형(CGE), 비용편익분석(CBA) 등 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정책효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정책 정당성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를 설득하는 데 유용할 것임

- 셋째, 시니어 내 다양성(성별, 연령, 학력, 소득, 건강상태, 거주지 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향후 세분 시장(segmentation) 분석을 통해 시니어 유형별(예: 건강한 초기 시니어 vs 허약한 후기 시니어, 고학력 전문직 vs 저학력 단순직, 도시 거주 vs 농촌 거주 등)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본 연구는 논산시에 초점을 맞췄으나, 제시된 정책 모델이 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지(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

-향후 논산 모델이 실제로 구축·운영된 후, 타 지자체에 확산할 때 어떤 수정·보완이 필요한지를 연구하여 '논산 모델의 보편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모델, 특히 민간 자원 확보 방안이 다소 낙관적일 수 있음

-향후 실제 추진 과정에서 기업 후원, 기부금, 수익 창출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재정 계획을 수정해야 함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논산시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액티브 시니어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논산시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60세, 새로운 시작! 논산에서 꽃피는 제2의 인생”이라는 슬로건이 현실이 되고, 논산시는 대한민국 대표 액티브 시니어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강민정. (2022). 신중년 노동시장 특징과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2022-6호.
- 김도윤·정태익·김용섭·김현준·전영수·채상욱·홍춘욱. (2023). 머니 트렌드 2024. 북모먼트.
- 김문선. (2022). 주요국의 실버시장 현황과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No.12.
- 김윤화. (2020). 스마트기기 보유와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이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DI STAT Report Vol.20-20.
- 김지연·정규철·허진욱. (2022).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제39권 제2호.
- 김태현. (2010).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제37호.
- 방하남.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용정책의 과제.
- 오삼일·장수정·채민석·김대일·한진수. (2025).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5-8호.
- 이재호·강영관·조윤해. (2024).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4-17호.
- 이재호·정동재·안병탁. (2025).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5-12호.
- 조강철·이종하. (2022).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22년 10월호.
- 한국금융연구원. (2020). 일본의 70세 고용 연장 추진 배경과 시사점. 금융브리프, 29권 14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 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4). 충남지역 지방소멸의 주요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 해외 문헌

- Amaro, S., Antunes, A., & Henriques, C. (2021). A closer look at Santiago de Compostela's pilgrims through the lens of motivations. *Tourism Management*, 64, 271-280.
- Barro, R. J., & Lee, J. W. (1993).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educational attain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2(3), 363-394.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Holt-Lunstad, J., Smith, T. B., Baker, M., Harris, T., & Stephenson, D. (2015).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 227-237.
- Kim, J. E., & Moen, P. (2002). Retirement transitions, gend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life-course, ecological model.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7(3), P212-P222.
- Krueger, R. A., & Casey, M. A. (2015).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5th ed.). SAGE Publications.
- National Council on Aging. (2023). *Senior Center Funding and Sustainability Report*.
- Van der Meer, M., Fortuijn, J. D., & Thissen, F. (2020). Community centers and social capital in Dutch neighborhood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55(1), 81-99.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Geneva: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Geneva: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Geneva: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Decade of Healthy Ageing: Baseline Report*. Geneva: WHO.